주체91(2002)

6.15주간

6.15Weekly

제34호 (2월 8일~2월14일)

주석님 노작

진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4호 (2.8~2.14)



진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자

해주시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46년 1월 12일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상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모인 해주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북조선공산당 중앙조직위원회와 그리고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포 여러분!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동안 조선을 강점하고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 씌웠습니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의 도처에 군대, 헌병, 경찰, 감옥, 테러 망을 늘여놓고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야수적인 탄압과 발악적 책동으로써도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을 가로막을 수 없었습니다. 조선의 진정한 혁명가들과 애국적 인민들은 장기간에 걸친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마침내 일제침략자들을 때려부수고 빼앗겼던 조국을 찾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36년 동안의 비참한 노예생활에서 영원히 벗어나 자주적 인민으로 되었으며 행복한 새 생활을 창조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감격과 흥분 속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한지 벌써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인민은 자기의 손으로 각 지방에 인민위원회들을 수립하였으며 사회질서를 바로 잡고 일제가 파괴한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방된 지 5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새 조국을 건설하기 위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앙정부를 수립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는 토대도 닦지 못하였습니다. 생산기관들과 직장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거기에 질서도 서있지 않습니다.

그 주요한 원인은 아직도 우리 민족이 굳게 단결되어 있지 못하고 전체 인민의 힘을 건국사업에 동원집중하지 못하는데 있습니다. 과거에 단결력이 미약하였던 탓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에 빠졌던 우리 민족이 해방된 오늘에 와서도 굳게 단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전체가 굳게 단결하여 해방 후 인차 우리 나라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더라면 이번에 모스크바3국외상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일이 없었으리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하루바삐 굳게 단결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세계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당당히 전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은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평화를 사랑하고 파시스트를 반대하며 우리 민족을 평등하게 대하는 모든 민족과 친선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나라가 세계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등권을 가지고 국제무대에 나서며 세계민주대열에 서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철저히 반대하여야 합니다. 지금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은 우리 나라를 반민주주의 길로 끌어가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전체 인민은 민주주의 새 조선 건설을 방해하는 반동분자들의 음모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이며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건국위업을 실현하는데서 큰 장애로 되는 것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남겨놓은 낡은 사상독소입니다. 일제는 장기간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인민들의 머리 속에 온갖 반동적인 사상을 뿌려놓았으며 그 사상잔재는 오늘 새 조선 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사상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악독한 일제사상독소를 철저히 청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조선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 찬란한 문화를 부흥시키며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교육을 발전시켜 일제에게 억눌렸던 민족의식을 발양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누구나 다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건국사업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할만한 경제를 건설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우리 동포들이 생활난을 겪고 있으며 실업상태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빨리 나라의 경제를 부흥 발전시켜야 합니다.

우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파괴한 공장, 기업소들을 빨리 복구정비하고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실업자를 없애며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어 그들의 세기적 숙망을 풀어주며 농업을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여 전체 인민들이 새 조선의 경제건설과 산업부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합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 단결된 힘을 시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포들,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애국자들!

우리 민족의 통일과 단결을 방해하는 친일분자, 민족반역자를 비롯한 반동분자, 반민주주의 분자들을 우리 민족의 대열에서 구축하고 대중적 지반 위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굳게 결성합시다.

우리는 다같이 일어나 한데 뭉쳐 있는 힘을 다하여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인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건설합시다. 그리하여 하루속히 조선의 완전독립을 쟁취합시다.

조선문제에 관한 모스크바3국외상회의 결정을 지지하자!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 만세!

5. 백전노장 최현

≪세기와 더불어≫ 제4권 제11장 혁명의 분수령



...

나는 미혼진 밀영에 도착하자마자 50여명의 일반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반토굴식병실부터 찾아갔다. 바로 그 50여명속에 내가 그처럼 만나보고 싶어하는 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밀영을 지키고 있던 후방일군들이 병실문을 열어제끼고 김사령이 온다고 선통하자 최현은 누웠던 자리에서 가까스로 일어나 출입문쪽으로 벌렁벌렁 기여나왔다

내가 첫눈에 마촌에서 새겨두었던 옛모습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얼굴은 참혹하게 변모되어 있었다.

≪김대장, 부탁입니다. 들어오지 마시오! 들어오면 안됩니다!≫

최현이 두팔을 내저으며 불이 황황 이는 것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는 바람에 나는 한동안 출입문앞에서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거 미혼진 인심이 너무 야박한 것같다. 최현을 보고싶어 왔는데 문전축객을 하다니 이런 인사불성이 어디 있소.≫

내가 이런 농을 하였으나 최현은 막무가내였다.

≪야박하다는 말을 들어두 할 수 없수다. 그래 김사령도 여기가 염라국문앞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이요?≫

≪하하, 총알을 100가마니쯤 쐈봤다는 최현이 이런 엄살쟁이인줄은 정말 몰랐구만.≫

최현은 자기의 말이 이가 들지 않는 것을 보자 나를 병실까지 안내해온 후방일군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부었다.

≪이 시라소니 같은 것들아. 여기가 어디라구 김사령을 함부로 데리구 와? 김사령을 그렇게 모시면 안 돼!≫

후방일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문앞에서 모두 꽁무니를 뺐다.

최현이 욕을 퍼붓는 사이에 나는 병실한복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박달방치 같이 단단하던 최현이가 장티브스라니 웬일이요?≫

내가 머리맡에 다가앉으면서 악수를 청하자 최현은 모포밑으로 황황히 손을 움츠러뜨렸다.

≪김사령, 내 몸엔 장티브스벌레가 씨글씨글하오. 제발 내살에 손을 대지 마시오. 전염병창고 같은 이 잘난 미혼진에는 어쩌자구 오셨소?≫

≪어쩌자구 왔겠소. 최현일 보고싶어서 왔지. 세상에 별일도 다 있구만. 최현이 전염병에 다 걸리다니.≫

나는 모포밑으로 손을 밀어넣어 화독처럼 달아오른 최현의 손을 덥석 잡아쥐고 오래동안 놓지 않았다.

최현의 눈에는 금시에 눈물이 핑 돌았다.

≪김사령, 반갑소. 이 잘난 최현이가 뭐게…. 난 김사령을 못 보고 저승에 가는가 했소.≫

방금전까지 곁에 오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가 인제는 내 손을 집게처럼 꽉 잡아쥐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때의 최현은 영낙없는 어린애였다.

그는 2차 북만원정과 관련한 질문을 몇가지 하고 나서 장티브스로 인한 피해상황을 한참동안 설명하였다.

나는 최현의 운명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에로 화제를 돌렸다.

≪그동안 ≪민생단≫ 감투를 쓰고 마음고생을 퍼그나 했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사실이지요.≫

최현은 우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기의 머리에 ≪민생단≫감투가 떨어진 경위를 성급하게 엮어대기 시작했다.

≪김대장이 마촌에서 통일전선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소. 그래 난 그 노선을 천하에 둘도 없는 명노선이라구 생각했댔지요. 연길에 돌아간 다음 우리 부대 동무들에게도 선전을 좀 했더니 왕덕태군장까지도 통일전선을 안하면 못산다지 않겠소. 그런데 난 통일전선을 하려다가 ≪민생단≫감투를 쓰지 않았겠소.≫

우리가 1차 북만원정을 떠나간 다음 최현은 중대를 데리고 돈화현과 화전현 접경지대에 진출하여 유격활동구역을 넓히기 위한 맹렬한 정치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일대에서 유격구역을 확대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대황구막바지에 진을 치고 있는 반일부대들과의 사업을 자라는 것이였다.

그 당시 대황구골안에는 80명, 100명 정도의 전투인원을 가진 2개의 산림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경향이 매우 좋았다. 빨찌산 공작원들이 이 부대에 침투하여 반일선전공작을 많이 한 덕이었다. 이 산림부대는 근처의 자위단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친일로부터 반일로 돛을 바꾼 이고장 자위단들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그 산림부대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러나 100명짜리 산림부대는 인민들의 재물을 략탈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을 뿐 아니라 류수촌의 적군경들과 은밀히 내통하면서 집단적인 귀순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항일과 투항변절을 지향하는 서로 다른 두 산림부대사이의 대립을 류혈적인 무장충돌로 번져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협을 배태하고 있었다. 투항을 시도하는 산림부대를 그대로 두고서는 다른 산림부대들을 항일의 길로 선도할 수 없었고 그들과의 반일공동전선도 성사시킬 수 없었다.

최현은 두 산림부대사이에 화해를 시킨다고 하면서 연회를 차렸다. 투항을 시도하던 100명짜리 산림부대의 지휘관들도 연회에 초대되었다. 그 지휘관들이 연회장에 나타나자 최현중대는 그들을 순식간에 무장해제시켰다. 그러면서도 80명짜리 산림부대는 건드리지 않았다. 그 부대와 우호관계에 놓여 있던 자위단에 대해서도 물론 실력행사는 하지 않았다.

최현이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것은 통일전선노선의 요구에 부합되는 공명정대한 처사였다. 그러나 군부 정치주임을 비롯한 상급의 좌경분자들은 ≪적을 치지 않았으니 적에게 투항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최현의 정당한 처사를 범죄시하면서 그를 정치지도원자리에서 철직시키고 그가 애용하던 모젤권총까지 회수하였다. 그 처분이 얼마나 부당했으면 왕덕태까지도 ≪최현동무가 ≪민생단≫이라면 우리 2군에 비≪민생단≫은 도대체 누구인가?≫고 절규하였겠는가. 최현은 철직책별을 받은 후 전사로 강직되었다가 왕덕태군장수하에서 1년동안 군부 군수처장으로 활동하였다. 1935년말에야 그는 중대장으로 되었다.

≪이 최현이는 김사령덕으로 살아난 셈이웨다. 다홍왜에서 김사령이 한목숨을 내대고 우리를 옹호해나서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영 ≪민생단≫대접을 받으면서 두더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이요. 김사령이 말씀해보시오. 그래 그 자위단을 치지 않은 게 과연 투항이란 말이요?≫

최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정면으로 주시하였다. 그의 근엄한 얼굴은 주홍빛으로 급작스레 달아올랐다.

나는 최현의 손을 두손으로 정답게 포개여잡고 머리를 저어보였다.

≪그게 왜 투항이겠소. 반일전선을 위한 옳은 처사인데…. 최현동무를 ≪민생단≫으로 몰아서 강직시킨건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허무맹랑한 짓이였소.≫

≪그러면 그렇겠지. 아무렴 이 최현이가 할 짓이 없어 ≪민생단≫을 한단 말이우? 쌍간나새끼 같은 것들, 분통이 치밀어 못견디겠거든.≫

≪최현동무처럼 ≪민생단≫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거나 애매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수천명이나 되니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이요.≫

≪다 쌔노란 개수작이지. 그래 윤창범이나 박동근 같은 혁명가들이 어떻게 ≪민생단≫일 수 있단 말이요. 그 자식들은 일 잘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만 골라가며 처형해놓고는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우쭐렁거리며 돌아다니더구만. 이런게 공산주의라면 애당초 연해주에 갔다가 간도땅에 오지도 않았겠소.≫

≪반≪민생단≫투쟁은 우리의 항일투쟁사에 두번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될 참혹한 수난이였소. 얼마나 많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소. 다행히도 국제당에서는 우리가 다홍왜회의에서 표명한 입장이 정당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동만당이 지도해온 반≪민생단≫투쟁이 극좌적이였다는 것을 정식으로 지적하고 그 수습책을 조속히 강구할 데 대한 과업을 주었소,≫

최현은 이 말을 듣자 눈물을 흘렸다.

≪그게 사실이라면 난 이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부르고 싶소. 김사령, 고맙소.≫

≪중요한 것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전우들의 원한을 어떻게 풀어주고 우리 혁명이 당한 이 엄청난 손실을 어떻게 봉창하겠는가 하는 것이요. 그렇지 않소?≫

≪옳습니다. 김사령, 우리가 노력해서 그 누명을 메꿔야지요. 살아남은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서 말입니다.≫

나는 최현의 대답을 듣고 만족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군사에만 밝은 것이 아니라 정치에도 역시 밝은 지휘관이였다. 그후 수십년간의 사업과정을 통하여 나는 그가 군사작전의 능수일 뿐 아니라 자기식의 일가견을 가진 무게있는 정치활동가라는 것을 확고히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유능한 군사작전가인 동시에 노숙한 정치일군이자 세련된 선동가이기도 하였다. 최현은 군사외교에도 능숙하였고 적군와해공작도 잘하였다. 그가 장악한 만주국의 군경들은 인민혁명군부대에 계통적으로 탄약과 무기를 공급해주고 적정도 수시로 통보해주었다.

최현을 싸움꾼으로만 본다면 그것은 근시안적인 평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항일전쟁시기의 노병들이 ≪챠빠예브≫란 쏘련영화를 보고 이런 소감을 나눈적이 있다.

≪저 챠빠예브란 사람은 신통히도 우리 최현대장 같구만. 최현대장이 챠빠예브를 먹고 게운 것 같애. 말투도 그렇고 거동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싸움하는 본때도 그렇고….≫

최현은 노기등등해서 그 말을 반박하였다.

≪챠빠예브는 무슨 챠빠예브, 최현이면 최현이지!≫

이 대답은 자기를 주먹구구식 군사지휘관으로만 보는데 습관된 동료들의 견해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의 표시였다. 최현과 챠빠예브를 동류항으로 놓는 것은 정확한 평가라고 할 수 없다. 최현을 평가할 때는 항상 그가 무관이기 전에 유격대 정치지도원 경력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경력을 가진 유능한 정치일군의 한 사람이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나는 정열과 신심에 끓는 최현의 눈동자를 미덥게 바라보며 그의 손등에 손을 얹고 대화를 이어갔다.

≪…그 씨앗이 열, 백, 천사람을 얻고 천사람이 만사람을 얻는다면 우리는 조만간에 사람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요. 이것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대업이요. 이 대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남호두회의에서 강조한 것처럼 조국과의 접경지대인 장백지구, 백두산지구에 진출해서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해야 하오.≫

최현은 새로운 형태의 그거지라는 말에 상체를 성급하게 일으켜 세우고 눈썹을 여러번 씰룩거렸다.

≪아니, 유격구를 방금 해산했는데 새 유격구를 또 건설한단 말입니까?≫

나는 최현에게 새로운 형태의 근거지를 건설할 필요가 어디에 있고 그 근거지가 종전의 근거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주었다. 만사를 즉석에서 이해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최현의 정치적 감수성은 참으로 놀랄만한 것이었다. 최현은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강력한 지레대로 되게 될 남호두회의의 방침들에 절대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이 회의의 결정은 최현을 비롯한 미혼진밀영의 모든 열병환자들을 절망의 나락에서 건져주었다.

≪열병을 앓는 동안 나는 죽을 고비를 여러번 겪었소. 병이 심할 때문 죽고싶은 생각도 났소. 죽으면 만사가 끝장이고 이런 고통도 더는 겪지 않을텐데 하는 어처구니없는 망상에 잠길때도 없지 않았소. 그런데 오늘 김사령을 만나는 바람에 그런 잡념이 다 달아나버리고 말았소. 김사령얼굴을 보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살아서 끝장을 봐야겠다는 배심이 생기오.≫

최현이 나에게 한 말이였다.

그가 나와의 상봉에 요란한 주석을 가한 것처럼 나도 그와의 상봉에 의미심장한 뜻을 부여하였다.

≪동무는 내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다고 하지만 난 오히려 동무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었소. ≪민생단≫ 바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현이를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소. 지금의 정세에서는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공로로 되고 있소.≫

그날 나는 이동백과 함께 밀영을 낱낱이 돌아보았다.

밀영의 의료조건과 식량형편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였다 미혼지 가까이에 있는 1사 7중대 동무들이 가끔 식량을 공작해서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수십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끼니를 이어대기가 무척 힘들었다. 낟알이 떨어지면 죽도 없어 썩은 옥수수겨를 비벼서 끓는 물에 타먹곤 하였는데 그 거치른 음식마저도 노상 차례지는 것은 아니었다.

밀영관리를 담당한 사람이 한명 있기는 하였지만 그 김 아무개라는 사람은 자기 한몸의 안전밖에 돌볼줄 모르는 겁쟁이였다. 최현은 병원에 호송되어오자 그더러 밀영의 관리를 책임진 사무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김가는 어구실저구실 붙여가면서 태공을 하였다. 밀영주변에는 1935년 가을 최현이 돈화지방에서 지주를 치고 노획해온 많은 식량과 부식물의 예비가 파묻혀 있었지만 그는 쌀이 없다고 우는 소리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하루 한두끼의 공죽마저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았으며 몇명 안되는 재봉대의 대원들에게 환자관리를 맡겨버리고는 병에 전염될가봐 10여리나 떨어진 다른 밀영에 가서 흰쌀밥에 고기반찬을 먹으며 호강을 하였다.

김가는 보초근무도 여대원들에게만 맡겨두었다.

김철호, 허성숙, 최순산을 비롯한 미혼진의 여대원들이 그때 환자들의 시중을 해주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였다. 밀영에 무슨 김부관이요, 곽부관이요, 류부관이요 하는 후방일군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외부공작을 하느라고 환자들의 뒤치닥거리를 할 경황이 없었다. 여대원들은 순번을 짜가지고 재봉일도 하고 보초근무도 서고 환자간호도 하였다.

주야로 고통에 시달리는 장티브스 환자들은 신경을 칼날처럼 곤두세우고 시중군들을 들볶았다. 그들은 냉수를 마음대로 먹지 못해 모두 미칠 지경이었다. 어떻게 되어서인지 그 당시 인민혁명군대원들속에서는 장티브스 환자들이 냉수를 마시는 것을 독약을 삼키는 것과 같은 자살행위라는 여론이 떠돌아 치료에까지 적용되었다. 최현이 밀영병원에 냉수금지령을 내리고 그 금지령을 위반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위협한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여론을 절대시한데 있었다.

하지만 갈증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린 열병환자들은 막무가내로 냉수를 찾았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병들의 눈을 피해가며 처마끝에 달린 고드름을 따먹었다. 빨치산의 규율앞에서 그처럼 공손하고 충실하던 사람들이 갈증앞에서는 참을성을 잃고 굴레벗은 망아지처럼 행동하였다. 여대원들이 냉수대신 죽사발을 주면 내던지면서 입에 담지 못할 쌍욕질을 하였다. 그래도 여대원들은 열병환자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일축해버리곤 하였다. 환자들이 물독의 물을 마음대로 퍼마시지 못하게 두눈을 부릅뜨고 교대로 보초도 서고 이모저모로 감시도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밤 맹손이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통신원이 갈증을 참다못해 물독을 향해 네발걸음 정신없이 기어갔다. 그날밤의 당번보초는 여대원 허성숙이였다. 허성숙은 맹손을 보자마자 허둥지둥 물독앞으로 뛰어가 그의 손에서 바가지를 나꿔챘다. 그리고는 온 병실이 떠나가게 큰소리로 그를 꾸짖었다.

≪맹손동무, 벌써 명령을 잊었나요? 왜 죽고싶어서 그래요? 당장 자기자리로 돌아가세요.≫

극한 점에 이른 맹손은 부뚜막앞에 놓여있던 장작개비로 허성숙의 종아리를 호되게 답새겨준 다음 물독의 물을 게걸스럽게 퍼마셨다. 그리고 나서는 온밤 모포를 뒤집어쓰고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

허성숙은 맹손이가 죽는 것 같아서 보초교대를 한 다음에도 잠을 못이루고 그의 곁에 앉아 밤샘을 하였다. 다른 환자들도 그가 졸경을 치를 것 같아 걱정하였다. 그러나 첫새벽이 되자 저승에 갈줄로 알았던 맹손이는 모포를 밀어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성숙을 덥석 그러안았다.

≪성숙동무 고맙소. 나는 살아났소. 내가 물을 먹을 때 동무가 눈을 감아준 덕으로 열이 다 내렸단 말이요 그 많던 열이 다 어디로 갔을까?≫

≪땀구멍으로 새버렸지 어디로 갔겠나요. 이것 보세요. 모포에서 김이 풀풀 나지 않나.≫

허성숙은 땀에 푹 젖은 맹손의 모포를 높이 쳐들고 병실을 둘러보았다. 잠에서 깨어난 환자들이 모두 그 모포를 쳐다보았다.

이렇게 되어 냉수금지령은 취소되고 사람들은 마음껏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날이 갈수록 미혼진의 수많은 열병환자들은 사경에서 벗어났다. 침상에서 일어난 장티브스 환자들은 여대원들과 함께 명절이라도 맞듯 음식준비를 하였다.

우리는 밀영주변에서 류부관과 함께 최현이 돈화에서 노획해왔다는 다량의 쌀과 육류를 찾아냈다. 그때부터 밀영사람들의 식탁에는 기름기가 돌기 시작했다. 여러차례의 원정과 전투에서 단련된 전우들은 장기간의 원정에서 겹쌓인 노독을 풀 사이도 없이 미혼진의 여대원들을 대신하여 날마다 보초를 서주었

다.

사람마다 병마에서 구원된 기쁨을 안고 대지를 활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미혼지에서 왕덕태, 위증민과 함께 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열고 남호두회의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웠다. 이 회의에는 김산호, 박영순, 김명팔을 비롯하여 인민혁명군의 중대정치지도원급이상 간부들이 다수 참가하였다.

남호두회의결정은 고정된 해방지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해산하고 활동무대를 만주일대와 조선반도 전역에 확대하기 시작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이 1930년대 후반기에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과업들이었다. 이 과업들을 해결하자면 일련의 전술적 대책이 필요하였다.

우리는 장차 백두산지구를 조선혁명의 중심적인 책원지로 삼고 남북만주와 국내 깊이에까지 자유자재로 유동하면서 대부대에 의한 적극적인 군사공세와 정치활동으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한계단 더높이 승화시키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판을 크게 벌이려고 결심하였다. 이런 구상을 실현하자면 무엇보다도 세가지 고리에서 사람문제를 해결하여야 하였다. 당역량, 군사역량, 전민족적인 범위에서의 통일전선역량, 이 세가지 역량을 충분히 마련하여야 혁명을 새로운 높이에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인민혁명군부대들의 개편문제를 토의하고 새로 조직되는 사람들과 여단의 활동지대를 결정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1개사단, 1개 독립여단을 새로 편성하여 인민혁명군의 전투역량을 종전의 2개사단으로부터 3개사단, 1개 독립여단으로 대폭확대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기초하여 부대별 활동구역을 분담하였는데 새로 조직될 3사(후에 6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국경연안 일대에서, 1사는 무송, 안도, 림강 일대에서, 2사는 간도와 북만일대에서 각각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새로 편성되는 독립여단은 북만주대방에서 유동작전을 하다가 점차 압록강연안에 진출하여 국경일대에서 출몰하는 적들을 제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실로 짧은 시일안에 전략적인 방법으로 인민혁명군의 전투력을 2배정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전투적인 결정이였다.

회의에 참가한 군정간부들은 인민혁명군의 개편사업을 항일무장투쟁전반을 위한 진일보로 보고 이 조치를 열광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렇다고하여 모든 문제들이 다 순조롭게 해결된 것은 아니였다. 집행대책을 토의하는 마당에서는 회의진행에 제동을 거는 잡음도 울렸다. 그잡음의 기본주체는 간부부족에 대한 걱정이였다.

우리 사람들이 인민혁명군의 개편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간부부족대문에 그 개편사업의 전도에 우려를 표시하는 것은 일리가 있는 생각이였다. 반≪민생단≫투쟁과정에 인민혁명군대오에서는 수많은 군정간부들이 제거되었다. 극단적 군사민주주의의 후과도 간부부족을 초래한 하나의 요인으로 되었다. 적지 않은 현직간부들에게는 그때까지도 ≪민생단≫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인민혁명군의 여러 부대들에서는 지휘관을 보내달라는 목소리가 무시로 울렸다.

우리는 대담하게 믿고 대담하게 등용하는 원칙에 따라 새로 편성되는 부대들에 보낼 간부배치안을 작성하였다. 이 안에 따라 3사는 우리의 직속부대로 되었다. 안봉학은 1사 사장으로 유임되고 최현은 중대장으로부터 1사 1연대장으로 등용되었다.

우리는 미혼진회의에서 조국광복회창당을 위한 준비위원회의 조직문제도 논의하였다.

남호두회의를 1930년대 전반기와 후반기를 구획짓는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하면 미혼진회의는 동강회의, 서강회의, 남패자회의와 함께 조선혁명을 1940년대의 대사변으로 유도해 간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남호두를 떠난 급행렬차는 미혼진, 서강, 남패자를 거쳐 소할바령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였다. 미혼진, 서강, 남패자는 남호두로부터 소할바령으로 통하는 역사적인 노정에서 우리의 우정과 심혼이 아낌없이 뿌려진 잊을 수 없는 중간정류소들이다.

나는 연대장으로 승진된 최현을 축하해주고 그에게 작별인사를 남겼다.

≪다음번에는 백두산지구에서 만납시다. 건투를 바라오!≫

최현은 내 팔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강떼를 썼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이 팔을 놓아주지 않겠소. 나도 백두산쪽에 나가 김사령수하에서 싸우고 싶단 말이오.≫

≪최현동무, 낸들 왜 당신과 헤어지고 싶겠소. 나도 욕심이 있는 사람이고 인정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다들 내옆에만 오면 다른 부대는 어떻게 하겠소. 최현이나 최용건, 이학만, 한흥권과 같은 지휘관들이 큼직큼직한 전선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투쟁을 해야 우리 혁명이 넓은 판도에서 날개를 펴고 빠른 속도로 날아갈 게 아니겠소. 나는 소꼬리가 된 최현이보다 범이 된 최현이를 보고싶단 말이요.≫

≪나 같은게 어떻게 범이 되겠소. 헛참!≫

최현은 ≪헛참!≫소리를 연발하고 나서 눈을 가늘에 뜨고 어딘가 먼곳을 응시하였다.

≪그럼 오늘은 내 더 떼를 쓰지 않겠소.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어림도 없소. 꿈속에서라도 이 최현이를 잊지 마시오. 나도 꿈을 꾸면 **김일성**사령관 곁에 있는 꿈을 꾸겠소.≫

나와 최현과의 세번째 상봉은 무송현 서강 양목정자밀영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최현은 미혼진에서 매듭짓지 못한 흥정을 계속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소원을 성취할 수 없었다. 나를 만나기 바쁘게 주력부대에 넘겨 달라고 뻗질을 하였지만 구경은 나를 설복시키지 못하였다.

최현은 일생동안 내곁에 있고 싶어하였으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그의 그런 시도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현실적인 다른 유혹에 매번 자리를 내주곤 하였다. 그 유혹이란 바로 내가 걱정하고 관심하는 가장 준엄한 최전선에 자기를 세우고 싶어하는 수정처럼 깨끗한 양심의 충동이였으며 헌신적인 복무정신이였다.

우리를 측근에서 받들어주고 싶어하면서도 우리가 부르는 가장 어려운 초소에 자기가 선참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남다른 일욕심, 여기에 바로 최현의 충신다운 면모가 있었고 그의 인간미를 장식하는 특출한 매력이 있었다. 그 두가지 욕망은 한평생 그의 마음속에 쌍둥이처럼 동거하면서 끝없는 힘내기를 해왔다. 최현은 두 욕망을 다같이 지지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제기되면 매번 내곁을 떠나 내가 중시하는 초소로 주먹을 부르쥐고 달려가곤 하였다.

이것은 분명 최현의 일생을 관통해온 유쾌한 모순이였다. 인민무력부와 정무원의 부장직에서 나의 사업을 보좌한 말년을 제외한다면 그의 온 생애는 초연이 자욱한 최전방에서 흘러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는 1930년대 후반기에만 하여도 수백번의 전투를 하였다. 삼도구전투, 5도구전투, 소탕하전투, 황구령전투, 금창전투, 붉은바위전투, 곰의자리전투, 간삼봉전투, 나루훈전투로금창전투, 무치허전투, 프르허전투, 위탕거우전투, 천보산전투, 대사하, 대장강전투, 요차전투, 한총구전투 등 수백회의 대소전투들은 모두 최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으며 탁월한 군사지휘관으로서의 그의 재능과 무비의 용감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교시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에게 끝없이 충실하며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풍모와 자질을 훌륭히 갖추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는 천재중의 천재입니다. 그는 모든 분야에 능통한 인류역사가 낳은 위인들중의 위인입니다.≫

≪**김정일**동지는 뛰어난 철학가, 정치가이며 다재다능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현시대 으뜸가는 사상이론의 영재일 뿐아니라 비상한 조직적 수완과 혁명적 전개력을 지니고 일단 결심한 문제는 완강한 투지로 실천하는 실천가입니다.≫

≪**김정일**동지는 사상이론의 대가이며 강한 실천형의 지도자입니다. 인류역사에 위대한 사상이론과 강한 실천력 그리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모두 겸비한 위인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는 **김정일**동지처럼 혁명적 자존심이 강한 정치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김정일**동지는 항상 우리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고 있으며 우리 당을 중심으로 세상만사를 헤아려 보고 있습니다. 그는 수령도 우리 수령이 제일이고 당도 우리 당이 제일이며 제도도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이 오늘처럼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안정된 생활을 누리며 높은 긍지와 자부심,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길로 힘차게 전진하고 있는 것은 **김정일**동지의 세련된 영도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정치가들은 많지만 **김정일**동지처럼 당과 혁명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정치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열정의 인간입니다.≫

≪**김정일**동지는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다운 불굴의 의지와 담력, 뛰어난 지략과 영군술을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 우리 혁명무력의 끊임없는 강화발전과 백전백승의 담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20세기를 **김일성**세기라고 하고 있는데 21세기는 **김정일**세기일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약력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시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다.

그분께서는 1942년 2월 16일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그분의 가정은 1860년대부터 대를 이어가며 외래 침략자들의 강점자들을 반대하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해 투쟁해온 가장 애국적인 혁명적인 가정이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50년 9월부터 1960년 8월까지 보통교육과정을 마치시었으며 1960년 9월부터 1964년 3월까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고등교육과정을 마치시었다.

그분께서는 대학시절에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하시어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발전 풍부화시키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64년 6월부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계시면서 지도원, 과장을 거치고 부부장, 부장 등의 책임적인 직무를 맡아보시었다.

그분께서는 1973년 9월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1974년 2월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 위원으로 선거되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기 위한 대책을 취하시는 한편 당을 강화하도록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이룩하신 당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전통을 교양하고 계신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치기 위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3대혁명에 대한 지도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의 발기에 따라 전개된 3대혁명소조운동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에 확대하시는 한편 이 운동에 대한 정연한 지도체계를 세우시었으며 3대 혁명의 수행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을 힘있게 벌이도록 영도하고 계신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전당과 전민을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과 제2차 7차년 계획, 제3차 7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로 능숙하게 조직 동원하심으로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쌓는데 커다란 기여를 하시었다.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시어 문학예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 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심으로써 주체예술의 전면적인 개화기를 열어놓으시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계신다. 그분의 지도밑에 과학연구사업에서는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분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새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계신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80년 10월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회으로, 당중앙위원회 비서로, 당중앙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거되시였다.

그분께서는 조선노동당 제 6차 대회 이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가도록 하시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강화발전을 위한 조선노동당의 대외활동을 정력으로 영도하고 계신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82년 2월부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제7기, 제8기,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시였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1990년 5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1993년 4월에는 위원장으로, 19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시였다.

그분께서는 1992년 4월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원수칭호를 받으시였다.

김정일영도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수많은 저작을 집필하시였는데, 그 중에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주체철학의 리해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전당과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자≫, ≪조선노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반제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조선노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 수 없다≫,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영화예술론≫, ≪주체문학론≫등이 있다.

김정일영도자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에 기여하신 공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칭호(두차례)와 **김일성**훈장(세차례)을 수여받으시였다.

그분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국의 수많은 훈장들을 수여받으시였으며 다른 나라 대학들의 명예박사칭호를 받으시였다. (로씨야신문≪웨쩨란≫제5호 참조)

민족의 영광, 인류공동의 대경사

구국전선 사설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봄이 태동하는 2월이다. 백두산의 정일봉을 축으로 한 천리 백두대지엔 서리꽃이 하얗게 피고 남햇가엔 봄향기가 실려 온다.

2월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행운의 달, 영광의 달이다. 주체 31(1942)년 2월16일, 이 역사의 날에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것이다.

돌이켜 보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은 백두의 억센 기상과 맑고 푸른 정기를 타고난 천출위인이 시대적 요청과 겨레의 열원에 화답하여 향도의 태양으로 솟아오른 장엄한 해돋이였다. 그것은 분명 민족자주위업의 승리적 전진과 완성, 민족만대의 부강발전과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대통운, 대영광이었다. 그것은 또한 자주시대의 개화와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기약하는 인류공동의 대경사였다.

사실 조종의 산, 백두산의 해돋이로 밝아온 영광의 2.16이 있어 자주민족의 시조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위업, 민족자주위업이 빛나게 승계완성되어가고 있고 우리 민족과 전인류의 무궁번영을 약속하는 찬란한 **김정일**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이다.

역사의 새 시대, **김정일**시대는 비운의 민족분단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성업을 완성하는 민족적 경사의 시대이며 3천리 조국강토위에 부강번영하는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고 **김일성**민족의 위용을 만방에 높이 선양할 민족부흥의 최성기이며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의지에 따라 세계가 개조되고 인류의 자주위업이 개화발전하게 될 거창한 변혁의 시대이다.

오늘 우리 민족과 행성의 진보적 인류가 새 세기에 들어와 두번째로 맞는 2월의 민족최대, 인류공동의 대명절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대하고 뜻깊게 기념하는 참뜻이 여기에 있다. 자연도 2월의 명절을 경축하고 있다. 백두대지를 아름답게 단장한 하얀 서리꽃바다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대자연의 축복이라면 남햇가를 물들인 봄향기바다는 꿈결에도 잊지 못하는 백두산장군을 그리는 남녘민중의 붉은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다.

경사로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하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백두산으로, 평양으로 달리는 북향의 뜨거운 마음안고 만민의 축복 속에 탄신을 맞으시는 위대한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올리고 있다.

민족의 운명, 그 흥망성쇠는 영수에게 달려 있다. 탁월한 영수의 영도밑에 민족자주위업이 전진하고 승리하며 자애로운 영수의 품속에서 민중의 참된 삶이 꽃펴난다.

김정일장군님은 사상이론의 영재이시고 영도의 거장이시며 인덕의 최고화신이시다. 그분께서는 천재적 예지와 뛰어난 실력, 거창한 영도업적과 숭고한 덕망으로 민족의 최고뇌수, 민족대단결의 유일중심,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자주위업의 최고영수로서의 권위를 확보하셨다. 사상과 영도, 인품과 덕망도 천하제일이신 장군님의 권위는 통일의 원수들에게는 공포를 주고 겨레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주는 절대적 권위이며 장군님의 덕망은 전민족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조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시키는 위력한 구심력, 위대한 인덕이다.

오늘 남과 북, 해외의 7천만 우리 겨레는 문무재덕을 겸전하신 장군님의 천출위인상과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력에서 조국통일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고 있으며 부강번영할 민족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통일의 소망은 반드시 성취되고 민족의 장래는 밝고 양양하다는 확신은 이제 우리 민중의 가슴 속에 억년 드놀지 않는 바위처럼 굳게 자리잡았다.

우리는 반세기여에 걸치는 오랜 투쟁경험과 생활체험을 통해 자주에의 진로도, 민주에의 출로도, 통일에의 활로도 영명하신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민족민주운동에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는 것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터득하고 절감했다.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께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장군님 영도를 변함없이 따르는 길이 곧 분단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바꾸는 길이며 온 겨레가 부강번영하는 강성대국에서 자자손손 복락하는 길이다. 영광찬 2월의 대명절을 맞는 이 시각 전체 한민전 성원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가슴가슴은 장군님 영도따라 민족자주통일위업을 완성하고 일대 민족적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 진군길에서 자신이 지닌 책무를 다할 새로운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정세와 환경 속에서도 언제나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사상을 향도이념으로 하여 자기 힘으로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것이며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지침으로 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갈 것이다.

김정일장군님은 승리의 기치이시며 우리의 모든 행복의 상징이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온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의 근본담보이다. 경사로운 2월의 대명절에 즈음하여 남녘의 모든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열화와 같은 충성의 마음 한데 모아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옵기를 삼가 축원하는 바이다.

백두산과 김정일장군

노선일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민족의 성산 백두산.

예로부터 이 나라 조종의 산으로 불리워 온 백두산은 민족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께서 조국광복의 성업을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 있고 더욱이는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성지인 것으로 하여 성산중의 성산으로 되고 있다.

장군님께서는 민족수난의 시기 항일대전을 조직영도하시어 조국을 광복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 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을 아버님으로, 항일의 여장군 김정숙여사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었다.

그분의 요람은 천고의 밀림이었고 일제격멸의 총포소리는 그대로 자장가였다.

조국광복을 위한 작전지도위에 화살을 그으시는 아버님의 모습, 빨치산의 나팔소리와 총소리, 이 모든 것은 절세의 위인, 영장으로서의 그분의 예지와 슬기, 담력을 키워준 원천으로 되었다.

백두의 정기와 기상을 체현하시고 백두산의 아들로 탄생, 성장하신 그분께서 위인의 자질과 품격을 갖추시게 된 것은 당연지사라 하겠다.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은 그분의 정치경륜의 갈피마다에 역력히 어려 있다.

그분께서는 20대에 벌써 문무를 겸비하신 출중한 위인으로 등단하시고 30대에 **김일성**주석님의 후계자로 추대되시어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외교의 모든 면에서 천출위인, 백두산장군으로서의 위상을 만천하에 떨치시었다.

그분께서는 탁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하시었으며 변혁운동에서 나서는 제반 이론실천적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시어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다.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의 압살공세를 격파하시고 이북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로 위용떨치는 사회주의강국으로, 민중의 낙원으로 만드시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과시하시었다.

오늘 이북이 사상의 강국, 정치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세인을 경탄시키고 있는 것은 백두산장군 특유의 선군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그분께서는 백두산처럼 웅심깊고 천지의 물처럼 마를 줄 모르는 무한대의 사랑으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주시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그분께서는 우리 세대에 기어이 조국통일을 이루어낼 철의 의지를 안으시고 온 겨레의 통일운동을 힘있게 이끌어 가신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일**장군님은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하시며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그분의 온 정신과 몸에 차넘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실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백두산의 아들이시다.

하기에 사람들은 백두산하면 **김정일**장군님을 먼저 생각한다.

오늘 우리 민중이 백두산을 우러르며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안겨살 통일조국의 그날을 갈구하고 백두산을 생각하며 그분에 대한 경모의 정을 더욱 뜨겁게 간직하게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

백두산형의 천출위인

채수항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해마다 2월이 오면 나의 마음은 백두산으로 달린다. 아니 나만이 아닌 이 땅의 각계민중, 온 겨레의 마음이 백두산으로 쏠리고 진보적 인류의 이목이 백두산으로 집중되고 있다.

그 까닭을 조용히 음미해 보면 예로부터 백두산이 조종의 산, 민족의 성산으로 알려진 곳이어서만도 아니다.

백두산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곳이기에 만민의 마음과 마음이 쏠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942년 2월16일 구세제민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성지 백두산에서 만고의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아버님으로, 항일의 여장군이신 김정숙여사를 어머님으로 모시고 탄생하시었다.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영도자께서 탄생하실 때 백두산의 대자연도 축복의 신비한 황홀경을 펼치었다고 한다.

오늘 인류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은 시대와 역사가 맞이한 위대하고 장엄한 해돋이였고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있어서 행운중의 행운이였다.

하기에 사람들은 민족최대의 명절이고 인류공동의 명절인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탄신절을 맞으며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이신 그분의 비범한 위인상을 감회깊이 돌이켜 보며 높이 우러러 경모하고 있는 것이다.

성지 백두산의 정일봉기슭에서 탄생하신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백두의 설한풍속에서 첫걸음마를 떼시었고 항일대전의 총포소리를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시었다.

또한 천변만화하는 백두산의 자연 속에서 웅지를 키우시고 심신을 단련하시었으며 무비의 담력과 배짱도 키우셨다.

실로 백두산은 그분의 비범한 담력과 예지, 슬기를 키운 요람이었다.

그래서 그분은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은 것이다.

김정일영도자님은 사상도, 정신도, 의지와 담력도 백두산을 닮으신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생존시에 **김정일**영도자님은 사상이나 성격, 취미와 습관을 보아도 신통히 백두산을 닮았으며 백두산의 정기와 기상이 온 정신과 몸에 차넘치고 있는 백두산의 아들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신바 있다.

경애하는 영도자님의 사상은 백두산에서 창시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고 그분의 정신은 백두산의 정신이다.



영도자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 백두산이 간직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창가에 비낀 아침노을에서도 백두산의 장쾌하고 황홀한 해돋이를 생각하시고 내리는 눈송이를 보시어도 백두산의 설한풍과 눈보라를 그려보신다. 그분의 사색은 백두산으로부터 시작되고 모든 노선과 정책도 백두산의 정신에 토대하여 작성하시고 백두의 정신과 기백,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해나가신다.

그분의 기상은 반드시 이기시는 필승의 기상이며 담력과 배짱은 백두산처럼 크고 억세다.

오늘도 우리 민중은 미국이 있지도 않는 ≪핵의혹≫을 걸고 감행한 93년 3월의 대북도발을 단호한 반격으로 제압하신 영도자님의 탁월한 영도에 세계가 경탄하던 때를 잊을 수 없다.

당시 미국은 북침을 가상한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항공모함전단 등 방대한 무력을 한반도 수역에 집결시켜 놓고 ≪특별사찰≫을 강요했다.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어 세계가 불안과 우려 속에 한반도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때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명령을 하달하시고 이북정부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폭탄선언을 하게 하시었다.

그것은 그대로 양키들을 전율케 한 선언이었다.

미국은 결국 흰기를 들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의 불사용 등을 약속하는 공식문서에 서명하고 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보내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또한 천만산악을 거느린 백두산처럼 웅심깊은 도량과 넓은 품을 지니시고 7천만 겨레 모두를 한품에 안아 보살펴 주시고 조국통일의 길로 이끌어 주고 계신다. 그분의 품은 온 겨레를 다 품어주고 보살펴주시는 한없이 넓은 품이며 그분의 사랑은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위대한 사랑이다.

백두산을 신통히도 닮으신 천출위인이시기에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과 함께 이북땅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건립하시는 불멸의 공적을 이룩하시었고 백두산의 정신이 나래치는 사상강국, 정치의 강국, 무적필승의 군사강국으로 만드시어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무적필승의 막강한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하시었다.

참으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민중영도의 대장정위에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으로서의 거룩한 자국을 아로새기시었다.

실로 인간을 사랑과 믿음으로 품어주고 인류의 평화를 총대로 지켜주고 계시는 민족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그분의 위대성은 바로 백두의 담력, 백두의 예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기에 우리 민족과 인류는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으로 높이 칭송하며 추앙하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오늘도 주체의 강성대국의 건설과 조국통일의 성업 그리고 세계의 자주화위업의 승리의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찬란한 태양으로 더욱 높이 솟아 빛나고 계신다.

위대한 영도자님의 탄신일을 맞으며 백두산형의 천출위인이신 그분의 위인상을 격정 속에 되새겨 보는 나의 마음은 절세의 위인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과 행복감으로 한없이 설레이고 있다.

백두산형의 위대한 천출명장이신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시고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줄로 안다.

김정일사상, 21세기를 밝혀

백철수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태양은 곧 광명이다. 그런데 자연계의 태양은 지구의 반쪽 절반만을 비칠 뿐 동반구와 서반구, 남반구와 북반구를 다 포괄하는 지구 전체를 동시에 밝히지 못한다.

하지만 자주의 태양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사상은 양지와 음지가 따로 없이 사람이 살고 생활이 흐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밝은 빛을 뿌리고 있으며 행성의 전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

세상을 둘러보면 오늘 **김정일**사상이 광범위하게 연구보급되는 것이 시대의 사조로 되고 있으며 인간다운 자주적 삶을 희구하는 진보적 인류가 **김정일**영수님의 사상과 이론을 향도적 지침으로 하여 자주의 새 세계, 새 국가,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 노력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다.

김정일영수님의 사상은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주체사상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인간의 자주적 본성과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자주의 철학, 자주의 이념이며 민중의 자주성실현방도를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밝힌 완성된 변혁학설이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게 살고 발전하며 끝없는 진보와 번영의 길을 걷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주적 본성이며 지향이다. 인간의 이같은 근본요구와 지향을 가장 정확히 충실하게 반영한 자주사상이라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김정일**사상이 세계 만민이 신봉하고 향유하는 만인신봉, 만인공유의 시대사상으로 빛을 뿌리며 인류의 사상정신적 개변과 세계의 변혁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근본요인으로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오늘 세인들이 위대한 **김정일**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가리켜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 무한대한 사상이론적 재보≫, ≪현대역사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주시대의 조종간≫, ≪지구를 움직이는 지렛대≫라고 격찬하며 적극 따라 배우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구소련을 비롯하여 사회주의가 붕괴된 나라 민중들이 **김정일**영수님을 ≪사회주의 운명의 수호자≫, ≪세계 사회주의위업의 위대한 영도자≫,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칭송하면서 그분께서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고 심화발전시키신 주체의 사회주의이론에 입각하여 사회주의재건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모스크바종합대학의 위탈리 바쉔코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주체사상은 21세기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 있다. 주체사상은 세계적으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다. … 21세기는 주체사상의 세기이다. 우리의 휘황한 미래는 주체사상에 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할 것이다.≫

그의 말은 비록 짧지만 오늘 세상사람들이 왜 21세기를 ≪**김정일**시대≫로 지칭하며 그분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숭상하며 따르는지 그 참뜻을 분명하게 밝힌 말이라 하겠다.

현세계에서의 인간문제연구학자연맹 위원장은 21세기와 주체사상과학실천토론회에서 한 기조보고에서 ≪우리는 주체사상과 같은 위대한 사상을 무기로 안고 있는 인류가 21세기의 모든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고 정의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주의 태양 **김정일**영수님의 위대한 사상은 영원히 꺼질줄 모르는 자주시대의 횃불이며 등대이다. 이 불멸의 사상이 시대와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태양의 빛발인양 밝게 비쳐주고 있기에 인류의 자주위업은 영원히 승승장구하고 필승불패할 것이다.

김정일정치의 기본특징

최현영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인류사에는 ≪애족≫, ≪덕치≫를 내세운 정치가나 통치자들이 많지만 그것을 실천한 사람은 없었다.

진정으로 민중을 믿고 사랑하며 민중을 위한 참다운 인덕정치는 ≪이민위천≫의 정치철학이 구현된 이북에서 보게 된다.

민중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믿음, 이것은 **김정일**영수의 정치철학이며 기본특징이다. 인간, 민중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분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원리이다.

영수님의 사랑의 정치는 민중이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가장 존엄있게, 가치있게 살도록 하는 정치이고 민중이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누리도록 끊임없는 배려를 베풀어주는 정치이며 믿음의 정치는 민중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민중을 믿고 그에 의거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를 뜻한다.

사랑과 믿음의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민중을 끝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며 민중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안겨주는 인덕정치라는데 있다. 민중이 사회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정치, 민중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는 정치, 민중에게 값높은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정치, 이것이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인덕정치의 본질이고 기본핵이다.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시행

위대한 **김정일**영수께서는 이북에 사랑과 믿음의 정치, 광폭정치를 펴시어 민중의 존엄과 인격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우시고 민중의 행복을 활짝 꽃피우고 계신다.

민의의 정책, 민거의 시행

민중에 대한 **김정일**영수의 사랑과 믿음은 중요하게 광범위한 대중의 의사와 요구에 걸맞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그것을 관철하도록 하시는 데서 표출되고 있다.

김정일영수께서 습관적으로 쓰시는 두가지 말씀이 있는데 하나는 민중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을실 때 ≪인민들이 좋아하오?≫라고 물으시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민중이 불편해 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아실 때 ≪인민들이 뭐라고 하겠소.≫라고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그분께서 새로운 노선과 정책을 세우시고 사업을 포치하실 때 그것을 민중이 지지하겠는가, 그것이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맞겠는가를 철저한 기준으로 내세우고 계신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단편적인 사례이다.

김정일영수께서는 76년 이북의 어느 한 지방에서 착공한 제련소건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노동자들과 협의해 보도록 가르치셨다. 그러시면서 우리 노동계급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힘을 지닌 영웅적 노동계급이다, 노동계급 속에 들어가 해결방도를 찾아야 한다, 노동자들이 하자고 해서 못해낼 일이 없다, 나는 우리 노동계급을 믿는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그리하여 노동자들과의 협의가 광범위하게 벌어졌고 노동자들은 영수님의 크나큰 믿음을 안고 제련소건설에 온갖 창발성을 다 기울여 공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한다.

민생에 대한 책임

김정일영수께서는 민중의 경제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배려를 인덕정치의 중요한 요구로 삼으신다.

그분께서는 민중의 이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시며 민중생활과 관련된 문제, 민중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문제는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관계없이 다 관심하시고 풀어 주신다고 한다.

김정일영수께서는 간부들을 만나실 때마다 ≪우리 인민들에게 줄 것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마련해 줍시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인민들에게 먼저 주어야 합니다.≫, ≪돈은 두었다 어디에 쓰겠습니까. 인민을 위한 일인데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인민들이 요구한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

진정 민중에게 최상의 행복을 안겨주시려는 것은 **김정일**영수의 가장 큰 숙망이며 철석같은 의지인 것이다.

김정일영수께서는 90년 1월 조선노동당 일군들의 활동원칙을 밝혀주시면서 ≪군대에는 ≪조국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가 있는데 우리 당일군들의 구호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으로 되어야 합니다.≫라고 천명하시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솔선 수범을 통해 간부들이 민중의 충복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민중 속에 깊이 들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도록 이끄신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자. 군중은 현명한 스승이고 현실은 훌륭한 교과서이다. 이것이 그분의 변함없는 지론이다.

그분께서 엄격히 경계하시는 것이 관료주의를 부리고 세도를 쓰는 것이다.

참으로 인덕정치의 화신이신 위대한 **김정일**영수의 품 속에서 이북민중은 오늘 이 세상에 있어 보지 못한 혼연일체의 대가정을 이루고 행복의 최정상에 살고 있다.

이 땅 민중의 경모의 눈길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겁게 북으로, **김정일**영수께로 쏠리고 있다.

인덕정치는 애국, 애족의 정치

최현영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오늘 이북은 세상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덕의 참정치가 구현되어 있다.

예로부터 정치가는 인덕이 높아야 하며 나라는 인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전해져 왔다. 역사의 갈피를 들춰보면 많은 위인들이 인덕에 대해 논했으나 그것을 현실로 구현한 인물은 없었다.

인덕정치는 원한다고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는 민중의 영도자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께서 펴나가시는 세상유일의 인덕정치는 애민, 애족의 정치인 것으로 하여 온 겨레의 다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

위대한 영수님의 인덕정치가 애국애족의 정치라는 것은 그것이 민족구성원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믿음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겨레와 민중에 대한 영수님의 사랑과 믿음은 이 세상 그 어느 위인도 지녀본 적이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민중을 끝없이 사랑하는 숭고한 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지론이다.

김정일영수님의 40여성상에 걸치는 영도의 자국은 그대로 민중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수놓아진 역사이다.

흔히 밑지는 장사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민중을 위해서는 밑지는 장사도 해야 한다고, 민중을 위해서는 국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는 영수님의 말씀 속에는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

사경에 처한 한 노동자를 위해 수십만달러분의 귀한 약을 아낌없이 쓰도록 하시고 비행기로 유능한 의료진까지 보내어 기적같이 살려낸 이야기, 95년 한신대지진 때 재일동포들에게 따뜻한 위문전문과 사랑의 위문금을 보내주신 그 은정, 나라의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가림없이 재일동포자녀들에게 해마다 거액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영수님의 하해같은 동포애적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

더욱이 우리 민중을 언제나 잊지 못하시며 큰비가 내려도 눈이 많이 와도 잠못 이루시는 그분이시기에 84년 수재때만도 수많은 쌀과 시멘트, 각종 의약품 등을 보내주시어 우리 이남민중을 구원해 주시었다.

어찌 그뿐이랴. 천하명산 금강산의 관광길도 열어주시어 조국의 아름다운 향취를 마음껏 느끼며 즐기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베풀어 주시는 영도자님이시다.

정녕 **김정일**영수님의 애국애족의 정치는 민중과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시는 무한대한 사랑이며 민중의 영도자만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최고정화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는 믿음의 정치이다.

민중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힘있는 존재이며 민족이 있고 민중이 있으면 천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분께서 지니신 민중숭배, 민족중시의 지론이다.

민중을 하늘처럼 여기시는 영수님의 절대적 믿음은 이 세상에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 민중이라는 유명한 말씀에 그대로 맥박치고 있다.

민중을 믿고 그들의 창조적 지혜와 힘을 발동하면 세상에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영수님의 신조이다.

언제나 민중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고 민중의 힘에 의거하여 정치를 펴나가시기에 그분께서 구상하시고 작전하시는 일은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빛나는 현실로 전환되고 있다.

하기에 우리 겨레는 **김정일**영수님의 인덕정치를 사랑과 믿음의 정치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인덕정치가 애국애족의 정치로 되는 것은 애국에 사는 겨레모두를 따뜻이 보살펴주는 위대한 광폭정치라는데 있다.

원래 정치는 그릇이 커야 하고 정치가는 도량이 넓어야 한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차별없이 민족의 일원으로 여기시고 통일애국의 길로 손잡아 이끌어 영생의 삶을 안겨 주신다.

인생행로가 천차만별인 각계층의 천만사람 모두를 한품에 안아 사랑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영수님의 넓으신 도량과 포옹력.

김정일영수님의 하늘같은 도량과 친화력에 매혹되어 민족 앞에 떳떳치 못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뜻깊은 인생전환을 하고 이남과 해외의 정치인, 종교인, 기업인을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이 그분의 품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민족사의 대세로 되고 있다.

오늘 이 땅에서는 민중모두가 **김정일**영수님께 운명을 의탁하고 그품을 떠나 못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인덕정치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7천만 겨레는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영수님의 애국애족의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기어이 통일되고 부강번영할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나갈 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평양특파원 조국진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수령영생위업은 건국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을 생존시나 다름없이 충성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대를 이어 받들어 나가는 성스러운 위업이다.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온 겨레와 인류의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을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존의 모습 그대로 모시도록 하시어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신 절세의 위인이시다.

지금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려진 금수산기념궁전이 자리잡고 있는 이곳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주체위업을 현명하게 영도해 오신 유서깊은 곳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바로 이곳에 금수산기념궁전을 건설하고 주석님을 생전의 모습 그대로 모시도록 할 것을 발기하시고 이곳을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도록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무려 30여차의 현지지도와 400여차의 가르치심을 주시면서 온갖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시어 금수산기념궁전을 오늘처럼 최고성지로 꾸려주셨던 것이다.

지금까지 세인들은 성지라고 하면 예루살렘이나 메카를 생각해 왔다. 그러나 오늘 인류는 참다운 성지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이라고 칭송하고 있으며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주체의 최고성지로 숭엄하면서도 아담하게 꾸려진 금수산기념궁전 기본건물 정면에는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환히 웃으시는 대형초상(이북에서는 태양상이라고 부름)이 모셔져 있어 누구나 그 앞에 이르면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게 된다.

궁전안에 들어서면 넓고 긴 홀에 정중히 모신 위대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대리석입상을 보게 되는데 밝아오는 아침노을 속에 서계시는 주석님을 우러르느라면 마치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금수산기념궁전의 초기 형성안에는 주석님의 입상을 모실 홀이 따로 예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

어느날 현장에 나오시어 형성안을 봐주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간부들에게 홀을 따로 내고 거기에 주석님의 입상을 모셔야 한다고 하시면서 입상을 모시는 홀을 정중하면서도 능맛이 나게 무게있게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홀 내부를 아치형 주랑으로 처리하지 말고 우리식 건축형식인 두공형식과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능처리방법인 단식천정으로 처리하도록 그 방도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주석님의 대리석입상을 형상하는 문제에서도 장군님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는데 제기된 입상도안들에서 대원수복을 입고 계시거나 손을 높이 쳐드신 주석님을 형상한 안들을 보시고서는 인위적으로 형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대리석입상은 주석님께서 금수산의사당에서 활동하시던 때의 모습을 형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민중들과 외국 손님들을 접견하시거나 기념사진을 찍으실 때 주석님께서 뒷짐을 지고 서계시던 자세가 우리 민중들에게 제일 많이 알려진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시었다고 한다.

오른쪽으로 넓은 폭의 돌층계를 두번 꺾어 올라가면 경모하는 주석님께서 생전의 모습 그대로 계시는 영생관에 이르게 된다. 마치 오랜 집무끝에 자정이 훨씬 넘은 밤 새벽을 가까이 하여 잠간 조용히 누우신 듯, 아니면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돌아오시어 잠시 겹쌓인 피로를 푸시는 듯 평온하신 존안으로 누워계시는 주석님을 뵙느라면 어쩐지 금시 자리를 털고 일어나실 것만 같다. 정말 자리를 털고 일어나시는 기적이라도 일어났으면 하는 것이 이곳을 찾는 사람들 모두의 하나같은 심정이다.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이채를 띠는 것은 주석님의 영생의 모습을 뵈옵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게 되는 대계단이다.

계단은 기념궁전내부를 꾸리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었다. 현장에 나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설계진척정형을 알아보시고 넓은 계단을 새로 만들되 주석님께서 두팔을 벌이시고 찾아오는 민중들을 한품에 안는 것처럼 형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본건물의 구조에 구애됨이 없이 계단폭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더 넓히도록 가르쳐 주시었다. 그래서 건물안의 계단으로서는 건축역사에 없는 18m폭의 대계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 외에도 그분께서 기념궁전건설을 위해 기울이신 온갖 정성과 노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궁전안의 조명도와 음악문제와 관련된 사연깊은 이야기, 나이많은 사람들과 장애자 방문객들을 염려하시어 승강기를 놓도록 해주신 이야기, **김일성**광장(평양시 중심에 있는 광장)의 두배나 되는 길이 415m, 너비 216m폭의 궁전 앞 넓은 광장에 스민 이야기 그리고 기념궁전 건설자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 …

오늘 금수산기념궁전은 명실공히 주체의 최고성지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웅장하고 규모있게 꾸려져 있다. ≪주체사상노작관≫이 최대규모로 꾸려지고 녹지들이 지구내에 아담하게 조성되어 나무들이 우거지고 있다.

위대하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경모하는 **김일성**주석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려는 이북과 이남의 온 민족과 인류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었다. 우리 이남 민중들도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7천만 겨레의 어버이이시고 영원한 주체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의 모습을 뵈옵게 될 날이 멀지 않아 반드시 올 것이다.

민중행복의 창조자

진정철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평양에는 인민대학습당, 인민문화궁전, 평양산원, 빙상관, 창광원, 5.1경기장을 비롯한 민중을 위해 최상의 수준에서 건립된 웅장화려한 건물들이 수없이 많다.

그 모든 것이 다 민중의 행복에서 기쁨과 낙, 보람을 찾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에 의해 생겨난 결정체들이라고 이북민중은 희열에 넘쳐 말하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은 민중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민중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영수님께서는 민중을 떠난 나라가 있을 수 없고 민중을 떠난 혁명이 있을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기쁨은 언제나 민중의 행복 속에 있다고 내가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은 다 민중의 행복을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민중을 위해 헌신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영수님의 필생의 좌우명이고 지론이다.

민중에 대한 그분의 최대의 헌신과 열렬한 봉사는 민중의 이익과 행복을 모든 일에서 최고의 원칙으로 삼는데 있다.

설사 그것이 아무리 크고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민중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무조건 해내고야 마신다.

민중이 요구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와야 하고 돌위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이 그분의 민중사랑관이다.

일찍이 영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찬바람이 부나 궂은날, 마른날 가림없이 언제나 민중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다.

한장의 설계도를 보셔도 민중들이 좋아하는가부터 알아보시고 하나의 공장부지를 확정해 주실 때에도 민중생활에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마음쓰시는 분이 **김정일**영수님이시다.

하기에 세인들도 **김정일**영수의 정치를 ≪민중중심의 정치≫,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라고 격찬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민중에게 무엇을 하나 마련해 주셔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주시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

1976년 11월 하순 어느날, 영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한 일군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유희장들을 돌아보고 완성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그분의 집무실에 갔을 때의 일이라고 한다.

그 일군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좋다는 것은 다 보고 설계한 자기의 설계안에 대해 자신감을 안고 그분께 설명해 드렸으나 만족을 드리지 못했다. 세계에서 제일 길다는 관성열차의 선로길이가 1천3백50m이므로 그렇게 설계했다는 설명을 들으신 영수님께서는 그 이상 크게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야 없지 않는가, 이왕이면 좀 더 길게 해서 1천5백m로 하자고 말씀하시었다.

어떻게 하면 민중에게 최상의 것을 마련해 주겠는가고 생각하시는 영수님이시다.

또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신의주화장품공장을 또다시 찾으시어 일군들에게 지금 세계적으로 불소치약을 만드는 것이 추세인데 이 공장에서도 이제는 치약이 의료용, 치료용이 되게 불소치약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빨이 든든한 것은 오복의 하나라고 하시며 누구나 건강하여 오래 살려면 이가 든든해야 한다시며 민중들의 이빨치료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돌려오신 영수님이시다.

영수님께서는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60여종의 치약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요해하시고 그 견본까지 보내주시었으며 한해에도 두번씩이나 공장을 찾으시어 치약생산정형에 대해 알아보신 것이다.

불소치약 하나를 놓고서도 민중들의 복된 생활을 위해서라면 영수이기전에 친어버이가 되시고 위대한 정치가이기전에 과학자, 생사조직자가 되시는 **김정일**영수님의 민중사랑의 숭고한 세계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다.

오늘도 **김정일**영수님께서는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주먹밥과 쪽잠으로 숙식을 이으시며 민중의 행복을 위한 길을 가고 또 가고 계신다.

민중에게 무엇을 하나 주어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고 색다른 것을 보셔도 먼저 민중부터 생각하시며 민중을 위해 억만금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민중중심정치의 혜택아래서 이북민중은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위인의 행복관

김성필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해에도 정초부터 조국의 부강과 민중의 행복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신다.

분과 초를 쪼개가시며 어제도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을 쉼없이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어찌하여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중이 있고 민중이 사는 곳을 자신의 집무실로 삼으시고 춘하추동 사시절 단 하루의 휴식도 없이 정력적인 현지지도로 날과 달을 보내시는 것인가.

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전환을 마련해 가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나의 기쁨은 언제나 인민들의 행복 속에 있다, 내가 지금 매일과 같이 군대와 공장, 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를 하는 것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기쁨 속에 자신의 기쁨이 있고 인민들의 행복 속에 자신의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마디마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눈시울을 젖게 하는 말씀이시다.

외우면 외울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조국의 안녕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일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의 거룩한 풍모가 어려온다.

민중을 하늘처럼 숭배하는 ≪이민위천≫, ≪이신위민≫의 이념을 필생의 지론으로,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민중을 위해 베푸시는 사랑과 배려에 그분의 보람이 있고 민중의 행복을 꽃피우는 크나큰 노고와 심혈 속에 그분의 기쁨이 있다.

85년 2월 어느날이었다고 한다.

이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중에게 안겨질 생활필수품들, 식품들을 보아주시었다.

맵시있고 질좋은 제품들을 하나하나 주의깊게 보시는 용안에 저으기 환한 미소가 어리었다.

질좋은 양복천, 비로도천으로 첫날 옷을 단장하고 축복받을 신랑, 신부들을 그려보셨고 트렁크를 애용할 여행자, 출장자들을 생각하시었으며 꿀을 복용할 산모들의 모습도 떠오르시어 그리도 기뻐신 것이었다.

이윽고 그분께서는 제품들을 인민들에게 골고루 공급할데 관해 지적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의 첫 자리에는 언제나 인민들이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마음의 첫자리에는 언제나 민중이 있다고 하신 바로 여기에 그분께서 지니신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어려있다.

하나의 양복감, 하나의 기호품을 놓고도 민중의 복리부터 헤아리시며 그토록 만족해 하시는 그 미소에 그분께서 지니신 숭고한 행복관이 비껴있는 것이다.



나라의 정사를 이끄시며 혁명하는 그자체를 민중에게 최상의 인격과 최대의 행복을 안겨 주자는데 목적을 두시고 어떻게 하면 민중에게 더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 주겠는가 늘 마음쓰시는 장군님이시다.

민중의 요구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민중의 복리를 위함이라면 국고금을 아낌없이 털어서라도 해주어야 한다는 그분의 대해같은 사랑과 배려도 숭고한 행복관에 근원을 두고 있다.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 즐비하게 일떠선 현대적이며 웅장화려한 주택단지들과 인민대학습당, 창광원, 평양산원, 청류관, 수많은 극장, 영화관, 경기장과 체육관을 비롯한 문화정서생활의 전당과 기지들, 봉사시설과 문화후생시설들, 공원과 유원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재부들마다에 **김정일**장군님의 행복관이 구현되어 있다.

행복을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은정은 도시민들을 위한 김치공업화에도, 나라사정이 어려운 속에도 매일같이 달리는 콩우유차에도, 새로 출생하는 세쌍동이를 위해 하늘을 나는 헬기에도 어리어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행복관은 남과 북이 따로 없고 민족구성원 모두를 한품에 안아 따뜻이 보살피시는 하늘같은 동포애, 민족애로 하여 더욱 숭고한 것이다.

어버이의 정과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일수록 더 귀하고 각별하다.

장군님께서 남에 살고 해외에 사는 겨레를 생각하시는 마음, 동포들을 위하시는 사랑은 참으로 각별한 것이다.

84년 이 땅에서 수해가 났을 때 시급히 구제물자를 보내도록 하시고 동포를 구원하는 일인데 구호물자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울 것이 없다고, 우리가 저축해 두었던 것을 이남동포들을 구제하는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는가고, 뭐니뭐니해도 민족이 제일이라고 하시며 수재민들에게 엄청난 양의 구제물자를 보내주신 그분의 한량없는 그 은정 우리 민중은 한시도 잊지 않고 있다.

행복에 웃는 자식보다 불행에 우는 자식들을 더 생각하시는 그 은정으로 장군님께서는 몇해전 재일동포들이 지진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따뜻한 위문전문과 위문품을 보내주시었던 것이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이역에 사는 동포들을 더 따뜻이 돌보시는 숭고한 민족애로 그분께서는 이북민중이 푼전을 아껴가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꼭꼭 보내주신다.

방북하는 해외동포들의 생일도 헤아리시어 생일상도 차려주시고 은정깊은 선물도 안겨주시는 장군님이시다.

민중의 복리를 위해, 겨레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그분께서 돌려 주시는 사랑과 은정은 끝이 없다.

민중의 기쁨, 겨레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과 낙으로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조국의 부강번영과 겨레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와 불철주야의 심혈을 바치고 계신다.

오늘의 장엄한 강성대국건설도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우리 겨레가 세상에 부럼없는 만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그분의 원대한 구상과 숭고한 행복관에 따른 것이다.

예로부터 하루라도 집떠나면 고생이라 했고 한걸음 제집뜨락을 나서면 봄바람도 차다 했다.

하지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통일번영할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하루이틀도 아닌 일년내내 해와 달을 이으시며 이북의 방방곡곡을 걷고 걸으신다.

북녘땅 동서남북을 종횡무진하시며 그분께서 걸으신 선군영도의 그 길도 민중의 안녕과 겨레의 행복을 위한 조국수호의 길이다.

현지지도의 그 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시고 쪽잠으로 휴식을 대신한 노고의 나날은 얼마이며 한줌의 주먹밥으로, 때로는 한 이삭의 옥수수로 때식을 에우시며 바치신 심혈의 그 나날은 과연 얼마인지 모른다.

몇해전 1월 자강땅현지지도의 길에서 매일 이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하는가고 절절히 아뢰는 수행간부들에게 그래서 강행군이라고 하지 않는가, 제대로 먹고 자면서 일한다면야 그것이 무슨 강행군이겠는가 하시며 노상에서 밤을 보내신 장군님이시다.

전선시찰의 길에서 주먹밥마저 없어 누렁지로 끼니를 드시면서 누렁지 한 쪼각을 먹고 물을 많이 마시면 배가 불쑥해 진다고 호탕하게 웃으신 장군님, 그분의 용안을 우러르면 가슴뭉클 젖어들고 그분의 노고를 생각하면 눈시울 뜨거워 진다.

자신의 모든 천신만고를 기쁨으로, 낙으로 여기시는 장군님의 행복관, 무비의 헌신을 생각하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우리 겨레이다.

장군님의 크나큰 노고와 심혈 속에 이 나라 민중의 안녕과 겨레의 행복이 있다.

겨레의 기쁨과 조국의 번영이 장군님의 행복관이다.

민중을 위하여, 겨레를 위하여, 조국을 위하여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어 우리 민족은 통일강성대국에서 인간의 자주적 존엄과 참된 삶을 누려갈 것이다.

후대들을 나라의 ≪왕≫으로

박철룡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아이들의 모습은 그 나라의 정치와 사회제도를 평가하는 척도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모습은 그대로 그 나라의 현실을 보게 한다고 한다.

오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이북처럼 어린이들을 제일로 사랑하며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는 나라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서방세계에서는 지금 후대들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와 사회적 냉대 속에 1억이 넘는 어린이들이 버림받고 있다.

이 땅의 현실도 다를바 없다.

그러나 저 이북에서는 어린이들이 ≪세상에 부럼없어라≫라고 소리높이 외치며 만복을 누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경제봉쇄책동과 여러해 계속된 자연재해로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만은 그 무엇이든 아끼지 않고 다 안겨준 이북이다.

북녘땅에 꽃펴난 어린이들의 행복상은 어버이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후대사랑의 세계가 펼쳐놓은 현실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불멸의 회고록에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 바치는 노력은 수십년후 후대들이 우리를 보는 눈빛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건설하게 될 조국의 면모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후대들에게 많은 사랑을 기울이면 기울일 수록 내일의 조국은 더 부강해지고 더 문명해지며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술회하시였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헌신이다.

모든 것을 후대들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 주석님께서는 광복후 평양시안의 기업가, 상인들이 희사금을 모아 주석님을 모실 공회당을 지을 것을 제의할 때에도 그보다 먼저 아동궁전을 짓는 것이 어떤가고, 광복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후대들이 나라의 ≪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분의 이러한 후대사랑 속에 이북에서는 어린이들이 무료로 교육받는 국가적 시책이 세워지고 후대들을 위해 나라의 모든 것이 봉사하는 민족만대의 주춧돌이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후대들을 위해 바치신 숭고한 사랑은 오늘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더욱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이북땅 좋은 명소마다에는 학생들의 야영소가 일떠서고 어디가나 어린이들의 궁전이 있다. 훌륭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을 보아도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건물들이다.

김정숙탁아소, 평양산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등 이 모든 건물들은 어린이들과 후대들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김정일**장군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일떠선 것이다.

어디 그뿐이랴. 후대들에게 영양식품과 교복, 학용품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시고 어린이들의 지능교육에 필요한 최첨단 컴퓨터설비들과 도서들도 많이 마련해 주도록 하시는 장군님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의 후대사랑의 손길은 북녘땅만이 아닌 이역만리에 사는 해외동포들에게도 따뜻이 미치고 있다. 역사의 그 어느 시대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해외동포자녀들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에도 민족교육을 위해 바치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다.

오늘 이북에서 10대의 나어린 수재들과 20대의 과학자, 발명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세계선수권보유자, 올림픽금메달 수상자들이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다.

이북의 현실을 목격한 한 재미교포의 말이다.

≪후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야말로 민족의 밝은 전도를 내다보게 하는 진정한 애국애족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김정일장군님의 후대사랑의 햇빛아래 꽃망울 터치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이북어린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다 부강하고 휘황할 민족의 미래, 통일조국의 미래를 그려본다.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

신대진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민족과 인류공동의 대축제인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맞는 7천만 겨레의 마음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로 쏠리고 있으며 그분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충정으로 불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외세에 의해 나라와 민족이 갈라진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해 불면불휴의 노고를 다바치시어 조국과 민족 앞에 빛나는 업적을 쌓으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시어 조국통일운동을 진두에서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하루빨리 조국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결심이시며 드팀없는 의지이시다.

민족대단결을 조국통일의 천하지대본으로 여기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6(1997)년 8월 4일에 발표하신 명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에서 주석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져도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아가야 할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해 주심으로써 통일의 억센 기둥을 세워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국통일 3대헌장을 밝히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주석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과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여 조국통일성업을 앞당겨 성취할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가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주체88(1999)년 4월 18일 발표하신 명저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서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연대연합을 강화할데 관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제시하셨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김일성**주석님의 민족대단결사상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심화발전시킨 민족단합의 대헌장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은 남, 북, 해외의 온 민족이 가장 공고한 기초위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앞에 놓고 굳게 단합할 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고 있는 민족단합의 기치이며 지침이다.



민족대단결 5대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민족대단결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 조국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을 역사적 이정표를 받아안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광복 59돌을 계기로 남, 북,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의지를 모아 통일협상인 대민족회의를 판문점에서 소집하도록 하시었으며 여기서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은 연방제통일방안을 민족공동의 통일방도로 확정하였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역사적인 사변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지난 2000년 6월에는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마련되었다.

6.15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반목과 대결로 점철된 반세기여의 분단사를 끝장내고 화합과 단합의 길, 민족자주통일의 창창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한 민족의 지향과 염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을 조국통일실현을 위한 길에 하나같이 묶어세워 나가기 위해 애국애족의 정치, 광폭정치를 펴고 계신다.

민족지상의 과제인 조국통일의 실현은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는 올바른 정치에 대한 요구가 필수적으로 제기된다.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인덕정치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서 사람을 제일 귀중히 여기시는 그분의 민중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애국애족의 정치는 온 민족을 한품에 안아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어 주고 있다.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인덕정치는 온 민족의 가슴 속에 조국통일열풍을 몰아 왔으며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자주통일의 길을 따라 온 민족이 힘있게 나가는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

장군님의 광폭정치는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사상을 신봉하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건 관계없이 넓으신 한품에 다 안아 조국통일의 길에 세워주시는 정치이다. 장군님께서는 비록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고 잘못된 길을 걸던 사람이라고 하여도 오늘날에 와서 통일성업에 한몸 바치려 한다면 넓은 아량으로 대하시며 민족대단결의 대오에 세워주신다.

지금 남, 북, 해외의 전체 7천만 겨레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없이 넓고 뜨거운 애국애족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매혹되어 통일성업의 한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가 있기에 우리 겨레는 내외분열세력들의 반통일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수며 자주통일의 대진군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신 것은 우리 민족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최상최대의 영광이고 행복이다. 그분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높이 받들어 나가는 길에 조국통일도, 민족의 창창한 미래도 있다.

전국민은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그분께서 가리키시는 조국통일성업실현을 위해 힘있게 매진하자.

선군에 대한 생각

서울 오설명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며칠전이었다.

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의 대명절을 앞두고 온집안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앉은 적이 있었다. 단란한 가정적 분위기에서 저마끔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불쑥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애가 선군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고 묻는 것이다.

그래서 화제거리는 자연히 장군님의 선군정치에로 돌아가게 되었다.

나는 아들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군이란 말은 군사를 선행시킨다는 뜻이고 선군정치란 군사를 선행시켜 군대를 강군으로 만들고 그에 의거하여 나라의 국력을 튼튼히 다지는 위대한 정치방식이라는 것, 장군님께서 위대한 선군정치로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해 주었다.

가족모임이 끝난 후에도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생각할수록 장군님의 선군정치의 독창성과 위대성에 경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위대한 선군정치로 이 땅의 평화와 민족의 안녕을 지켜주고 계시는 장군님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가슴이 뜨거워졌다.

사실상 한반도정세를 되돌아 보면 6.25전쟁이후에도 미국의 새 전쟁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다.

≪푸에블로≫호 나포사건때, ≪EC-121≫고공정찰기격추사건때, ≪판문점사건≫때만 해도 미국놈들은 항모전단을 비롯해서 숱한 무력을 끌어다놓고 당장 북침을 단행할 것처럼 화약내를 풍겼다. 그러나 결국 흰기를 들고 무릎을 꿇은건 미국이었다. 지난 20세기말에도 미국은 ≪핵의혹≫소동, ≪미사일위협≫소동을 일으키면서 북을 없애치우려고 얼마나 광분했는가.

그러나 감히 이북에 덤벼들지 못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꾸리시고 국력을 비상히 강화하셨기 때문이다.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구촌 그 어느 지역에서든 힘이 약한 나라들에 강권을 마구 휘두르고 불질을 해대는 것이 미국의 본성이다.

나에게는 얼마전 파키스탄에 갔을 때 본 일이 생각났다.

파키스탄은 아프간난민들의 천지였다.

그들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의 정상을 바라보던 이라크출신의 한 기업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라크사람들도 미국놈들 때문에 불행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기업거래로 친숙해진 그는 제국주의자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으려면 뭐니뭐니해도 군사력을 키우고 국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북의 선군정치를 몹시 부러워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총대위에 평화가 있다는 장군님의 총대철학의 당위성을 다시금 절감했다.

오늘 미국의 계속되는 침략책동 속에서도 우리 민중이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일**장군님께 응당 우리 민중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큰 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앞둔 이 시각 나는 평화의 수호자이시고 민족운명의 보호자이신 **김정일**장군님께 최대의 영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

2월의 대명절을 맞는 경향의 민심

진용찬 / 구국전선 제468호, 주체91(2002)년 2월 11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경사로운 탄신일을 앞두고 나는 그분을 경모하는 민심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내가 처음으로 만난 사람은 현대자동차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박모씨였다.

≪2.16동지회≫회원이기도 한 그는 자기 단체의 사기와 자긍심이 오늘처럼 높았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회원들은 절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2월16일, 이 뜻깊은 이름으로 불리우는 ≪2.16동지회≫회원이라는 긍지가 대단히 높아요. 2000년 6월 평양상봉때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이 만천하에 더욱 뚜렷이 과시되였지만 장군님처럼 위대한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인들을 경탄시킨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그렇듯 위대한 분의 탄생일을 우리 조직의 명칭으로 정한데 대해 남다른 긍지를 가집니다.≫

그의 얼굴에는 무한한 긍지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그는 지난해 6월 금강산에서 있은 5.1절 남북노동자통일대회때 대표로 갔던 친구한테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이북의 노동자들을 찾아가시여 그들이 일하는 현장도 돌아보시며 노동자들의 기름배인 손도 잡아주시고 일을 잘한다고 격려도 해주신다고 해요. 또한 그분께서는 노동자들의 침실과 식당 등 생활의 구석구석을 세심히 알아보시고 사소한 불편이 있을세라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며 몸소 그들과 함께 기념촬영도 해주신다고 해요.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의 치하에서 살며 일하는 이북노동자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또 어디 있겠어요≫라고 하면서 부러움을 금치 못해 했다.

다음으로 내가 만난 사람은 중앙대학교 국민과에 다니는 최모군이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탄신절인 2월 16일을 앞두고 학생들 속에서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여러가지 뜻깊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정일**장군님의 탄신절이 다가옴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 이남 청년학생들과 민중에게 돌려주신 하해같은 사랑과 통일성업에 바친 그분의 업적에 대하여 가슴 뜨겁게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모두가 높이 받들어 모시는 통일조국의 위대한 영수이십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통일조국의 높은 단상에 **김정일**영수님을 하루빨리 모실 그날을 앞당기기 위한 통일성전에 한몸바쳐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에서 만난 대인동에 사는 윤모씨의 말을 통해서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우러러 경모하고 따르는 민심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광주에 **김정일**장군님탄신일 축제 행사준비를 하는 조직들이 많아요. 대학생조직도 있고 노동자, 상인, 농민 등 각계조직도 있어요.≫ 그러면서 윤씨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시고 세상의 일들을 평정하실 분은 **김정일**장군님 뿐이시죠. **김정일**장군님은 그 존함 그대로 위대한 태양, 희세의 위인이십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백두산 3대장군들이신 **김일성**장군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리고 김정숙여장군님의 사진을 집에 모시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2월16일을 계기로 어느 학생조직에서는 3대장군 초상사진 앞에서 헌화식과 주체사상학술발표회 등을 갖기로 했고 또 어느 노동자조직에서는 ≪2.16기념 정일봉 찾아가기≫윷놀이가 준비되고 있다고 말해 주는 것이었다.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을 안고 그분의 탄신절을 뜻깊게 맞이하려는 민심동향은 경향각지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에서는 2월16일을 계기로 ≪정일봉달리기≫가 개최되고 북악산에서는 ≪연날리기≫가 있게 된다고 모단체 총무부장이 말해 주었다.

그리고 장군님의 탄신절을 경축하는 ≪연날리기≫는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여러곳에서 뜻깊게 진행될거라고 귀뜸해 주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2월16일을 계기로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높이 선양하려는 심정이 담긴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연들이 하늘을 수놓게 될겁니다. 더욱이 이해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탄생 90회가 되는 뜻깊은 해여서 2월16일 행사도 예년보다 더 다양하고 뜻깊게 진행될 것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우리 민중이 그토록 우러르고 흠모하며 따르는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된 조국에 높이 모시고 온 겨레가 행복하게 살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하면서 나는 귀로에 올랐다.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

강철규 / 구국전선 제467호, 주체91(2002)년 2월 1일



2월이다.

올해는 유달리 벌써부터 눈석이가 시작되고 거리와 아파트단지상가마다엔 봄기운이 완연하다.

뜻깊은 2월,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탄생하신 경사로운 2월의 명절을 앞두고 온 누리에 넘치는 위인숭배열기로 하늘도, 바다도 설레이는 듯 싶다.

돌이켜 보면 20세기에 이어 21세기로 이어온 연대들은 절세의 위인에 대한 숭배와 흠모심이 용암처럼 끓어번진 역사적 해였다.

새 세기는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인간, 위대한 영장, 위대한 실력가형의 지도자를 우러른다.

수수천년 인류가 그려오는 위인, 21세기 민족과 인류가 모든 것을 의탁할 위인,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 세계정치원로로 높이 모시었다.

역사의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만고절세의 위인, 조종의 산 백두산의 담력과 기질, 천리혜안의 예지, 탁월한 사상이론과 정치적 식견, 현대과학기술을 높은 경지에서 정통하고 계시는 최고의 지성, 소탈하고 인자하며 대양과도 같은 넓은 도량을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은 희세의 위인이시다.

하기에 세계의 신문, 통신, 방송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앞을 다투어 전했다. 위인숭배의 위대한 서사시, 아름다운 교향곡을 21세기 하늘가에 장중하게 울렸다.

새 세기의 첫해, 첫달부터 위인숭배의 열풍은 전례없이 뜨거웠다.

지난해 50여개 나라에서 정당 지도자들과 정부 각료들,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을 망라하는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연이어 결성되었다. 세계 6대주의 63개 나라에서 집권당과 정부의 고위급 인물들, 정당 당수들, 국제기구 대표들, 각계층의 권위있고 영향력있는 인사들의 참가하에 다채로운 경축행사가 연 3백여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러 나라 출판사들은 2월의 명절을 기념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명저들을 10여개 어문으로 6천 5백여부나 단행본으로 번역, 출판했다. 세계 40여개 나라들의 1백50여개 출판보도물들이 2백50여회에 걸쳐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초상사진을 모시고 특집을 했다. 올해 이 땅의 전위투사들과 변혁운동가들은 2월의 명절을 계기로 경축기간을 설정하고 이 기간 다채로운 기념행사들을 벌일 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에는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과 함께 그분을 찬양하는 글들을 연일 싣고 있다.

평양으로 가자, 평양에 가서 21세기의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만나뵈워야 한다. 이것이 세계 여러 나라 각계층 민중의 한결같은 경모의 마음이다. 여러 나라의 정계 인사들, 사회활동가들, 각계층 인사들이 앞을 다투어 평양행에 예약을 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에 매혹된 유럽연합 최고위급대표단이 처음으로 지난해 5월 평양을 찾아가 장군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았다.

위인숭배의 열풍은 **김정일**장군님의 대외활동에 의해 더욱 고조를 이루었다.

지난해 1월에 있은 중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에 이어 7월부터 8월사이에 있은 러시아에 대한 공식방문으로 위인숭배열풍은 최절정에 달했다.





세계는 경탄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님의 모습을 보았다. 도덕의리의 화신, 사회주의의 위대한 수호자, 제국주의에 사형선고를 내리시는 백두산장군의 불세출의 위인상에 민족과 인류는 아낌없는 찬사를 표시했다.

러시아의 주요 출판보도물들이 연 800여회에 걸쳐 보도했으며 세계 1백50여개 나라 TV방송들이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소식을 시청율이 가장 높은 시간에 특대소식으로 방영했다. 매일 세계 50여억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권위있는 정치학자들과 평론가들은 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을 세계정치지도를 변화시킨 대사변이라고 평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위인열풍은 지구촌 그 어디에서나 뜨겁게 일고 있다.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따라배우기 위한 연구토론회, 강연회, 학습회 등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페루와 에콰토르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단체들이 **김정일**장군님께 명예칭호와 시민증, 상장과 메달들을 수여해 드리었다.

2월의 명절을 눈앞에 둔 지금 위인숭배열풍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50여개 나라에 조직된 2.16경축준비위원회들이 영화감상회, 사진전, 토론회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를 진감하는 위인숭배의 이 위대한 열풍은 21세기를 이끌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게 된 인류의 다함없는 격정과 환희의 분출이라 하겠다.

오늘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이북만은 그 어떤 압력과 엄혹한 시련속에서도 끄떡없이 선군의 총대로 자기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고 있다.

광풍은 몰아쳐도 태양은 빛나며 붉은기는 더욱 힘차게 나부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걸출한 위인상은 날이 갈수록 더욱 휘황한 빛을 뿌리고 있다.

하기에 인류는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경모하면서 휘황한 내일, 자주화된 세계를 그려보고 있다.

각계 애국민중은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태양으로 모신 끝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깊이 간직하고 위인숭배의 열풍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부시행정부, 잇따른 대북강경발언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9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파월 미 국무부장관은 지난 6일에 있은 하원 청문회에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며 현 대북강경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지 테닛 미중앙정보국장은 같은 날 상원 정책청문회와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이북의 미사일개발이니 수출이니 대륙간탄도미사일기염이니 뭐니하면서 또한 이북이 적화통일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시행정부의 변함없는 대북강경정책기도를 드러낸 또하나의 용납못할 반북대결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부시의 대북강경책동을 규탄하는 온갖 세계여론에 대한 참을수 없는 도전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있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관련해 우리 국민은 물론 온 세계가 이를 규탄하면서 그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서방세계에서까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전례가 없는 독선적인 망발이라고 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요구와 ≪악의 축≫이라고 낙인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계속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미 국무부장관이라는 자가 부시의 ≪악의 축≫발언은 심사숙고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현 대북강경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대북강경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은 세계여론과 한반도의 평화를 무시한 파렴치한 날강도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악의 축≫으로 말하면 세계적 판도에서 대규모적인 전쟁테러로 인류의 평화를 유린하고 있는 미국을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뒤집어 씌우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수 없습니다.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행위는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고 군사적 공격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비롯한 무력증강을 정당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니 뭐니하며 변함없는 대북강경기도를 드러낸 것은 부시행정부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이북과의 대화요 뭐요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중앙정보국장이 떠든 미사일문제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최대의 미사일개발, 수출국이며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위협공갈과 침략에 미사일을 대량 사용하고 있는 나라로써 이를 말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전에 있은 미군의 대형운반로켓발사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미사일개발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면서 오직 이북의 미사일문제만을 부추겨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 진의도가 저들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정당화하고 인류압살을 노린 것이라는 것은 국제사회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북의 적화통일목표요 뭐요하고 떠든 것 역시 언어도단입니다. 이북은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여러번 천명한바 있습니다.

미국이 이끌어내는 북침전쟁위협속에서도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평화가 보장되고 있는 것도 이북의 높은 자제력의 결과입니다. 특히 이북의 진지한 6.15공동선언이행과정은 이것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미국이 이북의 적화통일에 대해 운운한 것은 저들의 북침전쟁책동과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정당화하고 주요하게는 우리 민족의 6.15공동선언이행에 장애를 조성하자는데 그 저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제반 사실은 부시행정부의 북침전쟁기도가 극단에 도달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은 눈앞의 현실로 닥쳐왔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제에 의한 북침전쟁의 길, 그것은 곧 민족의 파멸과 종말에로의 길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상상만해도 몸서리치는 민족의 참혹한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국민여러분은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초래할 망국적 결과를 똑바로 헤아려보고 부시행정부의 무모한 대북강경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비롯한 거족적인 반미성전에 벌떡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언론인 김지성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7일~10일

극악한 반통일사대매국역적 이회창이 대선을 앞두고 미국상전의 눈에 들기 위해 미국을 행각해 미국상전의 비위를 맞추는 온갖 추태를 다부렸는가 하면 이북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도 서슴없이 늘어놓는 개질을 했는가 하면, 그에 앞서 연두기자회견이라는데서도 미국상전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노복의 가련한 비굴성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회창의 한미공조 넋두리≫ 언론인 김지성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철씨입니다.

연예인들이 지휘자나 감독의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앙상블을 맞추고 예술기량을 높이는데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된다. 하지만 외세에 종속된 자들이 상전의 곡조에 따라 춤을 추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광대극이다.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이 미국의 요구에 맞장구를 치는 것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수 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새해 벽두부터 전쟁광기를 부리며 미국공화당패거리들을 한국에 파견해 판문점을 싸다니게 하고 있는 것과 때를 맞추어 한국의 우익보수세력이 한미공조를 외치고 있으니 말이다. 국방부장관이나 외교통상부장관의 한미공조타령도 그렇지만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인 작태는 더욱 분격을 금할수 없다.

그는 지난 1월 17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마치 대통령이나 될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서 대북정책에서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검증의 세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떠들었다. 이회창이 지키겠다고 하는 세가지 원칙이라는 것은 사실상 부시미행정부가 대북강경책을 고언하면서 들고나온 구호이다. 기회있을 때마다 한미공조를 떠들어온 이회창이 또다시 미국의 대북강경책을 그대로 외우고 있는 것은 친미사대매국행위의 극치라 하겠다.

사실 우리에게는 한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가 절박한 요구로 되고 있다. 한미공조가 냉전시대의 대북주적론에 기반한 전쟁공조라면 민족공조는 화해협력시대에 민족자주정신과 민족대단결사상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자주평화통일공조이다. 또 한미공조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또다시 외세의 손아귀에 넣으려는 친미사대매국의 길이라면 민족공조는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해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민족번영을 이룩하는 길이다.

더욱이 미국은 지금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좋게 발전되어 가던 남북관계를 침체상태에로 만들고 한반도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있다. 9.11사건이후 부시미행정부는 한국에 침략무력과 전쟁장비들을 새로 투입시켰는가 하면 한국에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로 연장시켜주고 최첨단미사일 111기를 넘겨주려 하고 있다.

한반도정세는 각일각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자주적인 입장에 선 사람에게서는 한미공조라는 말자체가 나올수 없다. 그런데 이회창은 오히려 한미공조를 더욱 떠들며 미국의 말을 앵무새처럼 외워대고 있으니 그에게 과연 민족의 피가 있는가고 묻지 않을수 없다.

실제로 이회창은 부시호전집단에 아부굴종하는 사대매국역적이다. 하기에 그는 부시미행정부의 패권적 세계전략인 미사일방어체제와 대북강경책을 쌍수를 들어 환영했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안전판역할을 한다고 떠들며 주한미군철수불가론과 영구주둔론을 고창하고 있다. 심지어 그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망발도 서슴없이 함으로써 자기가 한푼의 가치도 없는 친미사대매국역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냈다.

그가 연두기자회견에서 들고 나온 북의 대량살상무기문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북을 무장해제시키고 일거에 삼켜보려는 미국의 침략야망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호시탐탐 침략전쟁을 노리고 있는데 스스로 무장해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소리이다.

북에서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난 시기의 역사적 경험을 놓고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그런데 이회창이 미국의 북침전쟁계획에 동조하면서 북을 걸고 든 것은 어떻게해서든지 미국의 환심을 사서 대권욕을 이루어보려는데 있다.

이회창이 권좌에 앉으면 우리 민족은 전쟁의 참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에게 돌이킬수 없는 전쟁의 재난을 덮씌우려는 이회창을 축출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서야 할 것이다.

이회창이 제아무리 미국상전의 힘을 빌어 권좌에 앉아보려고 발악을 해도 우리 민중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온 겨레가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기다리고 그걸 위해 모든 걸 다바치고 있는 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조국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이런 역적이 권좌에 오를 용꿈을 꾼다는 건 말도 안돼죠.



부시망발 용납할수 없다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5일～6일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연두교서≫라는데서 무분별한 대북강경발언을 연발해서 지금 이남의 정계, 사회계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아시다시피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날이 감에 따라 더더욱 강도높게 울려나오고 있죠. 얼마전 이남의 여야개혁파의원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이들 의원들은 지난 4일 오전 긴급모임을 열어서 이같이 결정하고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미국측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문제로써 남북당사자가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자 : 옳은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사회 각계 단체들속에서도 울려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미국대통령 부시가 ≪연두교서≫라는데서 이북을 함부로 걸고들면서 갖은 악담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부시는 무분별한 협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는데요.

논평은 부시가 테러와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느니 뭐니하고 ≪악의 축≫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북을 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이 9.11사태이후 일방주의적 자세를 취하면서 여러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무조건 테러지원국이라고 일방적으로 낙인찍고 위협이 다가올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망발을 늘어놓은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논평은 우리는 세계에서 대량살상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며 최대의 무기수출국 또한 미국임을 잘알고 있다면서 그런 그들이 안보를 떠들며 9.11사태와 전혀 관계도 없는 타국의 무기에 대해 선제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그들이 말하는 안보란 무기와 군대를 동원한 전쟁과 강압의 수사적 표현일뿐이라면서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다른 나라 민중들을 무기로 위협하고 해당국가의 자주권을 말살해 결국 자국의 패권을 관철시키겠다는 미국이야말로 진짜 악의 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논평은 미국은 일방적으로 북을 세계 인류앞에 악의 축으로 낙인찍고 선제공격을 운운하는 무분별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논평은 미국은 북미사이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또한 앞으로 한미공조라는 미명하에 대북적대시정책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자 : 이런 성명은 다른 사회단체들도 잇따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네, 한국청년연합회는 지난 2일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결코 묵시할수 없다≫ 이런 제목의 성명을 내고 부시의 망언으로해서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더욱 얼어붙지 않을까 염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도 같은날 성명을 내 부시와 그의 참모들의 입에서 강도높게 반복되고 있는 발언들이 북미관계는 물론 남북관계와 한반도평화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1월 30일 성명을 통해 부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만 벌이면 전쟁이요 뭐요하는데 그의 머리속에는 온통 전쟁생각뿐이라며 더욱이 지금처럼 전세계에 대한 협박과 전쟁을 운운한다면 미국에 파괴만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연대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회도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각각 발표하고 호전광부시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사회자 : 특히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성명에서 부시가 이북을 대량파괴무기개발국가로 지목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이 세계에서 가장 파괴적인 무기들로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한데 언급하고 이러한 적반하장격의 망언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부시의 망언의 심각성을 까밝히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그렇죠. 통일연대가 발표한 성명은 부시의 망언은 첫째로 부시가 3개국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미국을 위협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말은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술책으로써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로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대북적대적 입장으로써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옮겨오려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 부시의 대북적대적 발언은 남북관계진전과 6.15남북공동선언실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는데 그 심각함이 있다는건데 참으로 지당한 주장입니다.

성명은 계속해서 첫째로 세계평화위협전쟁을 계속 일삼는 미국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악의 축, 만악의 근원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세계의 반제자주, 평화와 친선을 바라는 모든 나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반미반전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것, 둘째로 미국이 제아무리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기운을 압살하려고해도 우리 민족의 6.15남북공동선언실천의지는 시대의 대세요 필연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사회자 : 정말 미대통령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한 우리 민중의 항변은 여느때없이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데요.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북간의 전쟁과 대결을 몰아오고 있는 미국호전광들의 책동을 용납하지 말고 반부시반미항전의 목소리를 계속 드높여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배격하는 각계민중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7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부시의 한국행각 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각계에서 이를 반대배격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부시의 방한계획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이미 보도된 것처럼 부시의 방한날짜는 오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로 정해졌어요. 그래서 다음날인 20일에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정세와 대테러공조방안 등을 중점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시는 방한기간 주한미군기지들도 둘러볼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사회자 : 지금 각계에서는 부시의 방한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각계 민중은 부시의 방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윤정원 : 부시의 방한과 관련해 지금 각계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를 비롯한 각계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와 집회 등을 잇따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시위에****한결같이 미국의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하고 있다면서 부시의 대북적대시정책을 강력히 규탄했죠. 특히 부시의 서울행각이 북침전쟁책동을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극력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고 반대규탄하고 있죠.

사회자 : 그렇군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각계 민중의 목소리가 일률적인데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시의 방한저의에 대한 각계 민중의 이러한 평가는 이미 부시의 방한준비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닙니까.

윤정원 : 네, 그래요. 아시다시피 지난 달 3일 3명의 미국회의원들이 연일 날아들었고 17일에는 ***공화당패거리들이 **었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대북강경책동에 앞장선 주적론자들이고 반북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절대적인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한 행태를 봐도 주한미군기지들과 전방군부대들을 찾아다니며 북침전쟁열을 고취했죠. 이 땅의 호전광들과 한미군사공조체제강화를 위한 전쟁모의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시가 와서 뭐를 하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

사회자 : 그뿐이 아니죠. 부시의 방한에 앞서 미국의 전쟁광신자들로 악명높은 미국방장관 럼스펠드와 미합창의장이 먼저 날아들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쟁호전광들이 이 땅에 들어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부시의 방한때 논의될 미사일방어체제 공조문제와 북침전쟁흉계를 미리 짜놓자는데 있다는 건 불보듯 뻔하죠.

윤정원 : 그렇죠. 그리고 부시의 방한이 북침전쟁행각이라는 건 방한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부시의 호전적인 반북언동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해에 들어와서 부시가 ***아프간전쟁이 종결되고 다음 목표는 이북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전쟁의 해≫선포는 바로 북침전쟁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전 부시는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에서 이북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비축이니 세계위협이니 뭐니하며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위협행위를 ****지금도 같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악결과를 초래하겠는가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능히 짐작할수 있는 거죠.

사회자 : 정말 기절초풍케할 일인데요. 사실 대량살상무기보유와 세계위협으로 말하면 미국에 대고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미국이 근 2만개에 달하는 핵탄두를 비축하고 있고 게다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생물무기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계를 돌아치며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해 거침없이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9.11사건을 구실로 올해 국방비의 400억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할당한데 이어 다음해 국방비를 사상최대규모인 3790달러로 확정하면서 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지도 않은 이북의 위협을 여론화하면서 이를 구실로 북침전쟁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으니 이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작태가 아닐수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미국의 북침전쟁준비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윤정원 : 미국이 이북을 공격할 것을 노린 ≪작전계획5027-98≫은 이미 작성이 됐고 한반도유사시에 69만명의 침략무력과 각종 함선 150여척, ≪에프18≫ 전투폭격기를 비롯한 1600여대의 ***전개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함정을 비롯한 ****했고 또 9월 11일사건을 구실로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함선들이 기어들었어요.

사회자 : 제가 알고 있기도 미국의 군수업체들에서도 북침전쟁을 위한 초강력지하**무기개발 등 최첨단무기들이 다량생산에 들어갔고 사전거리가 300킬로미터인 신형미사일까지 이 땅에 다량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주변의 미항공모함군단을 비롯한 대규모의 침략무력이 배치된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북침을 위한 전쟁연습을 연일 벌여놓고 있는 것을 비롯해 그 사실들을 열거하면 끝이 없죠. 이같은 사실들을 놓고 볼때 부시의 이번 방한이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고 북침공격을 **하기 위한 전쟁행각이라는 것은 능히 짐작할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시의 이번 방한이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각계의 목소리 역시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정원 : 물론 그렇죠. 전쟁책동과 남북의 화해가 양립될수 없다는 건 자명한 것 아닙니까. *****명백한 것***부시행정부 출범후 ***있지도 않은 이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말도 되지 않는 상용무기 감축문제까지 들고나오면서 남북관계개선에 제동을 걸고 남북간의 대결을 조장시키기 위해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을 했습니까. 더욱이 9.11사건을 구실로 이 땅에 북을 겨냥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게 하고 무력증강과 각종 전쟁연습을 비롯한 전쟁책동으로 정세를 격화시켜 제4차 이산가족상봉과 남북****을 무산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 남북관계진전의 조짐이 보이자 또다시 대북초강경망발을 ****또다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 부시가 전쟁사환군들을 끌고 이 땅에 날아들어 북침전쟁모의를 벌이고 6.15공동선언이행***한반도정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는걸 ***명백하죠.

사회자 : 사실 6.15공동선언이행차단은 결국 남북대결과 전쟁을 유발시킬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러고 보면 부시의 이번 방한은 *****이 아니고 호전광의 전쟁행각이라고 해야하겠죠. 부시의 북침전쟁책동은 한반도전역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는 것으로써 결국 이 땅에 대한 침략전쟁행위죠. 이건 온 민족을 공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행위로써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정원 : 그래서 각계 민중은 미국의 북침전쟁책동과 부시의 방한을 ***우리 민족앞에 초래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서 똑바로 인식하고 부시의 방한저지투쟁을 비롯한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부시방한반대투쟁과 청년학생들의 자세

한총련대의원 김수성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5일~8일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는 미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쏟아놓았다.

부시의 이같은 망발은 자주적이며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며 한반도를 핵전쟁터로 만들려는 작태가 아닐수 없다.

이북에 대한 선전포고는 곧 동족인 이남 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

이북에 대한 침략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전체의 평화에 대한 파괴로 되며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희생물로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부시의 망발에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민중은 양키침략자들에 의해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하면서 분열의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 하기에 우리 민중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격정에 목메여 천하가 동하도록 자주통일 만세를 외쳤던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을 성취할 것을 확약한 6월의 선언은 우리 민중, 아니 7천만 겨레의 트림없는 자주통일의지의 포고였고 분출이였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앞으로 달리던 민족자주통일의 기관차에 제동이 걸리고 한반도에는 또다시 전쟁의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우기 시작했다.

주한미군영구주둔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등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인해 6.15공동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의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에로 퇴보해갔다.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들의 상봉이 암초에 부딪쳤으며 심지어 자주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마저 빈 휴지장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분격할 사태앞에서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지난해에 이어 올 정초부터 반미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올렸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부시가 대북선전포고와도 같은 침략적 폭언을 하였으니 어찌 참을수 있단 말인가. 이 선전포고는 그대로 한 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침략도발이다.

더욱이 문제시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부시의 망발이 머지않아 있게 될 그의 방한을 앞두고 튀어나왔다는 것이다. 결국 부시의 방한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수 없다.

부시의 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이고 우리 국민의 자주통일의지에 대한 유린이며 민족의 존엄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 부시의 방한은 곧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다.

평화냐 전쟁이냐하는 엄중한 형국이 닥쳐온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현정세는 각계 민중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오늘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통일애국에 불타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마땅히 부시방한반대구호를 높이 치켜들고 반부시반미투쟁의 선봉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운동단체들은 지역별, 대학별 특성에 걸맞게 부시방한의 목적과 그 위험성 등을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벌여 대대적인 반부시반미분위기를 적극화해야한다.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노근리양민학살진상규명, 주한미군기지되찾기 등 여러 반미투쟁역량을 총집결해서 부시의 전쟁행각을 저지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지향시켜야한다.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각계 민중과의 연대연합을 강화하는 것이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사상과 정견, 신앙과 종파를 초월하여 굳게 단결해서 반부시반미투쟁을 힘있게 전개해야한다.

이미 지난 2일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 등 재야운동단체들이 부시방한반대투쟁을 결의해 나선 여건에서 그들과 굳게 연대해서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전선을 형성해야한다. 이와 함께 상전의 방한을 고대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친미사대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 역적들의 기를 꺽어놓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부시의 방한이 어제날의 식민지, 고요한 뒷동산에 대한 방한이 아니라 제놈을 맞아줄 졸개도, 발붙일 한치의 땅도 없는, 있다면 분노한 우리 민중의 반미항전만이 꽉 차넘치는 땅이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로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부시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과 온 국민의 반미의지를 똑바로 보고 전쟁행각을 당장 취소하며 대북강경정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반미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7일～10일

최근 각계층 민중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대북강경정책, 반북압살책동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을 규탄하며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대통령 부시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반부시반미투쟁의 함성이 경향 각지에서 힘차게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부시는 얼마전 국회에서 한 ≪연두교서≫라는데서 북은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느니 악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느니 하며 위험천만한 폭언을 늘어놓았습니다.

부시의 이같은 폭언은 북을 모해압살하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언이고 한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켜 전쟁을 일으키려는 극히 위험한 전쟁망언이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이 부시의 망언에 치솟는 민족적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반부시투쟁의지를 안고 반미투쟁을 과감히 벌여나가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민중은 미국의 한국강점으로 반세기이상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당해왔으며 미국의 속지에서 온갖 치욕과 재난을 겪으며 분단민족의 설움을 안고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민중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자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 확고한 의지를 안고 공동선언이행에 헌신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시정권의 출현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 앞길에는 엄중한 장애가 조성되고 한반도에는 전화의 위험이 닥쳐왔습니다.

대북강경정책을 표방하는 부시의 거듭되는 호전적 망언으로 인해 공동선언과 더불어 하나로 이어져가던 민족적 혈맥은 다시 단절의 아픔을 겪어야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결국 남북간의 대화와 왕래가 진통을 겪고 교류와 협력이 무산되었으며 이산가족들의 상봉마저 암초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 분격할 사태앞에서 각계층 민중은 미국의 횡포에 항거의 목소리를 높이고 반미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부시가 이번에 또다시 대북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침략적 망언을 늘어놓은 것은 한핏줄을 이은 우리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침략적 도발로써 온 국민의 치솟는 분노를 더욱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침략과 약탈, 전쟁의 괴수 부시의 망언이 이제 곧 있게될 그의 서울행각을 앞두고 발설되었다는데 커다란 주목을 돌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오늘 한반도에 조성된 위험한 정세하에서 있게될 부시의 서울행각은 다름아닌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호전광의 전쟁행각이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임을 증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시의 서울행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의지를 꺽으려는 용납못할 범죄적 행각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조차 없습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를 고수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민족적 요청입니다.

이 긴박한 정세는 전국민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용약 분기해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분열을 반대하고 평화와 통일을 열망하는 각계층 민중은 민족공멸의 북침전쟁으로 이어질수 있는 부시의 서울행각의 위험성과 엄중성을 똑바로 알고 이를 결코 방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관은 죽음이고 주저는 파멸입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을 유발시킬수 있으며 결국 이 전쟁에서 피해를 입을 것은 우리 민족, 민중입니다.

지난 6.25전쟁과는 대비할수 없는 새로운 침략전쟁에 의해 남과 북이 형언할수 없는 참화를 입게 될 것이고 온 강토가 초토화되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민중은 거족적인 반부시 반미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북침전쟁의 불씨를 안고 기어드는 부시의 범죄행각을 결사반대배격하고 이를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부시투쟁에 전국민이 일치단결해서 과감히 나서야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고 평화와 통일의 암적 존재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합니다.

단결은 힘의 원천이고 승리의 열쇠입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열망하는 각계층 민중과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 민족자주의 기치아래 굳게 단합하고 연대연합을 이룩하는 것은 현시기 반미투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기업인, 종교인 등 각계층 민중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지혜와 뜻, 힘을 합쳐 거족적인 운동으로 반미투쟁을 벌여나가야 합니다.

당면하게는 오래지않아 있게될 부시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반부시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전국적 범위에서 범국민적 운동으로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부시의 서울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기로 반미운동의 새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동맹의 허상≫을 짚을 때다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동맹인가

미국은 우리 민족의 생존전략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군사비 증액 요구를 골자로 한 2002년도 연초 국정연설에서 밝힌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과 ≪선제 공격론≫은 적어도 우리에게 다음의 두 가지를 매우 명백하게 일깨우고 있다.

첫째는, 현재 진행중인 남북간 냉전체제 청산의 노력을 미국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 둘째, 한반도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군사적 지배대상으로 남아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사안은 대북 관계에서 이른바 한미 공조체제의 균열로 나타나고 있고 둘째 사안은 미국의 주도에 의한 한반도 긴장고조로 압축되고 있다. 한 마디로, 미국 부시정권이 이 모든 반 평화적 사태전개의 원인 제공자인 동시에, ≪우리의 민족적 이해관계에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부시 발언에 대한 과잉반응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남과 북의 관계를 ≪선과 악의 대결≫이라는 틀로 보지 않고, 서로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통일국가로 발전하는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악의 축≫이라는 개념 자체가 남과 북 사이에 존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냉전체제 해체의 과정에서 군사적 요소는 부차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가운데 평화적 질서가 중심이 되는 미래를 상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상호 군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부시 정권은 군사적 해결의 방식에 철저하게 우선권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 일조를 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무장력 강화, 그리고 민족경제에 지대한 부담이 될 군비경쟁의 위험에 우리가 무방비하게 노출되도록 각종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민족적 이해관계와 미국의 세계 전략적 목표가 본질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충돌의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의 정상적 진로에 부당하게 개입해 들어오고 있는 미국에게 있다. 미국이 비켜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다. ≪한미 공조 조율≫ 운운의 논리는 따라서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도 돌리는 방식이 된다는 점에서 치열한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면, 미국의 진로방해가 가능하지 않도록 반외세 반패권적 자세를 강력하게 가지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에 있을 뿐이다. 이 충돌의 현장에서 우리는 미국의 압력에 대한 굴종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의 평화적이고도 자주적인 입지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인가의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소위 대북 공조용 한미 관계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한미 관계의 기존질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된다. 미국이 우리민족의 냉전체제 해체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 우리와 미국은 동일한 목표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의 국가적 이익이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의 관계, 즉 ≪적(敵)의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소위 대북 공조용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지점에 우리가 와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의 패권적 야망을 위해 우리 자신이 희생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미국 부시정권과의 대결까지지도 결연히 감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 대결을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굴종과 항상적 전쟁의 위기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순간, 엄청난 민족적 단결에 기초한 평화의 진전과 민족 자주의 공간확대 가능성이 새롭게 열린다.

이번 부시 발언이 미치고 있는 충격파의 가장 극명하고도 놀라운 결과는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 안전과 생명에 미국의 정책과 자세가 최대의 장애이자 위협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한국 대중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점이다. 전쟁의 위기는 남북간 대결구도에서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미국의 제국주의적 패권체제에 대한 격렬한 저항행위로 연결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정치세력이 날이 갈수록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실로, 남과 북의 화해와 단결은 미국의 부시 정권에게 동북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자신의 세계전략을 가로막는 사태진전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남북 결속이 더 강화되기 전에 이 결속의 고리를 약화 내지는 파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실패하면,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동북아시아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약화되는 것을 뜻하게 된다. 따라서 제국주의적 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한, 미국은 이러한 현실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라크에 대한 공세적 접근, 동북아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주의적 노선은 이러한 미국의 위기의식을 반영해주고 있으며 그와 함께, 실질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별도로 한반도 민중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패권체제 유지 강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공조'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다.

자유의 전투? 자유의 학살

뉴욕 타임스 1월 31일자 윌리암 사파이어의 글, ≪자유의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To Fight the Freedom's Fight)≫의 골자는 전쟁의 파괴적 결과를 우려하는 한국에 더 이상 발목 잡히지 말고 미국의 우수한 군사력에 자신을 가지고 선제공격을 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그가 ≪자유의 전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과거 레이건 시대, 미국의 패권정책을 위한 제3세계 군사주의 노선의 집행자들을 ≪자유의 전사(Freedom Fighter)≫라고 했던 것을 연상시킨다. 이른바 그 자유의 전사들이 민중들을 학살하고 군사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를 주도한 제3세계 파시스트 세력이었다는 점을 안다면, 국내에도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등을 비롯한 적지 않은 추종자가 있는 윌리암 사파이어류의 사고와 논리가 어떤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지가 자명해진다. 그것은 자유를 위한 전투가 아니라 자유를 학살하기 위한 전쟁 내지는 전쟁체제인 것이며 그로써 무고한 민중들은 지배자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박탈당해야 하는 것이다.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위기가 진행되면서 미국 내 대자본은 부시

를 주축으로 하는 군사주의세력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위기 앞에서 자본 블럭 내부의 균열을 막고 미국 정치와 언론 내부에 나름대로 발전해온 자유주의적 장치의 견제를 격파하면서 제국주의 질서의 정치군사적 안정에 최대한의 역량을 집결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파시즘의 등장을 의미한다. 제국주의가 위기에 몰렸을 때 동원하는 정치적 기반은 언제나 자본과 군사의 동맹체제인 파시즘이다. 경찰과 정보기능의 강화를 겨냥한 ≪조국 안보국≫, 미국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기 위한 ≪애국법안≫, 외국인까지도 군사법정에 세우도록 한 ≪군사재판 법령≫ 등등은 모두 이러한 파시즘적 기능의 제도적, 법적 현실을 보여준다. 전쟁정책에 대한 의회의 무력화(無力化) 내지는 무비판적 동조 분위기는 또한 바로 이 자본-군사 동맹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내부 정치의 본질적 동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미 패권정책의 내부 동조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미국 행각에서 보인 태도는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패권질서에 순응 내지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사를 밝힌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미국의 대자본이 요구하는 논리에 선도적으로 화답한 것은 이미 지난 1997년 금융위기의 과정에서 IMF와의 재협상론에 격렬한 반발을 했던 것에서 확인되었던 바이며, 대북 적대적 군사주의 노선을 지향하는 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 진작에 중대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반대' 등 최근의 여러 발언에서도 여지없이 증명되었다.

미국의 패권정책은 언제나 그 대상국가 내부에 적극적 동조자를 물색하고 그를 권력의 정점에 세우기 위한 정치공작에 몰두한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지난 반세기의 미국 대외정책사가 고스란히 입증하고 있는 역사이다. 미국 부시정권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그러한 각도에서 제국의 대본영과 그 식민지 체제의 하부구조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회창 총재를 중심으로 하는 한나라당과 그 지지세력의 집권이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될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회창 총재만이 아니다. 오늘날 대권주자로 운위되고 있는 민주당의 인물들 역시 미국의 이러한 전쟁정책과 제국주의적 패권질서에 분명하게 맞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에게는 부당한 외세의 간섭과 개입, 지배에 저항하면서 민족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으며 민중의 희생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적 본질에 대한 비판의식을 정치적 선택과 행동으로 연결하려는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미국의 전쟁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 무엇보다도 민족전체의 안보를 최선으로 여기는 정치역량이 낮은 수준에 있거나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것을 말해준다. 정당개혁이나 기타 대선을 향한 움직임은 모두 절차와 제도, 그리고 정파간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절박한 처지에 빠진 민족현실을 구하려는 본질적 과제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가 철저하게 왜소화되어 있고, 강대국의 논리에 눈치를 살피는 식민지 근성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 현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실현≫이 최선의 해결책이자 기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미국은 지금과 같은 전쟁 정책을 고수하는 한 적어도 우리 민족의 문제에 있어서 결코 동맹이 아님을 정치권은, 오해가 불가능한 명백한 표현으로 선언해야 한다. 남북 평화공존과 화해 협력을 막는 미국의 ≪북한 몰아대기≫ 또는 ≪때리기≫에 공조할 수 없으며, 그 결과인 전쟁의 참담함을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주의 노선에 우리가 동맹이라는 이름아래 종속적 보조세력으로 남아야 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이익을 이토록 압박해 들어오면 미국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적(敵)이 되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음을 인식시키는 간접적 차원의 시사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전쟁정책의 제1차적 수행기구를 그대로 놓아둔 채, 미국의 전쟁정책을 말로만 반대한다고 해서 어디 그 발언에 실질적인 무게가 실리겠는가? 이것은 미국의 전쟁정책을 교정해내기 위한 압박용 외교전략으로 필요한 공론으로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항상적 긴장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인 작업이 된다. 한반도 전체의 군사정책을 지휘하는 본부의 존재는 우리 민족의 생명이 그 본부의 결정 밑에 있음을 뜻한다는 점에서 이를 청산하는 과정 없이 우리 민족의 진정한 안보는 없다.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주한미군의 통일 이후 주둔까지 용인하는 발언들이 심심치않게 들리지만, 그것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장 결정적으로 지원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있는 소치에 불과하다.

셋째, 대북한 지원전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금강산 사업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식량과 전력, 그밖에 북한의 경제회복과 남쪽 경제의 활력을 결합시키기 위한 전면적인 민족경제 수립방안의 실현에 속도를 내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경제봉쇄의 고난에 처해 있는 북한경제의 돌파구를 여는 작업에 남쪽이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것이 현실이 될 때, 남북간 민족단결과 한반도 전체의 평화적 기운의 융성은 한반도 문제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시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로써 미국의 전쟁정책은 더 이상의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현실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필요한 최선의 계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실현≫이다. 그것은 어느 한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돼서는 아니 되며 답방 자체가 해결을 보장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따라서 그 내용의 진전을 위해 이 일은 각계 각층의 총체적 공동작업이 되어야 한다. 그의 답방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처해 있는 민족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각종 거족적 조치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분위기 진작과 각종 제도적 법률적 장애물 제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민족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남북간 수장(首長)의 만남도 이루지 못한다면, 외세가 우리 민족의 생명을 가지고 농락하는 일은 점점 더 쉬워지지 않겠는가?

부디, 우리 민족 전체의 깨어남과 민족의 생명에 대한 절절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이다.

김민웅/재미 언론인

2002-02-07 프레시안(www. pressian. com)

≪노리개≫감이 된 나라의 지도자들

냉전시절에는 리영희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한국인 몽땅 까무러치기≫증상이라는 것이 연례적으로 반복된 바 있다.

즉 미국의 중요 인사가 ≪주한미군 철군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 마디만 슬쩍 던지면 국내 언론이 ≪안보위기≫를 대서특필하여 온 나라가 집단 히스테리 상태에 빠지고, 곧 ≪미군철수 주장하는 자는 반역자다≫라는 관제 데모대가 등장한다.

이 틈을 타서 미 행정부는 한국의 미 군수물자 구입과 한국쪽의 주한미군 주둔비 증대를 슬쩍 제시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은 확고하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고, 결국 한국 내 보수세력은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시나리오에는 한국과 미국의 ≪애국자≫들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은 정설이다.

놀랍게도 우리는 냉전이 끝난 오늘 이 시점 한반도에서 이런 아이들 장난같이 속이 뻔히 보이는 일들이 다른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미국이 이회창 총재에게 자문을 구했으며, 이회창과 부시는 상당한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했다. 이회창 총재가 부시 대통령쪽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나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다.

부시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곧이어 ≪악의 축≫발언을 흘림으로써 ≪햇볕정책≫에 비판적이던 한국 내 야당과 보수언론을 부추겨 한국 내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호통(snub)을 치고 있는 것이다.

야당과 보수언론 부추겨 김 대통령에게 호통친 부시

물론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김대중에게 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험을 강조하고, 김대중 정부의 정책적 입지를 없앰으로써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에 매달리도록 하고, 체면을 세워주는 척하면서 F15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그것이 한국과 한반도 내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 미국의 ≪철군 고려≫, ≪안보 위험≫등의 발언들과 그것이 미쳤던 영향들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과거의 ≪철군≫발언들이 한국 내 군부세력이 위기에 몰렸을 때 한국 내의 권력 관계를 보수세력에게 유리하게 재편시키고 미국의 무기 장사에 도움을 주었다면, 이번의 ≪악의 축≫발언은 잠시 자리를 잃었던 한국 내 ≪주류≫세력을 다시 등장시키는 정치적 효과를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발언이 실제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면 미국인들 자신의 입으로 말했듯이 ≪수지타산에 투철한 현실주의≫의 행동일 것이다.

남-북한의 긴장이 증대하여 대화가 단절되고, 미국이 무기를 더 많이 강매하여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이번 발언의 정치적 효과가 마무리된다면 부시 행정부만이 최대의 승자가 되는 것이고 한국인들을 또 한번 미국의 노리개감이 된다.

문제는 최근 미국의 일련의 행동들과 권력장악을 위해서는 한반도를 잿더미로 만드는 일까지도 동의할 한국의 ≪주류≫보수 세력들이 한국전쟁의 비극과 남북의 소모적 대립으로 인해 초래된 비극과 분단유지 비용을 망각하고 여전히 과거와 같은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초 강원룡 목사는 1%의 전쟁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힘주어 호소하듯이 강조했다. 미국에게 전쟁은 비즈니스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전쟁은 수십만이 목숨을 앗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재앙이다.

그래서 설사 부시가 미국 내외부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만으로 ≪악의 축≫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남북한의 화해 무드를 원점으로 돌리고 북 미간에 사소한 군사적 충돌이라도 일으킬 가능성은 최대한 없애야 하는 것은 미래를 책임질 정치세력이나 언론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몫이다.

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잘못되었고, 북한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한국의 야당 정치지도자나 보수언론들이 전쟁의 위험을 직시하면서도 북한에게 회초리를 들이대거나 무력을 들이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산가족이 영원히 못 만나고, 전쟁으로 동포가 목숨을 잃더라도 권력만 잡을 수 있으면 좋다는 이 행태는 지난 100년 동안 우리민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썩은 조선 왕조의 수구세력, 친일, 이승만과 반공 세력에게 일관되게 나타났는데, 이제 이들이 그러한 논리를 갖고서 다시 권력을 잡겠다고 한다. 빈대는 죽을 지 몰라도 초가삼간이 사라질 것이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2002/02/12 © 2002 OhmyNews

이북의 3대제의, 3대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의 해로 빛내이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

지난 1월 22일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가 해내외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발표되어 내외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호소문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6.15공동선언고수이행, 남북관계진전과 통일운동활성화,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장애하는 요인제거 등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또한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6월 15일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날≫로, 5월부터 8월까지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으로 정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민전 대변인은 1월 28일자 담화문에서 ≪이북의 이같은 3대호소, 3대제의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6.15공동선언을 실현하는 데서 매우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발기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지적하였다.

우리 민중은 애국애족의 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자주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거족적인 민족통일대행진에 총분기하여야 할 것이다.

6.15공동선언은 오늘도 내일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며 여기에 조국통일을 향한 민족대행진의 추동력과 통일조국의 밝은 앞날이 있다. 당면하여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옹호고수하여야 하며 이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온갖 반통일 시도들을 단호히 분쇄해 버려야 한다.

당국자들은 외세와의 공조가 아니라 민족과의 공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대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각계민중은 사상과 이념, 계급과 계층의 차이를 넘어 민족자주통일대행진에 적극 합류하여야 한다.

애국민중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짓부수고 동족압살론인 ≪주적≫론을 철회시켜야 하며 반통일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반통일장치를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위당의 향도따라 전국민과 함께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6.15공동선언실천으로 민족자주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 앞장설 것이다.

주체 91(2002)년 2월 8일
서울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하자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변인 담화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2월 3일 모든 국민이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에 총분기할 것을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부시가 미국회연두교서에서 이북이 대량파괴무기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악의 축을 이루고 있다고 한 망언은 대북선전포고와 같다고 지적하며 부시의 서울행각이란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전쟁행각,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차단하기 위한 반통일행각이라고 폭로하였다.

호소문은 이어 전 국민들이 부시의 전쟁행각을 결사배격하고 모든 통일운동단체들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과 반미반부시투쟁을 밀착시켜 전개할 것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쟁위험의 화근을 제거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긴급하게 발표된 전위당의 호소문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심장으로 접수한다.

부시의 연두교서는 자주적이고 존엄높은 이북을 모해압살하려는 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망발이며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키고 전쟁을 유발하려는 책태이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위협공갈이며 이북에 대한 침략과 공격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침략과 공격이다.

미국은 우리 민족분단의 원흉이며 이 땅 만악의 근원으로서 민족의 존엄과 자주성을 유린하는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미국은 전세계가 지탄하는 테러의 왕초국가이며 부시를 비롯한 미국수뇌부는 전쟁과 악마의 대명사이다.

부시정권의 거듭된 대북강경발언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며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음으로써 온 민족을 격분시키었다. 그런데 오늘 부시는 대북선전포고와 같은 침략적 폭언을 일삼으며 동족불화, 동족대결의 씨를 뿌리는 서울행각까지 벌이려하고 있다.

긴박한 현정세는 우리 민중이 애국애족의 일념으로 반부시반미항전에 용약 분기할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을 저지파탄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전쟁이냐 평화냐, 6.15공동선언이행이냐 6.15공동선언파탄이냐가 결정된다.

평화를 바라고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애국민중은 부시의 전쟁행각, 반통일행각을 결사배격하고 그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 한다. 각계민중은 계급과 계층, 당파와 정파, 지역과 소속에 관계없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인 반부시반미항전으로 민족자주를 성취하고 통일조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전위당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민과 함께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면한 반부시반미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설 것이다.

주체 91(2002)년 2월 8일
서울



≪아리랑축전 참가로 상이군경이 민족화해에 앞장설 터≫



≪6.25전쟁때 총칼을 겨눈 사람들이 먼저 화해한다면 진정한 화해이지 않은가?≫

오늘(7일) 오전 11시 여의도 기계회관 신관 8층 동락회사무소에서 열린 ≪사단법인 한민족아리랑연합회≫ 주최 ≪아리랑축전 참가단 준비위원회(가칭)≫(아리랑준비위) 결성에 따른 기자간담회에서 아리랑준비위측은 이같이 주장했다.

아리랑준비위는 ≪교착되어 있는 오늘의 남북관계에서 대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아리랑축전에 참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아리랑축전 참가단 준비위원회(가칭)≫를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리랑준비위 윤재철 위원장은 결성 취지문에서 ≪아리랑은 남과 북을 포함한 한민족 구성원 모두가 공인하는 ≪민족의 노래≫이고 이 아리랑이 남의 월드컵과 북의 아리랑축전에서 불려지게 된다≫면서, 이는 ≪남북이 전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증폭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재철 위원장은 아리랑축전 참가 목적에 대해 ▲이산가족들의 고향방문의 성격 ▲한국전쟁 상이군경인들의 화해의 의미 ▲월드컵과 아리랑축전 개최를 통한 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알림 ▲지역 전통 아리랑 기능자들과 연구자들의 교류 실현 등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의 대전기를 마련하자고 호소했다.

또한 윤재철 위원장은 ≪이 목적에 함께 하고자하는 일반인, 종교, 사회단체, 정당의 참여≫를 기대하고, ≪북한당국에는 원만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전 모임 갖기≫를 제안했다.

아리랑준비위는 (사)한민족아리랑연합회(상임고문 송철원)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이사장 김승균,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회장 윤재철, 남북이산가족교류협의회 부회장 장승학 등과 함께 논의하여 결성하게 되었다.

한편, 아리랑준비위는 4월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에 앞서 4월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월드컵과 아리랑≫ 및 ≪통일아리랑축제≫를 전국 각지와 판문점 또는 망배단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취지문 발표와 경과보고에 이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아리랑준비위측은 ≪우리도 언제까지 극우단체로만 있을 것인가?≫하고 자문하면서 ≪북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인 우리가 화해한다면 다른 계급계층은 저절로 화해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계환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7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 창립



≪금강산을 사랑하는 일은 이 땅의 평화를 펴오는 길이다≫

7일 ≪금상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이하 금강산연대)가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정관과 사업계획 채택, 임원선출을 진행했다.

박인환 상임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심의섭 상임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경실련 통일협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네티즌 1034명 중 금강산관광이 필요하다는데 75%가 찬성하고 정부지원에 74.7%가 찬성했다≫고 밝히고 ≪금강산 관광을 금강산 순례로 승격시켜야≫한다며 ≪통일의 물꼬, 세계 평화의 근원지 금강산 관광을 살리자≫고 호소했다.

고문으로 선출된 김성훈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민족과 한반도, 남북의 운명을 외세에 맡길 수 없으며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금강산 연대를 만드는 것은 역사적이며, 진정한 애국주의자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상임공동대표는 선출 인사말을 통해 ≪부시 발언은 한반도와 국제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한반도 민초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전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치지도자들이 중차대한 역사적 시점에서 어떤 언행을 했는지 기록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국 상임집행위원은 사업계획 발표를 통해 금강산 사랑 우체국(가칭) 설립을 통해 실향민과 일반국민이 편지와 지정기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강산 복권 판매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강산 평화관광 사절단 북한방문 제안과 오는 23일 진행될 제2회 금강산 평화마라톤 등 금강산 평화문화 사업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대표), 심의섭(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이장희(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공동대표)씨가 선출되었고, 상임집행위원장에 김규철(시민사회아카데미 남북포럼 대표)씨가 공동집행위원장에 이창걸, 최재일, 변진흥, 김규철씨가 선출되었다.

그 동안 준비위원회 형태로 활동해온 금강산연대는 경실련 통일협회, 평화와 통일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노총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금강산 평화관광 살리기를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금강산연대 창립 총회 직후에 같은 장소에서 ≪전국 대학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금강산 관광사업≫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세대, 경희대, 홍익대 등의 과반학생회,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는 학생 7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은 체험을 통해 ≪통일≫을 공부하고 대학생들의 역할을 모색하는데서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이 그 어떤 정치적 목적을 부여하기보다 순수하게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학생들은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계획에 ≪대학생 관관에 대한 지원≫을 포함 시켜줄 것 ▲한나라당은 기존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방향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최소 200개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세대 동아리연합회 회장 정현진씨는 ≪아직 방학중이라 많은 학생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수학여행이나 모꼬지(MT)를 금강산으로 간다면 좀 더 의미있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들이다≫고 소개하고 ≪새내기 금강산 관광단을 꾸리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치관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7

≪금강산 모꼬지, 개강총회때 첫 안건으로 상정할 것이다≫

대학 과 · 반학생회 · 동아리 회장단, 사업계획 발표



≪현대아산이라는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인 금강산 관광을 살리는 ≪통일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캠페인이 자칫 재벌기업을 도와주는 꼴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욱(연세대 동아리연합회 정책국장)양의 대답이다.

7일(목) 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금강산관광 사업≫ 발표 기자회견장 나온 대학 과 학생회장 · 동아리 대표들은 기자들의 질문공세에 ≪대학생들이 직접 통일을 체험하고 오겠습니다≫라며 금강산 모꼬지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이지은(연세대 공대 사회과학 동아리 회장)양은 정부에는 중고등학생 수학여행을 지원하기로 한 지원대책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에는 금강산관광 사업을 대북 퍼주기로 규정하는 시각을 교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국 200여개 과반학생회 · 학회 소모임 · 동아리 학생들의 금강산 관광 실현 △금강산 관광을 과학생회 개강 총회 안건으로 상정 등을 이후 사업계획으로 제시했다.

전국 대학 과 · 반 학생회 · 동아리 대표자 일동 명의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총련과의 연계여부≫, ≪일부운동권 학생들만의 생각≫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기자들과 학생들과 오고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일부 운동권 학생들만의 사업은 아니냐?

금강산 사업은 정치나 이념을 떠나 같은 민족의 대학생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통일이 그다지 멀지 않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실제 주변의 학우들은 대부분 금강산을 가고 싶어 한다

한총련 차원의 사업이냐?

이자리에 모인 학생들은 그야말로 과학생회, 동아리대표자들이다. 아직 한총련차원에서 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이 평화통일 사업이고,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을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생회나 동아리 대표자들이 먼저 나선것이다. 이후 한총련 뿐 아니라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전국의 수많은 과학생회와 동아리, 학회등의 대학생 풀뿌리 단체들이 금강산 ≪모꼬지≫사업을 추진하길 바란다. 단지, 우리들의 이런 요구와 활동을 한총련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라고 또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대학생들이 ≪MT≫를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것 아니냐?

사실 금강산으로 ≪모꼬지≫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의 수학여행 지원이 대학생까지 확대되길 바란다. 그러나,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그만큼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체험학습을 하는것, 북녘땅을 밟는것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면 전국의 수많은 과와 동아리들이 ≪금강산 모꼬지≫를 갈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금강산에서 남북대학생 교류도 추진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길 바란다. 그러나 아직 북녘대학생들과의 교류까지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통일문제나 민족문제에 관심이 부족한 학우들까지 포함한 되도록 많은 대학생들이 금강산 관광을 통해 ≪통일체험학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김장효숙/김성헌 기자
2002년 2월 8일 ©2002 Unews

한나라당의 새해맞이 남북공동행사 딴지걸기 규탄한다



한나라당이 2월 5일 논평을 통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 ≪부시맞이 비난행사≫로 변질될 것이 뻔하다≫며, 이번 민족공동행사자체를 원칙적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논평에 통일연대는 분격을 금할수 없다.

한나라당은 도대체 우리 민족의 단결과 화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부시에게 조금이라도 더 아부할수 있는 기회만을 호시탐탐 엿보는 미국의 마름 정당인가!

부시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에 민족공동행사가 장애가 되는 이유도 알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만의 하나 방해가 된다면 마땅히 부시방한을 연기하도록 요구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번 민족공동행사는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 민족적인 행사이다. 이 행사보다 부시대통령의 방한이 더 중요할 리 없으며 만일 우리 민족의 단결과 화해를 바라는 우방국가로서의 미국대통령의 방한이라면 이 행사를 지지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부시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라고 연두교서에서 밝히며 한반도에 전쟁의 불씨를 지피우지 못하여 안달하고 있다. 부시대통령의 그와 같은 망언이후 한반도에는 부시를 규탄하는 분노의 시위와 성명이 끊이지를 않고 있으며 이제 우리 민족이 전쟁을 반대하는 과제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제가 둘이 아닌 하나의 과제임은 점차 분명해 지고 있으며 외세와의 공조인가 아니면 민족과의 공조인가 하는데 대한 국민적 공감이 더욱 진전되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런 세상물정조차 분별하지 못한채 부시에 아부하기에 정신이 없으니 이를 어떻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치적 지도자라고 할수 있겠는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조차 안중에도 없는 이런 불한당같은 자들이 날뛰는 당을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다.

통일연대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는 민족적 공분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 .

우리는 이미 이회창 한나라당의 방미행각에서 보인 반민족적 반통일적 입장에 대하여 민족적 수치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그 이후에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자행되고 있는 한나라당의 사대매국행각. 민족배신행각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나날이 증폭되고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한나라당이 계속해서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저해하고, 민족단합과 통일 촉진을 방해한다면 범국민적인 한나라당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것임을 똑똑히 알라!

2002년 2월 6일

6 · 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새해맞이 공동행사 2월27일로 연기키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조성되고 있는 민감한 정세를 고려해서 2월27일부터 28일까지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일을염원하는2002새해맞이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오는 2월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일주일 정도 연기하고, 이같은 내용을 오늘(9일)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를 비판하는 국내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에서는 민족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대승적인 입장에서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를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새해맞이 준비위원회는 ≪북측과 합의한 일정을 수정하는 것이 남북민간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재의 엄중한 정세를 헤쳐나가기 위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사연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해맞이 준비위원회의 행사연기 결정은, 지난 7일 오전 종단 수장회의에서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 기간과 부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 날짜가 겹침으로서 시기적으로 민감해 오해를 살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서 일주일 정도 연기할 것을 요청한 것에,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교류 일정 연기와 관련, 지난해 남측의 전국농민회총연맹과 북측의 조선농업근로자연맹간의 ≪단오명절행사≫가 북측의 ≪극심한 가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일정이 거듭 연기되다가 7월18-19일에 걸쳐 금강산에서 ≪남북농민통일대회≫로 치러진 적이 있는데, 이번 남측의 행사연기 제의에 북측의 동의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계환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9

새해맞이 민족공동모임 연기요청에 대한 통일연대 입장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연기하자는 7대 종단의 견해에 대한 통일연대의 입장

이번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이하 ≪남북공동모임≫)은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의 한반도의 긴장고조움직임과 내정간섭, 6.15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려는 공세를 뚫고 작년에 이어 또 한번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단결된 힘을 세계에 과시한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승리로 될 것이다. 또한 이번 ≪남북공동모임≫의 성사는 남북관계를 더욱 진전시키고, 올 봄에 예정된 아리랑 축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축전으로 이끌어 나가는 전주곡으로 될 것이다. 나아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한 민족공동의 축제로 성사시키는 중요한 밑거름이기도 하다.

통일연대는 이처럼 중요한 이번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과 두 차례의 실무회담을 진행한바 있으며 19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한다는 합의를 이루었다. 위 합의에 기초하여 행사를 준비해가던 중, 뜻밖에도 7대종단으로부터 이번 행사의 일정을 연기하였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바, 통일연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남북공동모임≫은 남북간에 두 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하여 양측에서 합의한 사항인만큼 합의 원안대로 치뤄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재확인하고 이러한 통일연대의 입장을 7대종단과 민화협에 전달한다.

2. 그러나 7대종단의 제안이 이미 다시 재 토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며 사실상 19일부터 21일까지의 행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통일연대는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민간통일운동의 진전과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을 위하여 연기된 일정 속에서라도 약속된 ≪남북공동모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승적인 노력을 하기로 하였다.

3. 부시의 방한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서 7대종단, 민화협, 통일연대의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2월 8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대표자 회의

남녘의 청년학생들에게

사랑하는 남녘의 청년학생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는 새 세기 첫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희망찬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위해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 갈 결의에 충만되여 있는 남녘의 동포청년학생들에게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분렬사상 처음으로 북과 남,해외의 각계층 청년학생단체들의 폭넓은 련대련합속에 6.15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기념함으로써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고 청년학생조국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킨 뜻깊은 한해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앞에는 청년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합쳐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하루빨리 열어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범청학련 북측본부는 지난 1월 22일 평양에서 열린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합동회의에서 제시된 3대호소,3대회의를 관철하기 위하여 범청학련 북측본부 중앙위원회 제12차회의를 열고 실천적인 문제들을 토의확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이룩된 성과에 토대하여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겨레의 통일대진군의 앞장에서 더 빨리, 더욱 힘차게 달려야 합니다.

올해 우리들의 투쟁과업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지키고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며 미제와 그에 ≪공조≫하는 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짓부셔 버리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는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철저히 고수해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간다는것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입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정세가 조성되여도 6.15공동선언을 유일무이한 조국통일의 리정표,민족통일강령으로 틀어 쥐고 나가며 민족자주원칙을 거세하려는 온갖 책동에 무자비한 타격을 안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조국통일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나가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활성화는 시대의 요구이며 민족의 부름이며 이 투쟁에 통일선봉대 우리 청년들이 앞장서는것은 너무도 응당한것입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및 련대투쟁을 강화하며 청년학생들간의 대중적이고 다양한 접촉과 교류활동을 년중 지속적으로 적극 벌려 나가야 할것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가는 운동기간≫에 6.15민족통일대축전을 해내외청년학생들의 상봉의 장,련대의 장으로 빛내이고 범청학련 결성 10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북과 남,해외 청년학생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은 미제와 남조선반통일세력의 분렬과 전쟁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거세차게 벌려 나가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은 필수적으로 내외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동반합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통일을 가로막고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온갖 반역행위들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하며 미제의 전쟁책동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적론≫철회, ≪보안법≫철페를 위한 다양한 투쟁을 적극 전개하여 반통일세력을 고립시키며 범청학련 남측본부,한총련의 합법화실현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승리의 담보는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더욱 더 굳게 단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청년학생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굳게 손 잡고 민족자주통일의 한길로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지금 조국남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6.15공동선언리행을 위한 청년학생련대조직건설사업은 해내외 동포청년학생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북과 해외청년학생들의 기대와 남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의 뜨거운 통일열망에 떠받들려 가까운 앞날에 자기의 결성을 선포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남녘의 청년학생여러분!

우리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의연 애로와 난관은 있어도 조국통일의 확고한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있고 그를 실천해 나갈 겨레의 굳은 의지와 무궁무진한 힘이 있는 한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는 우리 청년학생들이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합동회의 호소에 적극 호응하여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서 통일의 첫 세대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나가자는것을 열렬히 호소하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북측본부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1월 30일

≪아파트 공사차량 앞에 드러누울 것≫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 발표 규탄 기자회견 가져



≪악의 축≫ 발언에다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까지≫.

부시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내 반미감정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9일 오전 11시 용산 미 8군 사령부 정문 앞에서는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전국민중연대(준)민족자주위원회 주최로 ≪용산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파문 탓인지 많은 취재진이 몰렸고, 주최측은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잘 보도해 달라≫는 당부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하며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 협상과정이 굴욕적이었다고 들었다≫며 ≪국방부는 협상과정을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규엽 자통위원장은 ≪미군기지내 아파트를 건립하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영구주둔하겠다는 음모≫라며 ≪용산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반드시 막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바로, 홍근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상임의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 주최측은 ≪국민의 80%이상이 반대하는 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 발표는 지난 1월 한-미 당국이 합의했다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이 기만적인 제스처에 불과한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문은 ≪설날 연휴 직전에 아파트 건립계획을 기습적으로 발표한 한-미군당국에게 커다란 분노를 느낀다≫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미군기지 아파트 건립계획은 부시방한의 선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앞에서 간략한 규탄집회를 가지며 이 후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모아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김종일 자통협 공동집행위원장은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설 연휴 이후 16일에 총력집중으로 전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언급하고 ≪미국이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시도한다면, 공사차량 앞에 드러누워서라도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온국민이 힘을 합쳐 막아나선다면, 미국이 쉽게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 건립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주한미군과 국방부는 어제(8일) 용산 미군기지에 5층 짜리 아파트 2개 동 60세대를 오는 6월 착공하겠다고 공식 발표 한 바 있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9

미군, 40곳서 민간인 학살

99-2000년 접수, 4곳선 100명이상 사망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40건의 민간인 피해사례가 국방부에 접수된 사례가 40건에 이르는 한편 100명 이상의 대규모 학살이 자행됐다는 증언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이같은 민원들을 접수하고도 파장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사실확인을 비롯한 후속조처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사실은 6일 이부영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국방군사연구소(현 군사편찬연구소)의 ≪민군관련사건 연구결과보고≫ 문건에서 확인됐다.

◇ 민원접수 현황=문건을 보면, 국방부가 1999년 10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접수한 민간인 피해 사례는 미군 관련 40건과 한국군 관련 2건 등 42건이며, 미군관련 사건 가운데 38건에서 인명피해가 신고됐다.

특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신고된 곳만 해도 △충북 단양군 영춘면(1951년 1월20일 미군기 폭격으로 300여명 사망) △경남 사천시 곤명면(1950년 7월29 · 31일 이틀 동안 미군기 사격으로 250여명 사망) △전남 여수시 남면(1950년 8월 2~3일 미군기 사격으로 150여명 사망) △경북 포항시 송골(1950년 7월19일(음력) 미군함 포격으로 100여명 사망) 등 4곳에 이른다.

나머지 사례에서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80여명까지 숨졌다는 증언이 나왔다. ≪사망 17명≫ ≪미해병5여단 사격≫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신고내용도 다수 접수됐다.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보면, 미군기 폭격에 의한 피해가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군기의 기총사격과 육군의 사격, 군함의 포격 등도 민간인 피해를 낳았으며, 미군의 행패로 민간인이 숨진 사례도 있었다.

1950년 7월 경기 평택 인근에서는 미군기에 의해 국군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접수되기도 했다.

◇ 국방부의 미온적 대처=문건 내용 가운데는 일부 공론화된 피해사례를 제외하고는 국방부가 사건의 노출을 꺼려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기피했음을 드러내주는 대목이 있어 주목된다.

문건에 따르면 1999년 7월 국방부 장관이 ≪제주도 · 문경 · 함평 · 영동 · 나주사건 등은 군이 보유한 자료를 섭렵해 문제해결을 뒷받침할 것. 차후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손도 대지 말 것(현지출장은 금지, 자료는 정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경북 문경 · 전남 함평 등 당시 사회적 쟁점이 됐던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현장조사를 하고 나머지 사건은 서류만 조사하도록 지시됐다.

또 양민피해 조사활동의 성격에 대해서도 ≪군이 주도적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 군 작전의 정당성이 훼손돼서는 안된다. 군의 최대 양보선은 양비론≫이라고 규정했다.

이부영 의원은 ≪그동안 노근리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졌지만, 국방부에 접수된 민원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개별적인 접근만으로는 전쟁의 상처를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며 ≪신고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양민피해 사례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같은 범정부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현 기자 / piao@hani.co.kr



모든 민간인학살 문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1일, 영국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 문제가 늦었지만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를 외면해왔던 국내 언론들은 외국의 유수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너도나도 매일같이 민간인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한 일간지는 전례 없이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결과, 증언, 자료 등과 이번의 영국 방송이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통해, 그간 미국 정부가 되풀이해왔던 답변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미국은 이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노근리 사건 하나만을 부랴부랴 해결하는 것으로 나머지 지역의 수십 건의 학살사건을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정부 역시 자국의 국민들이 당한 이 비극적 사건의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축소와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 이부영 의원의 폭로(한겨레의 2월 7일자 기사)에 따르면, 그 동안 국방부는 미군에 의한 학살 사건을 40여건 이상 접수하고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말고 최대한 이 문제를 축소시키고자 노력했다는 새삼스러운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단지 미군에 의해서만 저질러졌던 것이 아니다. 각종 증언과 기록에 의하면, 전국에서 국군과 경찰, 이들의 비호를 받은 청년단 역시 수없이 많은 학살을 자행했다. 단지 미군의 학살만이 부각되고 군경, 모 청년단 등이 저질렀던 학살사건이 묻혀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동일한 시기에 다양한 민간인학살 사건이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발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그나마 구사일생으로 생존한 유족들이 점차 고령으로 운명하고 있다. 지난 세월 동안 피해자들은 눈멀고, 귀먹고, 입막은 채 험한 세월을 살아왔다. 극우반공, 군사독재의 통치가 50여년을 지배해온 이 땅에서 좌익 혐의로 학살당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었다. 5.16 쿠데타 정권은 4.19 직후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양민학살사건의 해결요구를 간단히 무력으로 짓밟았고, 이후 40년 간, 이들은 벙어리 냉가슴으로 쥐죽은듯 살아왔다.

이제 더 이상 외국 언론의 특집보도로만 우리의 비극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지 미국에 의한 학살만이 아니라 한국군과 경찰, 관변 청년단 등에 의해 전국적으로 저질러졌던 수많은 민간인학살 사건이 송두리째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분명히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작년 9월 6일 본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사회단체, 관련 유족 등의 노력으로, 현직 국회의원 47명의 공동발의를 거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하지만 이 특별법은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에서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는 중이다.

지난 50여년 전, 이 나라의 첫 출발 단계에서부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철저하게 조롱 당하고 단지 ≪어떻게 하면 살아 남느냐≫의 기준만을 잔인하게 각인(刻印)당한 한국사회는 당연히 민주와 진실에 냉소적일 수밖에 없고 단지 잘 살아 남는 일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제라도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마음으로, 지나간 역사의 비극을 바르게 갈무리하고, 억울하게 피멍이 든 수십만 유족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그리고 힘의 강약이 아니라 사회정의라는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전국의 범사회단체는 뒤늦게나마 다음의 내용을 촉구한다.

- 미국정부는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이 아닌 모든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하며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학살사건을 한국 민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라!
- 한국정부, 국방부 등은 언론을 통해 밝혀진 은폐와 소극적 대처를 즉각 사죄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관련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고 적극 협조하라!
- 대한민국 국회는 한국전쟁 전후의 모든 민간인학살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한 특별법을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조속한 제정하라!

만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묵살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의 범사회단체는 미국정부와 한국정부, 국회 등과 본 민간인학살문제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한다.

2002년 2월 9일

민간인학살문제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일동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NCC인권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회관, 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범국민위원회,부산인권센터,새사회연대,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인권실천시민연대,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장애인의꿈너머,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인권연대(이상 16개 단체)

친일족속의 후예 이회창

김동수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4일~6일

얼굴이 곰의 발바닥처럼 두껍다라는 말이 있죠. 이건 만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기의 처지는 당반에 올려놓고 할 말 못할 말, 다닐데 못다닐데도 가려보지 못하고 머리를 쳐들고 돌아치는 이회창과 같은 인간추물을 두고 이르는 말이라고 할겁니다.

서울서 사시는 김동수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친일족속의 후예 이회창≫.

요즘 정계와 사회 각계에서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의 친일행위가 화두로 되고 있다.

화두의 골자는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일제때 검찰서기로 근무하면서 일제의 손발이 되어 세상 악한 짓이란 악한 짓은 다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물론 이홍규의 친일행위가 세간에 불거져 나온 것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때마다 이회창은 애비의 행적에 대해 일체 언급을 회피했을뿐 아니라 세론을 엎어넘기기 위한 권모술수로 일관했다.

지난 2001년 7월 27일 이회창은 어느 한 자리에서 지난 대선때도 야당이 부친의 친일의혹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자식때문에 부친이 욕본다고 생각하니 굉장히 죄송스러웠으며 어제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일제시대때 자기 애비가 어떤 친일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부친에 대한 중상모략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식의 이른바 동정론을 호소했다는데 그쳤던 것이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친일을 해도 악독한 친일분자라는 것은 이미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원래부터가 친일사상이 골수에까지 꽉 들어찬 특등 친일사대부이다.

일찍이 이조 정권가문에서 출생한 그는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하자 재빨리 일제를 숭상하며 그의 날개밑에 깊숙이 기여들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홍규는 내지인으로 태어나지 못하고 조선인으로 태어난 것을 몹시 후회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의 입에서는 내선일체, 황국신민화의 넋두리가 떨어지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한다. 심지어 이홍규는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입는 옷마저 기모노를 입었고 게다짝을 끌고 다니면서 내지인흉내를 피우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는가 하면 어린 이회창과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녘하늘을 향해 동성일배를 하는 것을 생활화, 습성화, 제도화했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가 얼마나 지독한 친일분자인가 하는 것은 그가 일제의 검찰관리부에 출세의 길을 펴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데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일제때 검찰관리라고 하면 일본 사람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관직이였다. 그런데 이홍규는 어떻게 이런 철통같은 문을 뚫고 검찰계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었으며 특히 검찰서기로까지 톺아 올라갈수 있었는가하는 것이다. 한때 이홍규와 같이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법조계의 원로 박모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홍규의 친일기질은 나무랄데 없다. 일제검찰청 수뇌들앞에서 대일본제국에 충성할 것을 혈서로 맹세한 자가 다름아닌 이홍규씨다. 이것이 아마 일본 사람들도 넘겨다보기 어렵다던 검찰계통으로 뻗은 결정적 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된다.≫

검찰청 검찰서기로 발탁된 이홍규가 일제의 손발이 되어 악질적으로 놀았다는 것은 더 길게 설명할 말이 없다. 무고한 주민들, 특히 일제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애국투사들을 이른바 마적단으로 몰아 잔인하게 처형학살했다. 검찰서기 이홍규가 놀리는 펜대에 의해 사람의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판국이였으니까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오죽했으면 일본인 검사들조차 이홍규의 파쇼적 기질에 놀라움을 표시했다고 하니 왜놈들의 손발이 되어도 이만저만한 악질친일주구가 아니였다.

이런 공로로 하여 이홍규는 일제 검찰청으로부터 특등공신으로 치부됐고 표창까지 받았다. 이회창의 애비 이홍규는 바로 이런 자이다.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다. 이회창이 제 아무리 애비의 친일행적을 숨기려해도 그것은 이 밝은 세상에 통할수 없다. 그 애비에 그 아들이라고 친일주구의 피를 받고 자란 이회창이 달리는 될수 없다. 이회창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 애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결코 우연치 않다.

친일파족속들은 이미 전에 숙청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친일족속들이 아직도 머리를 쳐들고 다니는 것부터가 민족에 대한 모독이요 수치이다. 더욱이 이런 친일족속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그 영향을 받은 이회창따위가 오는 대권을 노리고 있으니 슬픔을 넘어 경악을 금할수 없다.

친일주구의 족속,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에 너도나도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대를 이어 사대매국을 업으로 하고 있는 이회창역적이 지금 대권을 노리고 있는데요. 천만에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사대매국, 반통일역적은 **가 아니라 정계에서 몰아내고야 말겁니다.



부정부패의 왕초

김지호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4일~6일

이회창역적의 어지러운 행적에서 또한 꼽아야 할건 부정부패라고 하겠는데요. 그의 돈 뜯어내는 방법은 정말 귀신도 혀를 찰 정도라고 할겁니다.

서울서 사시는 김지호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대쪽이라는 이름은 한때 이회창에게 붙었던 이름이다. 그가 부정비리를 모르는 원칙있고 청렴결백한 법관이라는 것이다. 그런 소문이 한국사회에 돌아가 그의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과거와 현재를 따져보면 썩은 내가 진하게 풍기는 더러운 인간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그가 앞에서는 원칙과 법치주의를 광고하면서 뒤에서는 별의별 부정비리와 부정부패행위를 다해왔기 때문이다. 법관의 감투를 썼던 시기에만 놓고봐도 그렇다. 그는 자주, 민주, 통일운동에 나선 애국자들을 국가보안법에 걸어 투옥하고 사형을 비롯한 중형을 들씌우면서도 절도나 폭행 등 일반사범들에게서는 위협, 공갈, 회유, 협박의 방법으로 돈을 빨아냈다.

그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라는 말로 일반 기소자들을 강박하면서 죄를 삭감시켜주는 댓가로 거액을 요구해 부정착복하곤 했다. 당시 이회창의 손탁에 걸렸던 사람들은 돈을 빨아내는 그의 교활성과 악랄성, 무한정 요구하는 큰입에 지금도 혀를 차고 있다.

법관노릇을 하면서 돈맛을 톡톡히 들인 이회창은 정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온갖 권모술수를 써가며 부정축재를 일삼았다. 안기부부정대출사건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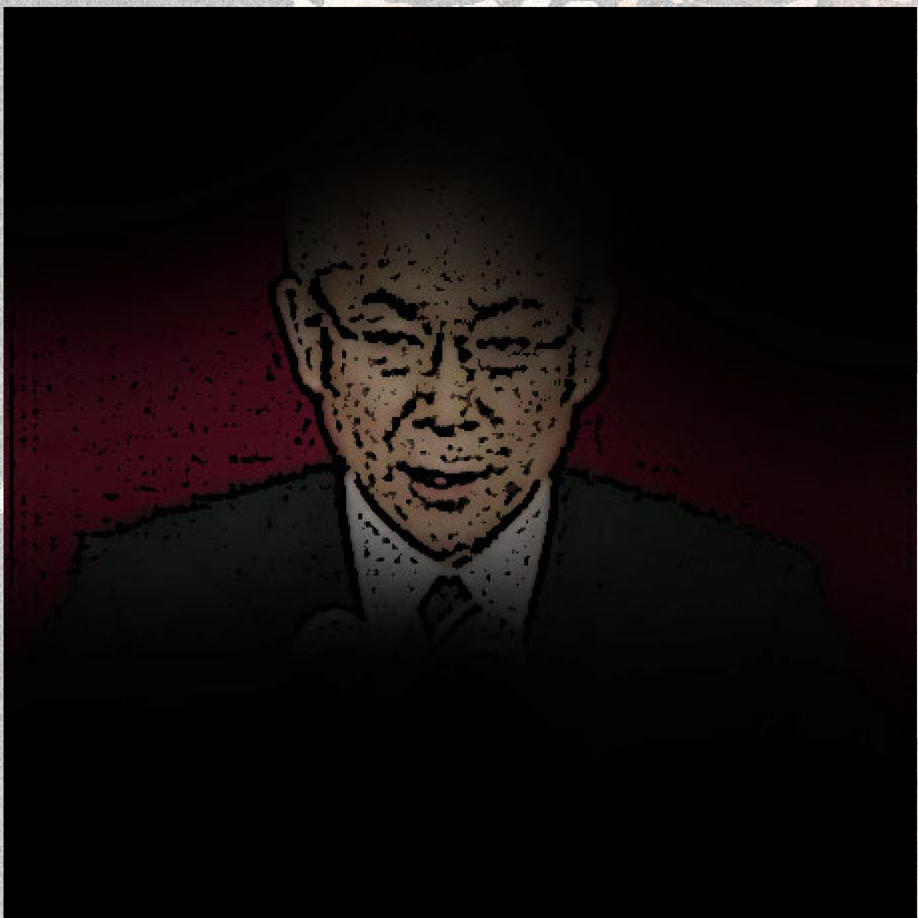
1996년 4.11총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였던 이회창은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83명의 신한국당패거리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기는 거액을 갈취했다.

감사원장 시기에 율곡비리와 평화의 댐에 대한 감사를 맡아하면서 관련자들로부터 사례금명목으로 많은 돈을 받고 사건처리를 흐지부지시킨 경험이 있는 그로써는 그쯤한 돈은 세발의 피로 생각했다.

이외에도 그는 이회창후원회를 통해 돈을 합법적으로 걷어들이고 있고 정권인수쯤으로 이용하고 있는 국가혁신위원회를 다른 하나의 돈줄로 써먹고 있다.

이회창이 지난해 2월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생가복원을 한 것은 그가 부정축재한 돈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였다.

한나라당소속의 임모씨가 ≪지금 대다수국민이 돈이 없어 어렵게 살고 있는 때에 거액을 들여 사람도 살지 않는 집을 무슨 생가라며 복원하는 것은 썩은 정치인의 나태한 행태≫라고 비난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회창이 부정비리의 진상을 밝히라는 국민각계의 요구에 정면 도전해나서고 있는 것이다. 안기부선거자금부정대출사건과 관련해서 그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밝힐 것이 없다고 뻗대다가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고 괴성을 질렀던 것이다. 철면피와 파렴치의 극치라 하겠다. 도둑이 매를 든다는 말도 무색할 지경이다.

온갖 비리로 부정축재를 하고 사리사욕에 참견하면서 오히려 보복이니 피니 하며 날뛰는 이런 뻔뻔스런 인간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더욱이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썩은 정치인이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각계 민중은 대권야망을 이루어 더 큰 부정축재를 노리는 이회창을 당연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부정부패의 왕초≫, 김지호씨의 글이였습니다.

이회창은 입이 열개라도 청렴결백을 운운할 자격이 없죠.

조선일보가 바로 ≪악의 축≫

민간법정 추진위, 조선일보 규탄대회 가져



지난달 30일에 열렸던 ≪조선일보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민간법정) 판결문이 조선일보사에 던져졌다.

8일 오후 1시 조선일보사 옆에서는 통일연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주최로 ≪조선일보 반민족 반통일 행위에 대한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달 30일에 있었던 조선일보에 대한 민간법정 판결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판결문을 조선일보에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인사말을 통해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일제시대 때 조선일보는 동서고금에 유래가 없는 일본 천황의 ≪臣子≫를 자처하고 독립군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다≫며 조선일보의 반민족적 행위를 규탄했다.

또, 오종렬 상임의장은 ≪독재정권에 아부굴종하고, 겨레의 통일행보에 항상 해꼬지를 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역사앞에 단죄하는데 서울시민들이 함께 하자≫고 호소했다

이 후 규탄대회는 조선일보 민간법정에 대한 간략한 경과보고 후 참가자들의 조선일보에 대한 규탄발언으로 이어졌다.

먼저, 김동민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자무실이 프레스센터에 위치해 있는데, 부시의 대북강경발언 이후 미대사관과 조선일보가 근처에 있어 미사일이 혹시 이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조선일보의 최근 보도행태를 꼬집었다.



김동민 상임대표는 또 ≪우리나라에도 악의 축이 있는데, 바로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최근의 동아일보가 그것이고, 우두머리가 바로 조선일보다≫며 ≪이 악의 축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조선일보 반대 투쟁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통일연대 강형구 조직국장은 ≪같은 민족의 큰 행사를 축하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조선일보는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흠집내기에 여념없다≫며 ≪월드컵과 아리랑 모두 통일에 기여하는 큰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불교통일연대 진관 스님은 ≪조선일보 기자들의 신발을 다 벗겨서 취재를 못하게 해야한다≫, ≪관심법으로 내가 보니 부시가 비행기 타는 순간 비행기 바퀴가 빠지더라≫ 등의 이야기로 참가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규탄대회는 30일 있었던 조선일보 민간법정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끝이났고,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 조선일보 사옥으로 향했지만 경찰의 저지로 대표단 5명만이 조선일보사로 갈 수 있었다.

대표단은 판결문을 전달하려 했지만, 조선일보측의 거부로 판결문을 조선일보사 출입문안으로 던져넣는 것으로 대신하고 이날 규탄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30일 열렸던 조선일보 민간법정에서는 조선일보의 반민족, 반민주, 반통일 행위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기소된 보도기사에 대한 사죄와 관련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소유와 경영분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판결이 내려졌었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8

사법부,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실형 선고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0일

이미 보도된 것처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지난 7일 지난해 평양통일축전에 참가했던 문재룡씨 등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그들이 방북과정에서 북측 범민련측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하면서 이같은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사법당국의 이같은 행위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행위입니다.

그들에 대한 실형선고와 관련해 범민련남측본부와 6.15공동선언실천통일연대를 비롯한 각계 사회단체들이 성명 등을 통해 이를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각계 민중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통일적 행위로 규탄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8.15통일대축전에 참가해서 통일활동을 벌인 것은 결코 죄로 될수 없습니다.

우선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으로 말하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축전이였습니다. 이남당국도 그들의 방북을 승인했던 것이고 이들은 축전에 참가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의로운 활동을 벌였던 것입니다.

사법당국이 문제시하고 있는 북측 범민련측과의 회의문제도 그렇습니다.

회의규모를 봐도 남북해외 범민련대표들이 모두 참가한 민족적인 회합인 것은 물론 토의된 문제를 봐도 6.15공동선언정신에 맞게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개정한 것이였습니다.

그것은 자주통일시대의 견지에서 보나 또 온 겨레의 통일지향의 견지에서 보나 지극히 찬양할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롭고 정당한 통일활동이 죄로 되다니 이것은 누구도 납득할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이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이고 범민련이 이적단체라고 하면서 그들의 활동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몰아붙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와 그 이행을 통해 온 민족이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힘차게 나가고 있는 이때 아직까지 동족을 적으로 간주한 구시대적인 냉전논리인 이적단체를 운운하고 있으니 이야말로 극악한 반통일집단만이 자행할수 있는 민족반역행위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볼때 범민련 방북단에 대한 사법당국의 폭거가 무슨 ***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과히 짐작치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일운동단체들과 각계 시민단체들의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음으로써 남북의 진정한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방해하고 나가서 6.15공동선언이행을 전면 차단하려 한다는데 그 저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반 사실은 반통일집단으로서의 사법당국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보여주었습니다.

시대와 민족의 통일지향에 역행하는 이러한 작태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범죄행위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습니다.

사법당국은 저들의 반통일적 행위로해서 초래될 파국적 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애국적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당장 중지해야 하며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들에 내린 실형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8.15 방북대표단에 유죄선고

≪2001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7일 오전 11시 서울 지방법원 417호에서는 2001년 민족통일 대축전 방북대표단 6명의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민족통일 대축전의 여파로 통일부 장관이 경질되는 등 한국사회에 혼란이 조성됐다≫고 지적한 뒤 ≪범민련 규약개정을 위한 회합이 애초에 허용된 모임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선고의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우리는 현행법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형 선고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개막식 참가와 범민련 규약 개정을 위해 회합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유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족통일대축전의 과정에서 충돌이 없었고, 피고인들이 남북화합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정상참작한다≫고 전제한 뒤 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방북대표단의 선고공판 결과이다.

박종화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규철 범민련남측본부 부의장 -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김세창 범민련남측본부 조직위원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임동규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문재룡 범민련서울연합부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 징역 2년 6개월, 자격정지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날 공판 후, 대표단들은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규정 유죄 선고와 민족통일대축전에서의 활동에 대한 유죄 선고에 유감을 밝히며 향후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장동렬 기자 (tongil@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2-07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 유죄선고 규탄 범민련 남측본부 성명

검찰과 사법부는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7일) 검찰과 사법부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온 겨레의 염원에 철저히 역행하는 반통일적인 작태를 자행하였다.

지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온 6명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하여 사법부는 국가보안법 상 특수 목적의 탈출(강령규약 개정 목적), 회합(범민련 3자 모임), 고무찬양(3대헌장 기념탑 행사 참관), 이적단체 가입 조항을 적용하여 김규철 서울시연합 의장,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김세창 남측본부 조직위원, 박종화 광주전남연합 사무국장의 경우 실형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문재룡 서울시연합 부의장, 임동규 광주전남연합 의장의 경우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는 6.15 공동선언 채택 이후 이를 활동의 근본원칙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해 통일연대, 추진본부에 가입하여 타 단체들과 함께 남북의 화해와 단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해 추진되었던 남북공동행사들에 통일연대, 추진본부의 성원단체로서 정당한 자격으로 참가하여 왔으며, 이번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합법적으로 참가하였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여러 증언과 자료로 확인되었다시피 범민련 3자 모임은 민족통일대축전 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부문별 상봉시간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3자 모임의 내용 또한 6.15 공동선언 시대에 맞게 범민련의 통일운동을 어떻게 개선,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된 것이었다.

이번 재판을 통해 6.15 공동선언의 내용에 입각하여 진행된 범민련의 모든 행동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낙인찍혔다. 이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21세기의 시작을 맞으며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분단시대에 종지부를 찍자는 의지를 밝혔다. 통일시대로 도약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남북사이의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법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결국 민족의 요구를 외면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6.15 공동선언 합의의 당사자인 ≪북≫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하고 민간단체들의 통일활동을 ≪이적행위≫로 낙인찍는 공안당국의 태도는 시대의 퇴물로써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민족의 통일실천을 가로막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애국애족 조국통일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 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는 길에서 굴함 없이 싸워 나갈 것이다.

범민련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보장하라!
시대의 퇴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2년 2월 7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족통일대축전 방북대표단 유죄판결 규탄 통일연대 성명

방북대표단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통일적 행위이다

오늘, 지난 2001 민족통일대축전 행사에 참가하고 돌아온 방북대표단 6인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김규철 서울통일연대 공동대표, 전상봉 한국청년단체 협의회 의장, 김세창 통일연대 조직위원, 박종화 광주전남통일연대 사무국장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문재룡 통일대행진단 단장, 임동규 광주전남연합 통일연대 공동대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이번에 재판을 받은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은 추진본부와 통일연대의 성원자격으로 정부당국의 허가아래 방북하였으며, 통일부를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은 재판과정에서 소위 ≪이적단체 성원≫인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방북허가를 했다고 사실상 시인하였다. 또한 행사를 공동주최한 남측의 추진본부에서도 민족통일대축전의 부문별 상봉시간에 범민련의 회합을 합의하고 장소를 준비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범민련 남측본부의 방북과 회합 과정 전반이 정부당국이 보장한 선상에서 이루진 것임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검찰과 재판부는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것으로 왜곡시켰다. 오늘 판결을 통해 우리는 이 나라의 사법부가 아직도 구시대적인 대결의식과 공안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똑똑히 보았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화해와 단합의 한 주체인 북은 ≪적≫이며,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은 ≪이적행위자≫이며, 정부의 호응과 지지 속에서 진행한 공동행사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회합≫으로 되었다. 6.15 공동선언의 채택이후 공동선언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적단체 규정의 굴레에도 굴하지 않았던 범민련 남측본부의 노력은 이번 재판을 통해 커다란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통일을 위해 노력하였던 인사들은 ≪이적행위자≫라는 오명을 다시 뒤집어쓰게 되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 설령 검찰과 사법부가 민간단체들의 정당한 남북교류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화해와 단합의 기운 속에서 날로 확대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들을 저지할 수 없다.

공안당국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분열과 대결을 조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이적단체 규정을 즉각 철회하라!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회하라!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들어 남북간의 화해와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이 함께 합의한 통일의 약속 6.15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남북교류와 공동행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2002년 2월 7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교회선교연합/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수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불교연대/ 인천 통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북통일연대/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 장기수 가족 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성명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월 7일 남조선사법당국은 내외의 한결같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평양에서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하고 돌아간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 놓고 끝내 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들은 지난해 합법적으로 평양을 방문하였던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게 이른바 ≪특수목적의 탈출 및 회합≫이니 ≪고무찬양≫이니 ≪리적단체가입≫이니 하는 따위의 ≪죄≫목을 걸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들씌웠다.

더욱이 엄중하지 않을수 없는 것은 남조선사법당국이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에 대한 재판놀음을 벌려 놓고 당치않게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고 웨치면서 범민련을 ≪리적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반민족적인 대결소동을 피운 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해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평양에서는 합의된 절차에 따라 범민련과 함께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녀성, 종교단체들등 북과 남의 여러 단체대표자들사이의 폭넓은 상봉과 대화가 진행되였으며 여기에서는 6.15공동선언리행에서 나서는 많은 유익한 문제들이 협의 결정되였다.

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환영하였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가운데서 유독 범민련에 대해서만 범죄시하면서 악형을 들씌운데는 범민련의 의로운 활동을 눈에 낀 가시처럼 여기면서 이번 기회에 범민련을 말살해 버리려는 반통일세력의 불순한 기도가 깔려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이번 남조선사법당국의 반북적대적인 언동과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 대한 탄압행위를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몰아 가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범민련을 끝끝내 말살해 버리려는 음흉한 책동의 일환으로 락인하면서 온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단죄규탄한다.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 공동선언을 지지한다면 과거여하를 불문하고 남조선의 그 어느 단체, 인사도 차별함이 없이 함께 손잡는 원칙에서 련대련합을 실현해 나가고 있으며 이것은 내외의 한결같은 지지와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랭전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리적≫을 운운하면서 련북통일의 길에 나선 단체들과 인사들을 차별하고 탄압하는 자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은 안중에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들이라는 것을 그대로 실증해 주고 있다.

남조선사법당국은 범민련 남측본부성원들에게 부당하게 가한 형벌을 당장 취소하고 무조건 전원 석방하며 그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만일 남조선당국이 내외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범민련 남측본부를 계속 탄압하는 길로 나간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사법당국의 태도를 주시할 것이다.

주체91(2002년) 2월 11일
평 양

민가협 설앞두고 414차 목요집회 개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4백 14번째 목요집회에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 흘리는 양심수 어머니와 가족들의 절절한 사연이 탑골공원 앞을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7일 탑골공원 앞에 모여든 보라색 수건의 양심수 가족들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도 설이 되면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고향을 향해 달려가는데, 남들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서, 길바닥에서 수배생활을 하고 있는 양심수와 예비 양심수들과 그 가족들은 이런 때 더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된다≫며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전했다.

민혁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에 구속된 임태열씨의 아내 박윤희씨는 ≪우리 지원이(7세)가 내년 설날에는 아빠 품에서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박윤희씨의 품에 안겨 있던 지원이는 엄마 얼굴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조그만 손으로 닦아주며 ≪엄마, 울지마≫라며 엄마를 위로해 듣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지원이는 아빠가 구속되는 자리에 같이 있었고 면회도 같이 가고 해서 아빠가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원이가 7살이 되면 아빠랑 같이 지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 7살이 되도 아빠가 나오지 않으니까 엄마는 거짓말쟁이라며 요즘 부쩍 투정을 부리네요≫라고 말하는 박윤희씨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비전향 장기수로 26년 동안 복역했던 김영식씨(69세)도 설날이 다가오며 더욱 마음 한 구석이 시려오는 것은 마찬가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다 못해 가슴에 피멍이 맺힌 사연을 말하다 그는 ≪북쪽을 향해 세배라도 올려야겠다≫며 차가운 바닥에 엎드렸다.

민가협 어머니 대표로 나온 방영숙씨는 ≪수배 중인 아들에게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양심수 어머니들의 마음을 적은 글을 낭독했다.

한편, 민가협 목요 집회 마지막에서는 6일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인 2001년 조선대 부총학생회장 김한수씨(26세)가 척추 디스크 수술 후 치료를 위해 조선대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전남도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연행된 것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가협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인신 체포를 감행했다≫며 ≪한총련 불탈퇴라는 명목의 명확한 증거하에 수배중인 김씨는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뿐더러, 몸이 아픈 환자임에 불구속 수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무조건 구속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6시간만에 병원으로 다시 돌려보내진 것으로 밝혀졌으나, 민가협은 이와 같은 비이성적인 형사처벌은 즉각 중단되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세옥 기자 kso@ngotimes.net
시민의 신문

왜 김현희 KAL 858기 실종사건에 주목해야 하는가?

1. 희생자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이상 외면당해서는 안됩니다.

14년 115명의 탑승객을 태운 KAL858기가 인도양 상공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사건을 소위 ≪북괴에 의한 폭파≫라고 규정했습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은 김현희≫는 서울에 와서 많은 것을 느꼈다고 눈물로 참회하면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탑승객 115명은 유품 하나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희생자가족들 역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 채 사망사실과 그에 따른 보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희생자가족들은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품 하나, 시신 한구도 발견하지 못한 항공사고는 역사상 단 한건도 없었고, 당시 정부는 블랙박스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자가족들은 남편 또는 자식의 유품 하나라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한 두명도 아니고 115명이나 되는 자국민이 비행기 폭파로 순식간에 사라졌는데도 정부가 이를 찾는데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수사결과는 오로지 김현희의 자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제출된 물적 또는 정황근거들이 모순투성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희생자가족들의 의혹은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115명의 탑승객들이 ≪폭파에 의한 사망≫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김현희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안기부 직원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갖고 어딘가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또한 희생자가족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14년간 눈물로 호소해왔지만 번번히 외면당하기만 했던 희생자가족들은 오늘도 정부기관과 국정원, 각 언론사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유품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사망≫ 처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더이상 외면당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2. 80년대 레드컴플렉스의 뿌리, 안기부의 금강산댐과 수지김사건 조작. 그리고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

최근 수지김 사건이 안기부의 조작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그에 따른 진상규명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각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비리문제나 정치적 야합의 문제와는 달리 같은 동족인 남과 북의 관계가 적대적으로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수지김 사건이나 금강산댐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속에 북을 ≪적≫으로 인식하게끔 만든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금강산댐 사건이 발표될 당시 온 국민은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다는 가공할 금강산댐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평화의 댐을 건설하는데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세상물정 모르는 초등학생까지도 돼지저금통을 깨어 성금을 냈으며, 각종의 반공 표어와 포스터 공모에서 ≪다시 보자, 공산당≫ 등의 작품들을 줄줄이 내어왔습니다. 온 국민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북의 금강산댐에 공포를 느꼈으며, 북에 대한 ≪위협≫을 막기위해 안보태세를 강화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오늘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병폐 중의 하나는 분단 상황에서 군부정권에 의해 양산된 레드컴플렉스입니다. 이로 인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의식이 깊이 뿌린내려 있습니다. 이는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확연히 달라졌던 대북인식이 남북관계의 악화를 틈탄 일부 세력과 언론의 반발에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잘 표현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북의 위협≫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최대 불안요소로 인식되고 있으며, 남북화합과 단결로 시작되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문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밝혀진 안기부의 조작사건들을 고려해보았을 때, KAL858기가 북의 소행이라는 근거가 모순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희생자가족들이 제기하는 KAL858기 사건에 대한 의혹은 당연히 재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3. KAL기 사건으로 인한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규정문제는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정착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습에 이어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발언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발표한 ≪불량국가≫로 전쟁을 확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기하는 ≪불량국가≫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나라들을 포함해 미국의 패권정책에 반기를 들고있는 나라들입니다. 최근 북이 여러번 공식석상에서 반테러입장을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당분간 북을 ≪테러지원국≫에

서 제외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자칫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한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미국은 ≪테러≫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전세계에 ≪테러와의 전쟁≫에 무조건 동참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일본, 영국 등을 제외하고는 이미 수많은 나라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테러와의 전쟁≫에 마지못해 동참하고 있는 현실이며, 한국 역시 그 수많은 나라 중의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동참은 최근 보여지듯 남북관계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북은 이남에 ≪비상경계령≫ 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남북관계의 그 어떠한 진전도 어렵다는 사실을 이미 수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는 동족이 자신을 겨누고 있는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한 사실에 대한 강력한 불만의 표시인 것입니다.

KAL858기 사건은 북에 대한 ≪테러지원국≫ 규정의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북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이유가 바로 KAL858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시 UN안전보장이사회는 증거 불충분으로 한국과 일본이 제기한 조치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UN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으며, 지금껏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만일 KAL858기가 ≪실종자 가족≫을 비롯한 이들의 제기대로 ≪폭파≫가 아니라 ≪실종≫이라면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 문제 역시 새롭게 다뤄져야 합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망을 열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김현희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http://www.kal858.or.kr

KAL희생자 가족들,
이철승외 다수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차옥정외 14인) 이 2월 7일 오전 11시 명예훼손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로 이철승외 수인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KAL858희생자 가족들은 자유민주민족회의 이철승 대표외 수인이 2001.11.29 서울 강남구 양재동 소재 ≪대한항공 미얀마 상공 피폭희생자 위령탑≫앞에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되던중 이철승 외 수인이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김정일**의 지시를 받았다≫, ≪**김정일**의 프락치다≫, ≪이곳이 붉게 물들었다≫ 고 함으로써 KAL858희생자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 기자회견을 한다는 이유로 희생자가족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한 것, KAL858가족들의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방해한 것을 고소사실로 하여 고소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KAL858희생자 가족들은 고소장을 접수하게 배경에 대하여 희생자 DC10기장 박명규씨 부인 차옥정 여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눈물과 한의 14년동안, 우리 가족들의 절절한 바램은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이었다. 수지김 사건을 접하며, 우리 가족들은 KAL858기 사건도 혹시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어디선가 살아있을 것만 내남편을 생각할 때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철승씨등이 왜곡하며 우리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였다. 따라서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왜곡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은 고소장을 접수하며 참고자료로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 기사 (2001.11.29자 ≪KAL 858은 폭파아니라 실종≫), 인터넷 시민의 신문기사 (2001.11.29자 ≪극우인사들 KAL위령제서 유가족 폭언, 폭행≫), 현장사진,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KAL858기 사건 진상규명 가족대책위
거리 캠페인 진행!

KAL858기 희생자 가족들이 2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동안 서울역에서 귀향길에 오른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진상규명의 간절한 염원을 몸에는 이라는 띠를 두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고 라는 제목의 신문을 열성적으로 돌리셨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거리 캠페인이었지만, 앞으로도 자주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티즌들과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김현희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
http://www.kal858.or.kr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강화≫ 재확인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호, 2월 8일~2월 14일

민주노총이 지난달 30일 영등포구민회관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치방침을 확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정치방침은 △민주노동당의 강화를 위한 당원확대사업과 더불어 당의 실질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대표체로 확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를 관철시켜나가는 과정인 지방선거에 민주노총의 조합원이 다수 출마할 수 있도록 조직적 결의를 모아갈 것 △정당 명부제, 정치개혁, 지방선거 공동대응을 중심으로 민주진보세력과 정치적 연대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고 이를 위해 각 단위노조별로 정치위원회(정치부)를 구성할 것과 정치교육 강화 등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정치방침결정으로 그동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이견을 완전히 불식시키고 좀더 힘있게 정치사업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고 있다. 최승회 민주노총 정치국장은 ≪민주노동당 강화라는 정치방침에 대해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치위의 정치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당명부제 실시를 민주노총 주요요구로 채택했다는 점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김태일 민주노총 정치위원장(민주노동당 부대표)은 ≪정치적 사안이 민주노총 주요 요구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라며 ≪조합원들이 정당명부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노동자 대회 등 각종 집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정당명부제 필요성에 대해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김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치방침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하겠다는 단순하면서도 의미깊은 결정≫이라며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를 밝힌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정치위원회는 당원확대 사업을 비롯한 정치사업을 펼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단위노조에 정치위원회(정치부)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각 연맹별 구성현황을 매월 집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양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정치적 관심이 어느해 보다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단위노조에 정치위를 반드시 신설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진지로 삼겠다는 의지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달 15일 중앙위에서 지방선거 후보자는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지구당 조직이 없거나 당조직과 함께 연대, 연합후보로 조정하여 출마하는 경우는 예외) 각 지역 본부별로 지방선거후보자를 물색하는 동시에 민주노동당 지구당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민주노동당 중앙당과 민주노총은 월 1회 정책협의회를 열고 선거공약 등을 논의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양 조직이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민주노총 중앙위에서는 민주노총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 왜 ≪반드시≫ 민주노동당후보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조합원의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가 조합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에서였다.

2000년 4. 13 총선 이후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을 통한 선거대응이 일보 진전된 전술이었다≫는 공식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만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대한 일부의 이의제기가 끊이질 않았다.

결국 지난달 15일 열린 1차 중앙위에서 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로 추인 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출마한다는 원안에 대해 민주노동당을 통한 출마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 안은 찬성 4표(86명 참석)로 부결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23차 대의원대회에서도 중앙위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수정안이 다시 제출됐다. 찬반토론 끝에 표결에 부쳐진 수정안은 참석 대의원 4백23명 중 64명만이 찬성하는데 그쳐 폐기되고 원안이 통과됐다.

지난 1999년 8월 15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창당을 결의했던 민주노총은 2000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그해 1월에 창당되는 민주노동당 강화 방침과 선거방침을 정했다.

이후 2001년 정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는 성원미달과 유예로 인해 정치방침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다가 이번 23차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 강화방침을 표결로 정해 이제까지 논쟁을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진보정당 운동 주체적으로 나선다

정대연(전국연합 대변인) /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75호, 2월 8일~2월 14일



지난 2월 3일 열린 전국연합 11기 대의원대회는 91년 출범 이후 전국연합이 걸어 온 10년 역사를 총화하고 새로운 10년의 시작을 알리는 대회라는 점에서 역사적인 대회였다.

전국연합은 11기 대의원대회를 통해 ≪10년의 전망! 3년의 계획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는 구호로 집약된 ≪정치조직방침≫을 채택하였다.

10년을 전후로 하여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조국통일완수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이를 믿고 나갈 조직적 무기로 광범위하고 강력한 민족민주전선과 진보정당 건설을 3년의 계획 아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그 동안 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대립해 오면서 운동의 혼란과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전국연합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과 진보정당운동을 통일된 노선으로 정립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연합은 ≪정치조직방침≫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이 중심이 된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을 위해 민족민주운동 · 민중운동진영의 상설적 공동투쟁체인 ≪전국민중연대(준)≫를 중심으로 한 연대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각계각층을 자주, 민주, 통일이라는 정치강령아래 하나의 힘으로 결집하는 데 헌신 복무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그 동안 ≪전국

연합강화≫이나 ≪전선확대재편이냐≫하는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연합은 또 정치조직방침을 통해 진보정당운동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하였다. 선거와 의회활동만으로 변혁을 완수하려는 합법주의를 경계하면서도 합법정치 공간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대중에게 정치적 대안세력으로 다가가는 진보정당 건설에 나설 것을 결의한 것이다.

소속단체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진보정당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전조직적 동의 속에서 결정이 되었다는 점에서 진보정당운동에 조직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전국연합은 진보정당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민주노동당과 적극 협력하여 광범위한 진보진영의 결집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함께 2002년 양대 선거에 적극 대응할 것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선거에서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후보를 출마시킬 것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등과 공동대응하고 진보진영의 후보단일화 등 단결을 위해 노력할 것 △강력한 대중투쟁과 ≪범국민적 정치사회개혁운동≫을 전개할 것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대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진보진영의 독자후보로 국민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대안세력으로 다가갈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격변하고 있는 정세를 주동적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요청 받고 있는 시기에 전국연합이 새로운 10년의 출발점에서 결의한 정치조직방침이 운동의 단결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전국연합은 이를 위해 결허하게 복무할 것이다.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말라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11일



사회자 : 안녕하세요. 지금 이남 각계에서는 ≪우리 민족끼리 조국통일 이룩하자≫라는 구호를 제시한 새해공동사설과 이북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에 적극 호응해서 민족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계의 투쟁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눌까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김현규 : 지난 1월 통일연대의 주최로 열린 제3차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범국민행동의 날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반드시 관철하려는 이남 민중들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이 채택됐는데요. 결의문은 6.15공동선언은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속에 통일의 열쇠이자 지침으로 깊이 아로새겨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결의문은 미국과 반통일세력들의 집요한 분열정책에 맞서 7천만 겨레의 뜻과 힘을 모아 2002년을 6.15공동선언실현의 결정적 시기, 조국통일실현의 획기적인 시기로 만들 것을 천명했습니다.

사회자 : 이와 때를 같이해서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반미선포식을 갖고 투쟁선언문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현규 : 선언문에서는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은 이남영구지배술책과 우리 민족의 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파탄음모가 있음을 부경총련 20만 청춘은 알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반미투쟁선포식을 시작으로 6.15공동선언이행과 미국의 대북전쟁위협철회를 위한 모든 투쟁을 대학과 거리에서 부산시민들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6.15공동선언이 있기에 두려울 것이 없으며 미국과의 대결에서 종국적으로 웃는 자는 우리 겨레임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얼마전 경기대학교에서 진행된 반미투쟁결의식에서는 참가자들의 투쟁의지를 담은 결의문이 채택됐는데요. 대회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활력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 민족의 앞길을 가로막고 공동선언이행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사회자 : 그런가하면 범민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가는 것은 되돌릴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자 공동선언이행에 난관과 장애를 조성하는 외세와 반통일세력의 준동에 준엄한 철퇴를 내려야한다≫고 지적했죠.

김현규 : 또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성명에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이래 우리 민족은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다. 그 길에서 우리 민족은 고귀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하지만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미국과 그와 야합한 반통일세력의 준동이 날이 갈수록 우심해지고 있다. 오늘의 시련을 이겨내야한다. 전 민중이 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투쟁해나가야한다≫면서 올해 가열찬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한총련은 성명에서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서슴없이 나설수 있는 것은 심장에 아로새긴 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이며 자주와 예속, 통일과 분열의 갈림길에서 절대로 물러설수 없다는 피끓는 분노가 있기 때문이다. 공동선언을 계속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대문을 여는 투쟁에 총매진하자≫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회자 : 이같은 목소리는 부시미행정부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대북강경정책의 도수를 높이면서 한반도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치닫게 하고 민족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해 나서는데 대한 우리 민중의 결연한 투쟁입장을 반영한 지당한 목소리가 아닙니까.

김현규 : 그렇죠. 그러나 부시는 이러한 우리 민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대신 안하무인격으로 오히려 북을 걸고 악의 축이니 하는 참을수 없는 대북강경발언을 연발해 온 겨레의 분격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기에 지금 온 겨레는 부시의 무분별한 대북강경발언에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할 굳은 결의에 넘쳐 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책동으로 민족통일의 앞길에 그 어떤 난관이 조성된다 해도 민족의 공조로 단호히 물리치고 6.15남북공동선언을 기어이 실천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분기해 나설 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선군정치의 뿌리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6일～8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선군정치의 뿌리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창조하신 선군정치는 현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독창적이며 정당하고 강위력한 정치방식인 걸로해서 우리 겨레는 물론 온 인류가 열렬히 신봉하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군정치가 얼마나 위대한 정치방식인가를 알려면 선군정치의 내용과 그 독창성, 정당성에 대해 올바로 인식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선군정치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완성된 정치방식입니다.

군대는 당이고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선군의 원리도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있고 선군의 전통도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자기 식으로 모든 걸 풀어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이룩된 것이며 선군정치의 위력도 주체사상의 위력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체사상은 민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야한다는 위대한 진리를 밝혔습니다.

이 세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는한 민족의 운명은 저절로 지켜질수 없는 겁니다.

강위력한 총대가 없으면 민중의 운명은 농락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민중의 운명은 총대와 직접 연관되어 하나로 잇닿아 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거머쥐고 역사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가는 민중이란 결국 총대를 튼튼히 거머쥔 민중입니다.

총대에 의하여 민중의 운명이 지켜지고 개척되며 그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이 주체사상에 의해서 밝혀진 혁명의 원리이며 총대중시사상입니다.

이와 같이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으며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입니다. 바로 그처럼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로 해서 선군정치는 오늘의 역사적 조건에 걸맞고 민중의 운명개척에서 항구적으로 거머쥐고 나가야할 가장 혁명적이고 가장 강위력한 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군정치의 뿌리가 주체사상에 있다고 말할수 있느냐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삼고 자기 식대로 변혁운동을 벌여나가는 실천투쟁속에서 창조된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라는데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세기 90년대 이북은 제국주의연합세력과 그 추종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그 고난의 행군시기는 민족자주위업의 전도와 운명이 좌우되는 준엄한 나날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역사에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앞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최대의 유산인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주체위업을 끝까지 완성해야한다는 걸 단호히 선언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 나날은 자기 식으로 주체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에 의해서 세계정치사에 처음으로 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 선군정치가 탄생되고 완성되어온 나날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날로 노골화되는 조건에서 단신으로 나라와 민중,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주체위업을 추진시켜나가려면 총대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걸 통찰하시고 인민군대를 변혁운동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그에 의거하여 변혁운동을 추진시키는 선군정치방식을 확립하셨습니다.

결국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끝까지 나가기 위한 전략적 대강으로 확립되고 완성된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의 뿌리가 주체사상에 있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뿌리로 한다는 건 다음으로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선군정치는 모든 실천에서 주체사상이 요구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그것을 오늘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게 훌륭히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하고 강위력한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고 창조적 방법을 구현하는 등 주체사상의 모든 원칙과 요구들이 선군정치에 의해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주체사상의 중요한 요구인 자주적 입장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만을 보아도 선군정치는 자기의 정치, 자기의 사상, 자기의 제도, 자기의 위업을 견결히 수호하고 빛내임으로써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자기 식, 자기 힘으로 풀어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선군정치는 무적의 군력으로 민족의 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고 민중의 이익을 옹호하여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강위력한 주체적 힘에 의거하여 모든 걸 풀어나가며 튼튼한 군사력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국가경제력을 마련해나가게 합니다.

선군정치에 의해 오늘 이북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이 날을 따라 강화되고 강위력한 자립적인 국방공업이 굳건히 다져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선군정치가 펼쳐진 이북에서 지난 수년간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사상, 정치, 경제, 국방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는 기성이론을 가지고 판단할수 없고 인류사상 일찌기 있어본 일이 없는 최상의 것이여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선군정치와 주체사상은 불가분리의 관계이며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뿌리를 둔 가장 강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걸 뚜렷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창조하시고 영도하시는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6.15남북공동선언관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자가 앞장에 나섰다

노동운동가 장천명 /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2월 4일~5일

날씨는 차갑지만 노동자대중의 가슴마다에는 투쟁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청산하는 반미투쟁에 노동자대중이 나섰습니다.

노동운동가 장천명씨의 글 ≪노동자가 앞장에 나섰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미국대사관앞에서 제28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는데요.

집회에는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국민행동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준비위원회를 비롯해서 여러 시민단체 성원들과 함께 대우자동차노조 소속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하여 내외의 큰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신자유주의세계화책동으로 이 땅의 노동자생존권이 크게 위협당하고 있다면서 미군철수투쟁에 노동자가 앞장서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미국이 이 땅에서 물러날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말 기백있는 노동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28차 반미연대집회를 통해 올해 반미자주화투쟁의 선두에 우리 노동자대중이 당당히 나섰음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은 올해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데 관한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첫출발을 아주 의의있게 잘 뗐다고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기에 이룩한 질적인 의식발전에 걸맞게 올해는 직접적 행동으로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의 앞장에 노동자대중이 나섰다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됩니다.

지난 시기에 실지체험을 통해서 침탈적인 미제의 정체를 바로 인식했고 이 땅에서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미국의 식민지지배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근로민중의 근본적인 삶의 개선도, 민족자주통일도 있을수 없다는 걸 잘 알게된 노동자대중입니다.

불의에 가차없는 우리 노동자계급은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본데 그친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반미자주화투쟁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올해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짚었던 것입니다.

특히 올해 첫 시작부터 노동자계급의 제28차 반미연대집회참여는 이를 계기로 사회각계층과의 연대투쟁강화의 실천적 모습으로 등장해서 모든 대중운동에 보다 큰 힘을 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생존권쟁취를 비롯한 사회민주화실현과 6.15공동선언실천투쟁 등 모든 대중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이 더욱 악랄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각계와 연대해서 강력한 하나의 힘으로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는 건 자명한거죠. 승리는 오직 하나로 굳게 뭉친 힘에 있습니다. 이건 지나간 모든 운동에서 터득한 진리입니다.

올들어 200여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각계와 함께 반미연대집회에 참여한 것은 지난 기간 운동중심밖의 테두리를 맴돌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현장에 깊이 들어가 노동자들과 반미투쟁현장에 발을 잡고었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노동운동가들의 잡도리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운동들에서 각계 민중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며 공동보조를 취해나간다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노동자대중이 서로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각계 민중과 어깨겯고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올해 투쟁의 첫걸음을 잘 뗐는데 이를 적극 살려 노동운동을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겁니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농민, 청년학생 그리고 사회각계를 비롯한 전민중이 하나로 뭉쳐 사회민주화실현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각계층 민중과 함께 합법적 공간속에서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전개해 나가는 여기에 근로민중의 생존권은 물론 이 땅에서 미국을 내쫓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도 철저히 실천할수 있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반미연대집회에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면 내일의 투쟁에는 2000명, 20000명, 아니 1300만 전체노동자가 다 참가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노동운동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대중적으로 보다 강력해질수록 이를 방해하려는 자들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할겁니다.

근로민중의 피땀을 빨아 저들의 부귀영달을 추구하는 자들과 이에 기생해서 더러운 정치적 잔명을 유지해보려는 자들은 각계 민중의 단합되는 힘, 뭉친 힘을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때문에 이번 반미연대집회에 노동자들이 참여한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공안당국은 앞으로 모든 권모술수와 공권력을 동원해 범국민적인 연대연합을 가로막고 나아가서는 노동운동권과 모든 대중운동권안의 대립과 이간을 조성시켜 분열와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할 것입니다.

노동운동가들을 비롯한 모든 운동단체들은 이에 각성을 높이고 공안당국의 분열이간책동에 주동적인 연대투쟁공세로 단호히 대처해나가야 할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운동조직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에게 연대연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한편 분열주의세력이 발붙일 사소한 틈도 주지않도록 대오를 굳게 묶어 세우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올해 노동운동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에서의 승리를 기약할수 있게 됩니다.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주도세력인 우리 노동자, 농어민 대중이 일어나야 이 땅에 좋은 세상이 옵니다.

부시방한 규탄 민주노동당 긴급 지침

2월19일부터 21일까지 신자유주의의 정책의 근원, 세계 평화의 파괴자 부시가 이 땅에 온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2월5일 기자회견에서도 밝혔듯이 부시방한을 온 당력을 모아 규탄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지부와 지구당에서 부시방한 규탄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방한 규탄 민주노동당 3대 지침

1)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2월20일 오후3시에 서울을 비롯한 각계지역에서 대규모 규탄대회에 조되 투쟁을 벌여 반드시 참여한다!
2) 한반도 전쟁반대와 미군기지반환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파주 전동록씨 모금운동을 전지구당에서 총회나 정치실천으로 꼭 전개하자!
3) 각 지구당별로 부시방한 규탄과. 미군기지 반환 내용으로 프랑카드를 내걸자!

≪ 부시방한반대 투쟁 기획안 ≫

1. 총슬로건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전쟁책동과 군비증강 중단하라

전쟁반대 확전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2. 6대 핵심 요구

1) 대북 적대정책 철회 · 전쟁위협 중단 · 북미평화협정 체결
 –적대정책 철회의 핵심은 북 테러지원국 지정 철회와 경제제제 해제, 북미간 남북간 평화선언을 통해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음
2) 공격용 미사일 MD 저지 · 군비증강 강요 반대 · 반핵 평화군축 실현
3) 한미투자협정체결중단 · 신자유주의구조조정강요반대 · 경제주권 실현
4) 용산미군기지 반환 · 미군기지 신설 확장 반대 · 군사주권 실현
5) 국가테러 인권유린 양민학살 사죄배상 · 한 미 일 테러대책법 폐지
6) 패권적 내정간섭 중단 ·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 정치주권 실현

3. 사업내용

1) 부시방한 반대 제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2) 설 귀향 선전전
 ◎ 의의
 – 부시방한 반대의 내용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의 자리이다.
 – 이러한 홍보를 통해 부시방한 반대투쟁을 확산하는 과정이다.
3) 1인 릴레이 시위
 ◎ 의의
 – 부시방한반대의 공분을 부시방한 전에 모아내는 투쟁이다.
 ◎ 개요
 – 일시 : 2월 14일부터 2월 21일까지, 12시~1시, 4시~5시 30분
 – 장소 : 미대사관, 용산 미8군 사령부 등
4) 2002 한반도 평화선언대회
 ◎ 일시, 장소 : 2월 18일 오전 10시 명동 YWCA
5) 부시방한 반대를 위한 시국농성 돌입기자회견 및 시국농성
 ◎ 의의
 –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시국농성으로 부시방한반대 상징적인 투쟁의 거점을 마련
 – 이와 동시에 시국농성을 통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미국의 반대하는 투쟁을 확산하는 근거지가 마련
 ◎ 개요
 – 일시 : 2월 18일(월) 11시 30분 돌입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국농성 돌입
 – 장소 : 열린시민공원
 – 각계인사들이 최대한 조직한다.
6)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투쟁
 ◎ 개요 및 방식
 – 부시가 움직이는 곳에 밀착하여
 – 그림자 투쟁 전개
7) 부시방한 반대 범국민 대회
 ◎ 개요
 – 일시와 장소 : 2월 20일 오후 3시, 종묘
 – 주최 : 연대조직 연명
 – 주관 : 민중연대
8) 부시방한 범국민 캠페인 전개
 ① 지역과 현장에서 현수막 걸기
 – 민주노동당 각 지구당,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각 노조 와 전농 지역연맹, 전국연합 지역연합등 모두 각 사무실에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건다.
 – 현수막 걸기 시점은 2월14일부터 진행
9) 부시방한 규탄 총력 투쟁
 – 부시의 방한 후 내놓은 결과들을 총력 집중 투쟁으로 규탄하는 자리이다.
 – 2월 23일(토) : 용산 미8군 사령부 앞
 – 민주노동당은 20차 투쟁, 용산운동본부 4차 투쟁

부시 방한 반대 청년학생 공동투쟁 계획

한총련, 다함께, 전국학생연대회의, 21세기 진보학생연합, 학생행동연대

≪부시 방한 반대 청년학생대회≫

1. 부시 방한 반대 공동투쟁의 의의와 목표

- 패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사, 경제적 영역에서의 부시의 대한반도 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청년학생들의 선봉투쟁 단결투쟁을 결의한다.
- 올해 지속적이며 완강하게 전개될 반전반미 투쟁에 대한 청년학생 제 단위의 공동투쟁 결의를 모은다.
- 투쟁속에서 청년학생들의 연대와 단결의 기운을 높인다.

2. 요구안

1)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 중지하라
2)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3)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4)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5)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6)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7)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 부시 방한 반대 제단체·연대단위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요구안과 동일하게 한다.
※ 청년학생대회인 만큼 청년학생 독자적인 요구안을 상정하자 (추후 논의결정)

3. 집회 기획안

1) 집회명칭
전쟁반대 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 철회! 한미투자협정 저지!
부시 방한 반대 청년학생대회

2) 일시 및 주최단체
- 2월 20일 1시
- 한총련, 전국학생연대회, 학생행동연대, 반전위원회(녹색연합늘푸른청년모임, 다함께, 서울대교구카톨릭대학생연합회, 원불교전국대학생연합회, 21c진보학생연합, 전국철학과학생회연대, 전국카톨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천주교글라렛학생선교회 등) / 계속 추가

3) 장소
- 서울 도심(구체적 장소 추후 확정)

4) 집회 순서(가안)
≪사전집회≫
- 힘모으기
- 문예공연
≪본집회≫
- 대회사 :
- 연대사 :
- 축하공연
- 규탄연설1 : 한반도 평화위협 전쟁정책 규탄연설
- 규탄연설2 : 미국주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조조정 및 개방압력 규탄연설
- 공동투쟁결의문 채택 및 낭독
→ 행사후 부시방한반대 범국민대회로 결합

5) 주요 구호
- 전쟁 확대 중단하고 한반도 전쟁 정책 중지하라
- 한미투자협정, 신자유주의 세계화 중단하라
- 엠디(MD) 강요, 전쟁무기 강매를 중단하라
- 용산 미군기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미군기지를 전면 반환하라
- 양민학살에서 한강독극물사건까지 미군범죄 사과하고 소파협정 개정하라
- 6.15남북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간섭, 방해하지 말라
- 김대중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파병 철회하고 굴욕적 한미공조 중지하라

6) 실무준비
- 집회신고
- 무대 및 음향시설
- 대회플랑
- 공동선전물 1종 / 공동투쟁결의문
- 방송차
- 취재요청

7) 재정

아 태양의 꽃

신조국

꽃이 폈네
세종로 셋방촌 우리집 창가에
꿈같이 피어났네
아름다운 **김정일**화

가난에 눌려사는 밑바닥 인생들
쌓인 설움 가시라고
꽃송이 그리도 크고 눈부실까
꽃빛깔 그리도 열정에 붉게 탈까

두리가 환해지고 마음도 따뜻하네
해돋이 순간처럼 빛을 뿜는 꽃송이
우리집 창가에 해님이 떴네
김정일영수님 태양의 영상 어려오네

민중 위해 뿌리시는 사랑의 미소
햇빛으로 내려 서울어둠 쫓겨가네
겨레를 품으신 뜨거운 열정
꽃향기로 넘쳐 얼음장벽 무너지네

아 셋방촌 사람들 어깨성 쌓은 속에
노을빛 불덩이
태양의 꽃 **김정일**화!
새천년에 보내시는 장군님 미소 따라
아침이 왔네! 봄이 웃네!

주체 91 2월 4일

각계에서 호전광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중연대와 민주노총이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반미시위를 벌였습니다.

사회단체들이 미호전분자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한겨레≫ 2월 2일자가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을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한겨레≫는 ≪미국의 군사주의와 한반도평화≫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가 새해국정연설에서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군사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지적하고 9.11테러이후 미국이 보여온 군사적 일방주의는 단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님을 보여준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겨레≫는 미국은 다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기에 앞서 9.11테러이후 이성보다는 폭력에, 대화보다는 군사력에 의존하는 그들 내부의 악은 없는지 먼저 되돌아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겨레는 또 미국은 이북 등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비난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이며 그것도 모자라 사상최대의 국방예산을 준비하고 있는 나라도 미국이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과 생물무기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나라도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미국의 ≪뉴욕타임즈≫지가 사설에서 ≪9.11테러가 부시에게 무제한의 사냥허가증을 주었다≫고 한 비난이나 영국 ≪가디언≫지가 ≪미국이 9.11사건을 빌미로 세계를 재단할 권한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비판한 점에 대해 미국은 귀를 기울여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만약 미국이 지금처럼 일방적인 군사주의로 흐른다면 거센 저항을 면할 길이 없다면서 특히 부시의 발언이 한반도평화와 민족생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한반도에서 거센 반미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노근리대책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일 6.25전쟁당시 미군지휘관들이 민간인살상을 명령했다는 사실이 영국 비비씨방송을 통해 확인된데 따라 이 사건이 유엔인원위원회에 상정될수 있도록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지난달 미국방문차 부시행정부와 고위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났고 이후 미 국회의 대북강경발언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회창의 대북관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조선일보가 이북이 인류문예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악의에 차서 헐뜯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조선일보의 악행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지구촌은 이북이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평양에 직접 가서 보려는 평양행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건 아리랑이 인류문예사상 다시없을 희한한 대걸작으로 창작완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전통가요인 ≪아리랑≫을 주제로 한 이북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세계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 우리 민족의 자랑이고 경사가 아닐수 없다. 그런데 유독 조선일보만이 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에 대해 입에 담지못할 악담을 퍼붓고 있어 온 겨레와 인류양심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작태는 분명 음흉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그건 북이 준비하고 있는 ≪아리랑≫과 북으로 향하는 민심을 차단해서 각계에 평양행을 막아보려는 추악한 목적의 발로인 것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이같은 책동에 놀아날 우리 국민이 아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 역행해 반민족반통일, 매국배족행위만을 일삼는 조선일보는 지체없이 폐간되어야한다.≫

부산시 동래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모씨는 조선일보는 역사적으로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는데 앞장서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제말기 조선일보는 해마다 새해 첫날이면 1면에 일왕부부의 사진과 함께 찬양기사를 실었고 제호위에 일장기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왕의 생일날에는 또 이를 축하하고 학도병참전을 독려하는 기사를 싣는 등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찬양하는데 앞장섰다. 광복후 조선일보는 미국의 한국강점을 적극 지지하면서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한사코 반대해왔다. 정말 조선일보의 민족반역행위를 들자면 끝이 없다. 이런 조선일보이기에 새해 벽두부터 동족대결을 고취하면서 북이 준비하는 ≪아리랑≫에 대해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늘어놓는 망동도 서슴지 않은 것이다. 이같은 조선일보야말로 더 이상 그대로 둘수 없는 민족반역지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민족의 이익을 해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결만을 꾀하는 민족반역지인 조선일보는 지체없이 폭파해버려야한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성명을 발표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대표들의 방북길을 차단한 이남 당국의 반통일적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카데미아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벨라루씨 국제정보기술아카데미아 명예원사칭호와 명예박사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주체 91 2월 5일

한민전 중앙위원회는 3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중연대, 통일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전국연합, 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를 비롯한 600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대표들이 지난 1월 31일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기자회견과 공개서한전달식을 갖고 부시의 한국행각 등을 규탄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통일연대)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해 ≪연두교서≫에서 한 부시의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여야개혁파들의 모임인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와 미국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BBC방송을 통해 6.25전쟁시기 노근리를 비롯한 이 땅 곳곳에서 감행한 미군의 양민대학살만행이 미군지휘부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학살사건이였다는 것을 다시금 목격한 각계에서는 미국에 대한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노근리사건피해자 유족인 박모씨는 미군의 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혀낸 BBC방송을 보니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라해도 어떻게 여인들과 아이들에게 서슴없이 기관총을 난사할수 있는가. 또 피난민들은 모두 적이고 사냥감이라며 죽이라는 명령을 내릴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미군이 사람잡이를 업으로 삼는 야수이며 식인종의 무리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이 노근리사건 등이 우발적 사건이였다느니 피난민을 쏘라는 명령을 내리지않았다느니 하며 역사의 진

실을 축소, 은폐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철면피한 행위인가. 미국은 *****이라고 사람들을 모독하고 우리 민족을 우롱하는 행위를 당장 그만둬야한다. 미국은 하루빨리 노근리사건의 범죄를 인정하고 사죄와 보상의 길로 나가야 한다.≫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이모씨는 노근리사건의 진상을 은폐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분격을 금할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인 학살은 없었다느니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사병의 우발적 사고였다느니 하며 피해를 당한 양민들에게 사죄나 배상은 없다고 떠들고 있다. 참으로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궤변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역사의 진실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미국은 이미 드러난 양민대학살만행의 진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응분의 사과와 보상을 해야한다. 만약 미국이 이를 거부한다면 우리 민족과 인류양심의 더 큰 항의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한나라당 이회창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없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망언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추종하는 자신의 반민족적, 친미사대주의적 근성을 또다시 드러낸 용납못할 행위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평양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행사개최를 위한 남북단체대표들의 실무접촉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에는 남측에서 ≪통일연대≫, ≪민화협≫, ≪7대종단≫, ≪환경운동연합≫단체대표들과 북측에서 민족화해협의회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남북단체대표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어떤 경우에도 철저히 고수되고 이행되어야할 조국통일의 확고한 이정표이며 공동선언정신에 따라 올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조국통일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대해 견해를 같이 하면서 당면하게 통일운동앞에 나서는 문제들을 협의하고 해당한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외부세력에 의해 한반도에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응분의 주목을 돌리고 단합된 힘으로 새 전쟁의 위험을 가시며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데서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것을 올해 통일운동의 기본과제로 제기하고 당면해 오는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강산에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체 91 2월 6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월 5일 조선인민군 금성친위 138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한총련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시의 분별없는 전쟁책동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1일 성명을 내고 부시의 호전적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의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상임고문과 20여명의 의원들은 5일 성명을 통해 최근 부시의 잇따른 강경발언은 한반도의 화해와 교류의 기본축을 탈선할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미행정부에 한반도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4일 16명의 여야의원들이 밝힌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반대구호에 찬성하며 민족자주권을 지키려는 모든 여야의원들과 행동을 함께 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6.25전쟁당시 미군이 마산과 포항등지에서도 민간인들을 무차별 학살했다는 영국 BBC방송의 보도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피해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민족최대의 경축일인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혁명실록의 위대성에 대한 전국연구토론회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5일 담화를 발표해 일본의 대형운반로켓 ≪H2A≫ 2호기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담화는 일본이 로켓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최근 그 어느때보다도 노골화되고 있는 군국주의부활책동이 거침없이 엄중한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담화는 일본은 ≪유사시법제≫를 정비하고 ≪자위대≫의 기본임무를 ≪방위≫로부터 ≪해외진출≫이라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공공연히 전환시켰으며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와 지지하에 독자적인 우주정탐체계를 세우는데로 질주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담화는 북의 이른바 ≪미사일위협≫과 ≪대량살상무기문제≫에 대해 운운하고 있는 미국이 일본미사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마사일문제를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미사일문제를 걸고 북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침략기도를 전례없이 노골화하고 있고 그에 편승해 일본이 실질적인 미사일능력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사태하에서 이북이 자주적인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민족당국 수반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답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사회민주당 대변인은 이남의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미국에 가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발을 줴친 것과 관련해 4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체 91 2월 7일

통일연대소속 김영찬씨가 2월 5일 시내 모처에서 열린 정세포럼에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정세와 미국≫이라는 제하의 연설에서 북을 악의 서열에 세워 비판한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발언을 전쟁광신자의 궤변으로 강도높게 단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으로 인해 나날이 긴장격화의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제아무리 이북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패권주의의 더러운 야심을 실현하고자 하지만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이북은 인민군이 그 어떤 대적도 쳐물리칠수 있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을 떨치고 있고 군민이 하나로 똘똘뭉쳐 온 나라를 철벽의 요새로 다져놓았다.≫

김씨는 계속해 ≪이북이 그 어떤 침략세력의 위협이나 도전에도 끄떡하지 않는 강위력한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된 것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국사중의 제1국사로 거머쥐시고 현명하게 영도하고 계시는데 있다.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담력, 천변만화하는 지략을 지니시고 그 어떤 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는 한 이북은 미국의 그 어떤 도발도 제압하고 나라의 존엄을 굳건히 고수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임상겸, 이인수공

동의장들이 영국 BBC방송이 방영한 노근리학살사건관련보도를 보고 ≪짐승보다 못한 인간쓰레기 부시는 행각시 목을 내놓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총련은 한나라당 이회창의 사대매국적인 미국행각과 관련해 ≪민족을 팔아 청와대의 입주권을 구걸하는 이회창은 국민앞에 사죄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발언이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전남통일연대는 4일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것은 남북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 단체는 부시가 방한을 통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한국을 편입시키고 군용기구매를 강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반도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600여개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위원회도 6일 명동성당에서 부시방한반대기자회견을 여는 것을 시작으로 범국민적인 반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단체는 18일에는 학계와 문화계 등 5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성명발표와 평화대행진을 벌이는 한편 20일에는 부시방한규탄범국민대회를 대대적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통일단체들도 미대사관앞에서의 1인시위와 부시방한반대기자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연대사업부 간사는 부시발언은 미국의 패권주의적 정책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녹색연합 간사도 부시발언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키우려는 속셈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한국군의 무기구매과정이나 한미투자협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부시의 발언을 기회로 또다시 반북정서를 재생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군기지되찾기공동대책위원회 등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미대사관앞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는 6일 노근리양민학살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노근리양민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여야개혁성향의원들이 부시의 대북강경발언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는 항의서한을 6일 주한미국대사관측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미대사관저를 방문해 여야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은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북미관계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여야개혁성향의원 36명은 부시행정부의 북미대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장전형부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한나라당 이회창과 김용갑의원의 절제되지 않은 대북발언이 국민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두 사람의 아들 4명이 모두 병역면제를 받은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필연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호전적 발언을 쏟아낸데 대해 비난하고 김용갑의원은 대북강경발언에 앞서 두 아들의 병역기피사유부터 국민앞에 고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총련산하 청년학생단체일군들이 1월 25일 각각 담화를 발표해 이북의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 호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조선직업총동맹 대변인은 6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미국에서 반민족반통일적인 망발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피델 카스트로 쿠바수상이 그분께 축하를 드렸습니다.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가 1월 28일 러시아 나호드까시에서 결성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절에 즈음해 우즈베끼스딴고통련산하 청년예술단들의 제3차 예술축전이 2일 따슈껜뜨주 *** 치르츠쿠구역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란 외무성대변인은 4일 ****과의 회견에서 이란이 테러분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주체 91 2월 8일

각계에서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의 주최로 지난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전쟁위협, 내정간섭, 경제침탈 부시행각저지 반미결의집회가 진행됐습니다.

6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위원회는 6일 미국대사관앞에서 전쟁반대, 한반도평화실현, 대북적대정책철회, 신자유주의세계화반대를 위한 부시방한반대 계단식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범국민적 반미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은 부시가 연두교서에서 대북선전포고나 다름없는 전쟁도발흉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5일 미대사관앞에서 열린 시민마당에서 권영길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가 망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평화통일협의회도 이날 미대사관앞에서 부시의 ≪악의 축≫발언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였습니다.

방한을 앞둔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한반도문제에 강경일변도로 치닫는데 대한 종교계의 규탄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20여개 불교단체는 7일 오전 11시 조계사옆 만해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국회 연두교서에서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데 대해 온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7일 성명을 발표해 미국행각시 이회창이 내돌린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망언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1 2월 9일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의 60성상의 성스러운 혁명역사는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영도자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입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광복후부터 지난해까지 찾으신 단위수는 무려 1만1326개에 달하고 그 나날에 5781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무려 105만8260여리의 머나먼 길을 걷고 걸으셨습니다.

이 길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220번을 다녀오신 것과 같은 거리이며 지구를 근 11바퀴나 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거룩한 자욱자욱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구상을 ******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백두산장군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1945년 11월부터 1964년 3월까지의 기간에 조국의 현실을 체험하시거나 위대한 수령님의 사업을 보좌해 드리면서 2870개에 달하는 단위들을 찾으시고 16만1790여리의 먼길을 걷고 걸으시며 1567일의 기나긴 나날을 바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근 40년간 4214일을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며 8456개에 달하는 단위들을 현지지도 하셨는데 그 연장길이는 89만6470여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1995년부터 2001년까지의 7년간 1300개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며 577일에 걸쳐 29만1730여리에 달하는 전선길,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세계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외국방문의 길을 걸으시며 인류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 전진을 힘차게 고무추동하셨으며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지난 기간 6차에 걸쳐 아시아와 유럽의 나라들을 방문하시고 17만1110여리에 달하는 기나긴 노정을 이어가시며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성스러운 60성상의 역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영도자의 영광스러운 혁명역사라고 평양방송은 전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부시의 한국행각을 반대해 2일 ≪전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상임의장은 1일 성명을 통해 부시가 북을 악의 축으로 헐뜯은데 이어 측근들도 북에 대한 적대발언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한반도와 세계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발언을 즉시 중단할 것을 부시행정부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200여개 시민단체들이 모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8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정부의 잇따른 대북강경발언과 관련해 ≪한반도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8일 성명을 내고 부시의 한반도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무력과 전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한반도평화정착에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이 발효된 때로부터 35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 각계에서 이 협정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모씨는 한미행정협정은 침략자미군에게 온갖 치외법권적 지위를 보장해주고 있는 예속적인 협정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은 이 땅을 강점한이후 지금까지 우리 민중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는 범죄행위를 다반사로 자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미군의 이같은 범죄행위는 한미행정협정과 같은 불평등협정에 의해 합법화되고 있다. 한마디로 한미행정협정은 *** ****보다 더한 침략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 우리 국민의 생명수인 한강에 독극물을 다량 방류한 특급 범죄자인 미8군 영안실부소장 맥팔랜드가 한국사법부의 재판은 고사하고 승진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이 오만한 침략자들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실감케한다. 이뿐이 아니다. 지금 미군은 한미행정협정을 휘둘러 우리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곳곳의 미군기지들에 아파트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한미행정협정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것인가를 잘알수 있다. 한미행정협정을 그대로 두고서 미군의 오만한 횡포를 없앨수 없으며 우리 국민은 온갖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침략과 굴욕을 강요하는 한미행정협정을 즉시 철폐하고 침략자미군을 이땅에서 철수시켜야한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7일 문재룡씨 등 간부 2명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간단체들의 자유로운 통일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민련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징역형을 내린 것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을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통일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방북단에 대한 유죄판결은 민족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하고 앞으로 6.15공동선언에 입각해 남북교류와 공동협력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평양축전방북단 성원으로 방북했던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임동규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북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라느니 범민련은 이적단체라느니 뭐니하며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범민족대회에 참가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해당된다며 문재룡씨 등 2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재판부의 이같은 폭거는 민간단체들의 통일운동을 가로막고 범민련 남측본부를 말살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민족의 통일열망에 도전하는 반통일, 반민족적인 범죄행위인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절에 즈음해 그분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사회주의에 대한 훼방은 허용될수 없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국제고통련과 우즈베끼스딴고통련의 공동주최로 1월 30일 따슈껜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1 2월 10일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등 3개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용산 미8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오는 6월 용산미군기지안에 아파트 2개동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것은 미군이 용산기지에 영구히 주둔하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신절에 즈음해 2월명절경축 재미동포음악회가 지난 2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됐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프랑스 에디쑈데모크리트출판사에서 1월 30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주체철학의 이해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를 1월 25일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상업인쇄소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의장단회의가 지난 4일과 5일 전화 및 팩스로 진행됐습니다.